

이 발표논문집은 2023년도 정부 자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NRF-2023S1A8A4A0108904411)

2023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지역, 국가와 고등교육 경쟁력 : 전망과 과제

- 논문경진대회 세션 II -

2023. 12. 2. (토) 09:30~10:50

충남대학교 융합교육혁신센터



공동주최 KEDS 한국교육행정학회 KEDI 한국교육개발원

공동주관 NRF 한국연구재단 kle! 한국지방교육연구소 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 BK21 FOUR 세계시민교육 미래인재양성사업단

2023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지역, 국가와 고등교육 경쟁력 : 전망과 과제

- 논문경진대회 세션II -

2023. 12. 2.(토) 09:30~10:50

충남대학교 융합교육혁신센터



공동주최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공동주관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kle!

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

한국지방교육연구소

KOREA LOCAL EDUCATION INSTITUTE



FOUR

세계시민교육

BK21

미래인재양성사업단

프로그램

발표 및 내용			
일정	등록		
	자유주제 발표 패널		
1부	9:00 ~ 9:30		
		학문후속세대 패널	신진학자 패널
		《논문경진대회 세션 I》 201호	《신진학자 위원회 세션》 101호
	9:30 ~ 10:50	좌장: 서화정(대구대) [발표자] 1. 홍희경(이화여대 박사과정) 외 2. 구지연(이화여대 석사과정) 3. 김수지(이화여대 박사과정) 외 4. 박소영(이화여대 박사과정) 외	좌장: 정재영(이화여대) [발표자] 1. 황현철(제주대 박사과정) 외 2. 유진실(충남대 석사과정) 3. 김항란(제주대 박사과정) 외 4. 황정훈(서울대 박사과정)
10:50~11:00	휴식 시간		
2부		학문후속세대 패널	자유주제 발표 패널
		《논문경진대회 세션 III》 201호	《한국교육개발원 세션》 101호
		좌장: 서화정(대구대) [발표자] 1. 김인재(이화여대 박사과정) 외 2. 장수정(이화여대 박사과정) 외 3. 김유정(이화여대 박사과정) 외 4. 강영애(이화여대 박사과정) 외	좌장: 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발표자] 1. 조한성(청주대 교수) 2. 이정우(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종합토론: 최정윤(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1. 박관규(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2. 김규용(충남대 교수) 3. 심우정(한남대 교수) 4. 박상욱(공주대 교수)
	11:00 ~ 12:00		1. 주후정(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2. 이진권(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3. 고은애(조선대 박사과정) 외
12:00~13:30	점심시간 및 이사회		
		《자유주제 발표 세션 IV》 303호	좌장: 심현기(공주대)
		《자유주제 발표 세션 V》 303호	좌장: 차성현(전남대)
		《자유주제 발표 세션 VI》 303호	좌장: 심현기(공주대)

프로그램

일정	발표 및 내용	비고
3부	13:30 ~ 13:40 개회사: 김병주 (본 학회 회장, 영남대학교 교수) 환영사: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 축사: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 축사: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사회자: 구성우 (신한대)
	13:40 ~ 14:20 기획세션 1.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과제 발표자: 차성현 (전남대학교 교수) 토론자: 이정미 (충북대학교 교수)	좌장: 나민주 (충북대)
	14:20 ~ 15:00 기획세션 2.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과제 발표자: 이병식 (연세대학교 교수) 토론자: 김민희 (대구대학교 교수)	
	15:00 ~ 15:30 휴식시간	
	15:30 ~ 16:10 기획세션 3.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 발표자: 남수경 (강원대학교 교수) 토론자: 김훈호 (공주대학교 교수)	좌장: 나민주 (충북대)
	16:10 ~ 16:50 기획세션 4.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질관리 및 평가 방향 발표자: 서지영 (용인대학교 교수) 토론자: 백승주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역량진단센터 소장)	
	16:50 ~ 17:30 학술대회 발표에 대한 종합토론 좌장: 김도기 (본 학회 부회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사회자: 구성우 (신한대)
	17:30 ~ 18:00 (사) 한국교육행정학회 총회 - 시상식: 논문경진대회 시상식, 소석논문상 수상, 주삼환리더십상 수상, 공로패·송공패·학위취득기념패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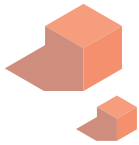
1부 자유주제 발표 [9:30 ~ 10:50]

학문후속세대 패널

논문경진대회세션 I <강의실 201호>

좌장: 서화정(대구대학교 교수)

구분	발표 제목	발표자
1	기업가 정신 교육 개선 방안 연구: 학생 소감문 분석을 중심으로	홍희경(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엄지윤(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2	청소년의 학업과 여가시간 활용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영향요인 탐색	구지연(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3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성인문해교육 정책, 연구, 언론 부문 핵심 키워드 및 토픽 분석	김수지(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송민희(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노한나(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4	일본의 '몬스터 페어런트(monster parent)'는 누구인가?	곽소영(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김가영(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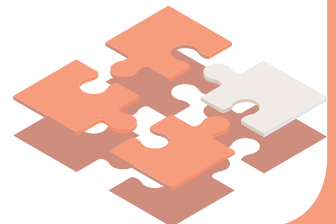


학문후속세대 패널

논문경진대회세션 II <강의실 202호>

좌장: 정제영(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구분	발표 제목	발표자
1	학령기 발달장애 양육 부모의 지방선거 공약 개발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황현철(제주대학교 박사과정) 오승천(제주대학교 박사과정) 홍지환(제주대학교 박사과정)
2	대학원 경험 및 연구 효능감과 연구 성과의 관계 탐색	유진설(충남대학교 석사과정)
3	NIE 지도사의 신문활용교육 지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김향란(제주대학교 박사과정) 김은영(제주대학교 박사과정)
4	초등학교 남교사의 여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충 탐색: 성역할 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황정훈(서울대학교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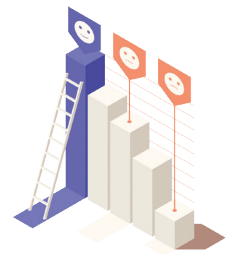


신진학자 패널

신진학자위원회 세션 <강의실 101호>

좌장: 김훈호(공주대학교 교수)

구분	발표 제목	발표자
1	대학평가정책 변화에 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 분석	이영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	교육과정 실행의 미시정치: 자율 초등학교 특성화교육과정 사례를 바탕으로	서시연(해밀초등학교 교사)
3	학부모 학교참여와 학생의 학업성취도 - 참여 격차와 그 영향을 중심으로 -	문희원(서울대학교 강사)
4	학문적 정체성 관점에서 본 학교장 리더십 국내 연구동향 분석	황재운(이화여자대학교 미래교육연구소 연구교수) 정제영(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자유주제 발표 패널

자유주제 발표 세션 I <강의실 302호>

좌장: 서재영(한남대학교 교수)

구분	발표 제목	발표자
1	한국 교육행정학 분야 질적 연구의 질 평가: 「교육행정학연구」를 중심으로	신현석(고려대학교 교수) 정수현(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윤혜원(서울상천초등학교 교사) 주영효(경상국립대학교 교수)
2	초등학교 교사의 예산 운용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꿈실 사업을 중심으로	이고은(서울교육대학교 박사과정) 김두섭(서울교육대학교 박사과정) 오범호(서울교육대학교 교수)
3	위계선형모형을 활용한 소규모 이공계 대학의 강의만족도 분석	배소현(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우교수) 김지현(성신여자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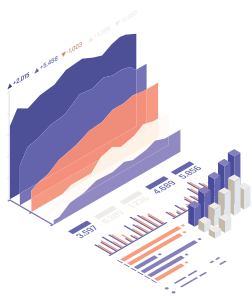


자유주제 발표 패널

자유주제 발표 세션 II <강의실 303호>

좌장: 이호준(청주교육대학교 교수)

구분	발표 제목	발표자
1	교육학 연구에서 무선헌당 실험연구(Randomized Controlled Trial) 활용 실태와 향후 과제	최예슬(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박소정(고려대학교 연구교수)
2	다층선형모형을 활용한 교수효능감 영향요인 탐색	유성동(한국교원대학교 박사과정) 이재덕(한국교원대학교 교수)
3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초등돌봄교실정책 분석	김영빈(한국교원대학교 박사과정) 이재덕(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부 자유주제 발표 [11:00 ~ 12:00]

학문후속세대 패널

논문경진대회 세션 III <강의실 201호>

좌장: 서화정(대구대학교 교수)

구분	발표 제목	발표자
1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개정 교육과정 언론보도 분석 : 2015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비교	김인재(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구태진(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2	다차원 교육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분야 교원 연수 정책 분석	장수정(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이선희(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3	다차원 교육정책 분석모형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 정책 분석	김유정(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이정민(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4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연구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영역을 중심으로	강영애(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김건아(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단체 및 기관 발표 패널

한국교육개발원 포럼 <강의실 101호>

좌장: 최정윤(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지역-대학 협력의 대전환기 고등·평생교육정책의 혁신과제

11:00~11:05	소개	KEDI연구 및 기관세션 소개 최정윤(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본부장)
11:05~12:35	발표	지자체와 지역대학 협력의 법제도적 토대와 그 개선방향 조한상(청주대학교 교수) 고등교육에서의 성인학습자 재교육 현황과 개선방안: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이정우(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토론 “지역-대학 협력의 대전환기 고등·평생교육정책의 주요 이슈, 개선 방향 설정”		
12:35~12:55	토론	[토론1] 박관규(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토론2] 김규용(충남대학교 교수)
		[토론3] 심우정(한남대학교 교수)
		[토론4] 박상옥(공주대학교 교수)
12:55~	종합 및 폐회	

단체 및 기관 발표 패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발표 세션 <강의실 202호>

좌장: 이슬아(한남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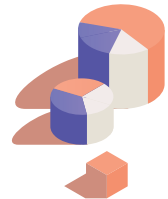
구분	발표 제목	발표자
1	교육지원청 조직문화 혁신 촉진요인 분석	이수경(한국지방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나민주(충북대학교 교수)
2	지방교육에 관한 정책, 행정, 연구 동향분석	왕문혜(한국지방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나민주(충북대학교 교수) 박수정(충남대학교 교수) 한은정(인천대학교 교수) 서재영(한남대학교 교수) 이슬아(한남대학교 교수) 오혜근(충북대학교 박사과정)
3	시도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및 성과 비교	유호준(한국지방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 나민주(충북대학교 교수)
4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교육정책 의제 동향 분석	김용준(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원) 나민주(충북대학교 교수)
5	학교지원조직 유형별 조직업무, 조직구성원, 조직성과 비교 분석	이다현(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원) 나민주(충북대학교 교수)

자유주제 발표 패널

자유주제 발표 세션Ⅲ <강의실 302호>

좌장: 차성현(전남대학교 교수)

구분	발표 제목	발표자
1	광역자치단체 대학지원 RISE 체계 수립의 쟁점과 과제	주희정(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2	대학재정지원에서의 재정적 중립성(Wealth Neutrality) 검토: 정부의 대학재정지원과 재학생의 소득수준 간 관계 분석	이진권(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3	타 지역 학생들은 왜 지방 사립 C대학을 선택했나	고은애(조선대학교 박사과정) 송경오(조선대학교 교수)



자유주제 발표 패널

자유주제 발표 세션Ⅳ <강의실 303호>

좌장: 심현기(공주대학교 교수)

구분	발표 제목	발표자
1	Cooper 외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의 유용성과 한계점 탐색	민윤경(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김두섭(개봉초등학교 교사)
2	교육행정학의 가추기반 이론발달 탐구: 관련 쟁점과 실천 방안	박선형(동국대학교 교수)
3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 방안 탐색	류명혜(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목 차

[1부] 논문경진대회 세션 II

학령기 발달장애 양육 부모의 지방선거 공약 개발 경험에 관한 현
상학적 연구1p

발표: 황현철(제주대학교 박사과정)
 오승천(제주대학교 박사과정)
 홍지환(제주대학교 박사과정)

대학원 경험 및 연구 효능감과 연구 성과의 관계 탐색33p

발표: 유진설(충남대학교 석사과정)

NIE 지도사의 신문활용교육 지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57p

발표: 김향란(제주대학교 박사과정)
 김은영(제주대학교 박사과정)

초등학교 남교사의 여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충 탐색: 성역할 사회
학습이론을 중심으로89p

발표: 황정훈(서울대학교 박사과정)

논문경진대회 세션II

학령기 발달장애 양육 부모의 지방선거 공약 개발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황 현 철(제주대학교 박사과정)

오 승 천(제주대학교 박사과정)

홍 지 환(제주대학교 박사과정)

I. 서론

학부모의 교육 활동 참여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학부모는 학생의 보호자이자 동시에 교육의 주체로 우리나라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학부모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1987. 10. 29. 제4차 전부개정, 시행 1988. 2. 25.)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제31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 학부모는 자녀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로 학생을 대변하기도 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자녀가 가진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에 있어 긍정적인 가치관의 확립과 자립 생활에 대한 요구를 지지해줄 수 있는 절대적인 지지자이자 지원자이기 때문이다(국립특수교육원, 2018). 또한,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를 교육당사자로 규정하며 교육당사자의 교육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나아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할 것(제19조 1항)” 과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당사자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것(제8조 2항)” 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교육당사자의 역량 강화를 기조로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특수교육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박찬우 외, 2019), 그 권리를 법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어야 한다.

교육에서 이렇게 학부모의 중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학부모의 위상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주요 결정이나 논의의 장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교육의 주권은 학부모에게 있지만, 현실은 학부모를 교육으로부터 구조적으로 소외시키고(김주후 외, 2007) 있기 때문이다. 특수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책의 형성단계에서 학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실행되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 또한 매우 낮은 편이다(박찬우 외, 2019).

일각에서는 ‘학부모가 교육을 망친다’라는 식의 부정적인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그런데 학부모를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학부모가 교육에 그만큼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이종각, 2014). 동일 선상에서 학부모라는 교육의 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함께 연대해 가르쳐 나가게 되면 교육 문제의 해결의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순형, 2003).

정책적으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 개선을 꾀하는 정책이 추진된 것은 제법 오래되었다(류방란 외, 2019). 5·31 교육개혁 이후 제도화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학교 운영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였다(교육개혁 위원회, 1996:87-88). 하지만 학부모의 참여 영역이 학부모회 활동 또는 학부모를 위한 교양 활동 등에 그치며 특수교육 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 및 교육정책의 참여 욕구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데 반해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인식하는 학부모의 요구는 단순한 민원으로 취급되어 개별 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학부모의 참여 실태 및 정책 방안 연구(류방란, 2015)에서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 구조를 3단계로 나눈 바 있는데 첫째 가정기반의 참여로 자녀의 학교 학습을 지원하는 영역, 둘째, 단위학교 기반 참여로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육의 참여하는 영역, 셋째, 정책 참여 영역으로 정책 모니터링, 공청회 참여, 정책 제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가정기반 참여와 두 번째 단위학교 기반 참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세 번째 정책 참여의 영역은 여전히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한적인 참여만 진행되고 있다. 특수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 등의 공식적인 활동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거나 정기 학부모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더 근본적인 정책 참여 영역에 대한 참여는 거의 없으며 이에 관한 연구도 거의 없었다.

이러한 중에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 유의미한 움직임이 있었다. 제주 지역의 학령기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교육감 후보들에게 특수교육 관련 공약을 기자회견으로 제안하였고, 당시 교육감 후보였던 두 후보가 이를 모두 수용한 것이다. 또한, 당선된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학부모가 제안한 공약이 포함되었고 일부 공약은 제도화되어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학부모의 경험에 대하여 구체적인 경험과 실천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 방법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학령기 발달장애 학부모 중 지방선거 공약 개발과 기자회견 및 제안에 앞장선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과 FIG를 통해 지방선거 공약 개발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고 학령기 발달장애 양육 학부모의 바람직한 학교 교육 참여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들이 직접 정책을 개발하여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었던 경험을 연구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령기 발달장애 양육 부모의 지방선거 공약 개발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학령기 발달장애 양육 부모의 지방선거 공약 개발 경험의 과정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학부모 학교 참여와 정책 관점의 변화

지금까지 학부모가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교육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믿고 맡기는 것이 학부모의 미덕으로 여겨졌다. 학부모의 교육열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치맛바람이라는 말은 1960-90년대 교육재정이 부족했던 시기, 학교에 직간접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했던 학부모, 특히 어머니들의 행태를 상징하는 말로 널리 통용되었다(이기봉, 2007: 108). 학교나 교사는 학교 운영, 교육 활동 면에서 학부모를 소외시켰고, 학부모는 학부모교육재정을 부담하거나 학교에서 필요할 때는 참여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도구적 관점으로

학부모를 보았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 제도나 정책의 변화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글로벌 정보화 시대에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적 지위의 이동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이종각, 2014). 학부모는 교사와 함께 학교에서 새로운 교육을 모색하고 실천하며 학교 교육 혁신의 주된 소임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서근원, 2004). 정책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학부모회 등의 공식 조직을 통한 학교 참여의 활성화도 추진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 정책모니터링 등의 역할도 부여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러한 학부모 참여의 관점 변화는 <표-1>의 표로 나타내면 더욱 뚜렷해진다.

<표-1> 학부모 참여의 관점 변화

구분	과거 “교육은 학교에서 교사가”	현재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교육”
인식	치맛바람, 존지, 복종적, 의존적	교육의 동반자, 학부모의 권리
관계	학부모 소외, 상호 불신, 도구적 관점	소통(비판), 주체적 참여, 상호 이해, 동반자적 관점
특징	동원	참여
지위	교육 보조자 재정 및 인력 지원자	교육의 주체 의사결정자
조직 기반	육성회, 기성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 출처: 류방란 외, 2015. pp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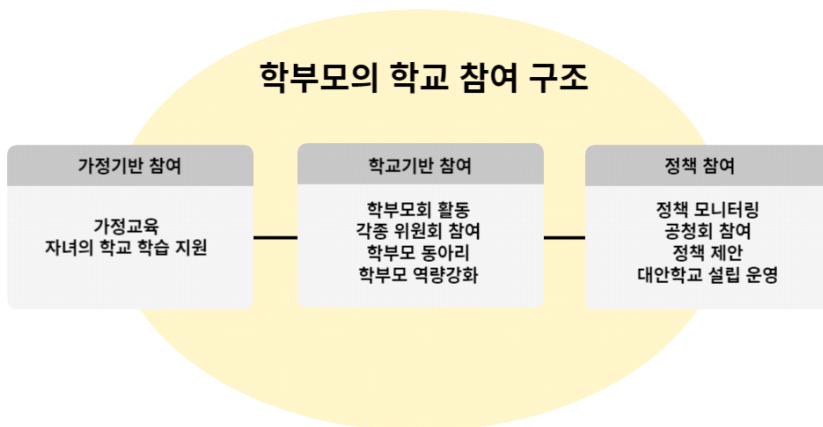
2. 학부모 학교 참여의 구조와 유형

가. 학부모 학교 참여의 구조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크게 셋으로 나뉜다. 가정교육, 학교 교육, 교육정책 등의 수준이 그것이다. 가정기반참여는 자녀의 학교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교육 수준의 활동이며, 단위학교 기반 참여는 학부모회, 위원회, 학부모 동아리와 같은 조직 차원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학부모 교육인 역량 강화 차원 그리고 학교 경영, 교육 활동, 지원 활동, 소통 등의 학교 참여 활동의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책 참여는 정책모니터링, 공청회 및 정책 제안, 대안학교 설립 운영 등의 형태이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구에서 가장 빈번히 인용되는 Epstein(2001)은 학부모의 참여에는 교수 활동 지원, 학급에서의 아동 지원, 학생의 수행을 돕는 활동, 학교 행사를 지원하는 활동, 가정에서 학습 활동에 개입하는 활동, 학교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Dimmock et al.(1996: 12-17)의 연구에서는 소통, 교수-학습 및 물리적 환경에 대한 영향력 행사, 공식적 조직(기구)을 통한 의사결정, 학교 선택 등을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포함했다. 이들은 다른 연구자들과 달리 단위학교 내의 참여가 아닌 정책 수준에서의 학교 선택도 학부모 참여에 포함한 것이다(류방란 외, 2015).

이상을 고려하여 학부모의 학교 참여의 구조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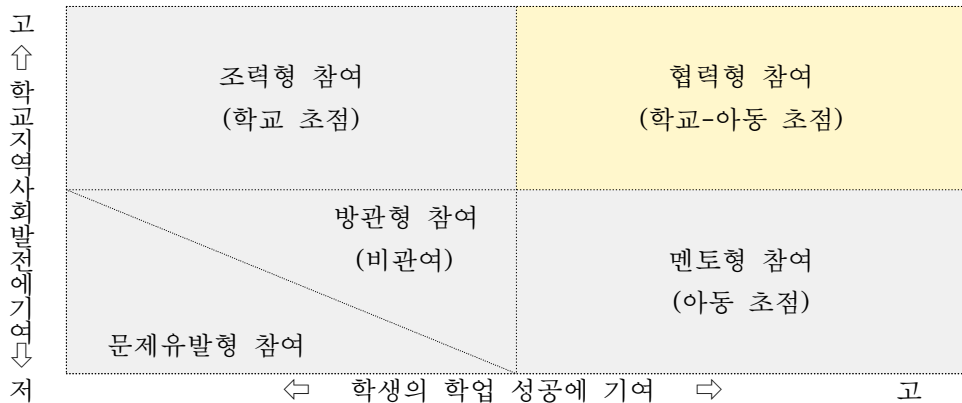


[그림-1] 학부모의 학교 참여 구조

※ 출처: 류방란 외, 2015, pp 30.

나. 학부모 참여 목적에 따른 유형

류방란 외(2015)는 학부모 학교 참여의 목적을 자녀 학업 성공에 대한 기여의 고저와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기여의 고저를 기준으로 아래 [그림-2]와 같이 유형화하였다. 학교와 학생(아동) 모두에 초점을 두는 협력형과 자녀의 학업 성공에 초점을 두는 멘토형, 그리고 자녀의 학업 성공보다 학교의 발전에 초점을 두는 조력형을 학교에 참가하는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외에 비참여형으로 방관형과 문제 유발형으로 나누었다.



[그림-2] 학부모 참여모형

※ 출처: 류방란 외, 2015, pp43.

3. 선행연구 분석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순형(2003)의 연구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부모 참여에 의한 학교 교육의 혁신을 연구하였다. 학부모 참여란 학교 운영의 제반 과정에 학부모들을 끌어들여 자녀교육에 대한 그들의 권리와 책임을 제대로 다하게 하는 교육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최근 선진국 학교들에서는 이러한 학부모 참여 운동을 통해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는 성공사례가 누적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손홍숙(2019)의 연구에 따르면 학부모 참여 정책은 학교와 학급 운영의 참여보다는 공교육의 질과 자녀의 인성교육의 책임자로서 역량을 키워야 할 통치대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주영효 외(2022)의 연구에서는 한국교육 종단조사 5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모든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교육적인 관심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하며, 특히 가정 배경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당국의 맞춤형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정책 입안과 집행이 긴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영효(2020)의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개인적 차원의 참여와 학부모회를 통한 학교 교육 참여,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 교육 참여인 3단계로 분류하여 유형화하였으며, 결국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 중심의 외적 접근법보다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 교

육 지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학부모들의 생활양식과 집단정신 변화를 유도하는 사회 문화적 접근법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종각(2014)의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질이 교육을 좌우한다는 화두에 주목하여 학부모학 연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학부모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하였는데, 국가, 교사, 학부모-학생 3교육주체 사이의 교육 권력의 균형이 필요하며, 교육적 역할의 재편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황성희(2022)는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이 서로의 불신에서 기인하며 그 불신은 상대에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와 인식 간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학부모와 교사 간 협력적 관계가 창출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회의적임을 나타내었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갈등의 관계로 묘사되고 있음(김대현, 2020; 김장철, 2017; 손준중, 2012; 신혜진, 2020, 오경화·한대동, 2009)을 보여준다. 손준중(2012)은 “학부모와 교사는 모두 아동이 잘되기를 바라지만, 잘 된다는 것에 관한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Waller(1932)의 말을 인용하여 학부모와 교사 관계의 특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현상학적 연구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발달장애 양육 부모의 지방선거 공약 개발 경험에 대해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자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인간 경험의 기술(Description)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귀납적 및 기술적인 연구 방법이다(김분한 외, 1999). 따라서 살아있는 경험을 지향하고 그 경험의 의미를 포함하여 구조, 즉 현상의 본질을 밝혀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이 필요한 이유는 학령기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가 제주지역의 중·고등학교 현황을 조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방선거에 교육정책 공약으로 제안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2022 6·1 지방선거에서 제주도 교육감 후보에 대한 공약 제안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다. 첫째, 2022년 6·1지방선거 특수교육 공약 제안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부모, 둘째, 제주지역에 거주하며 학령기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이다. 지방선거 공약 제안에 서명한 학부모 112명의 공동대표를 대상으로 유선 전화로 연구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이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5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기본 정보는 <표-2>에 제시하였다.

<표-2> 연구참여자 기본 정보

참여자	성별	연령	자녀 소속	교내외 활동	역할	
					특수교육 환경탐구시	공약 제안시
P-1	여	50대	A초등학교 특수학급 5학년	학교운영위원 A사회적협동조합대표	기획편집팀	공동대표
P-2	여	50대	A특수학교 초등과정 5학년	학교운영위원 B사회적협동조합대표	기획편집팀	공동대표
P-3	여	50대	A특수학교 중학교 1학년	장애이해교육강사 A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인터뷰팀	공약작성
P-4	여	50대	B초등학교 특수학급 4학년	J비영리민간단체 부대표	자료조사팀	공약작성
P-5	여	60대	A특수학교 전공과 1학년	장애이해교육강사 S성인기자조모임대표	인터뷰대상	동참

* 연령 및 소속은 면담 기준일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음.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학령기 발달장애 양육 부모의 지방선거 공약 개발과 제안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심층면담과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심층 면

답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활동의 동기와 과정에 관한 생각을 파악할 수 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연구참여자가 상호작용하며 연구 목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 과정에서 심층적인 이유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유용하다.

연구 절차는 질적 연구의 일반 절차를 참고하여 6단계로 설정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고 연구 목적에 맞는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는 단계, 둘째, 연구에 사용할 질문지를 개발 및 연구참여자에게 안내하는 단계, 셋째, 인터뷰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넷째, 인터뷰의 내용을 전사하고 검토하는 단계, 다섯째, 인터뷰의 내용을 코딩하고 분석하여 주제를 도출하는 단계, 여섯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 윤리적 고려사항을 점검하는 단계이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가.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 학부모의 지방선거 공약 개발과 제안에 대한 학부모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의 면담 기법 중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 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ed group interview)를 병행하였다. 제주도 중고등학교 특수교육환경 탐구 활동인 제주생활탐구에 대한 참여 배경에 대한 부분은 개별 심층면담으로 수집하였고, 제주생활탐구 이후 발간된 보고서를 통한 정책간담회와 기자회견 및 정책 제안활동의 과정과 태도에 대해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수집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주제와 관련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여 연구자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면서 단기간에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많은 양의 집중적인 대화를 유도해 내는 방법이다(홍지영, 2014).

포커스 그룹 구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약 최소 4명~최대 12명 정도로 구성하는데, 12명 이상의 큰 그룹은 대화 중에 참가자들에게 골고루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지기 어려우므로 적절치 않고, 4명 이하의 작은 그룹은 참가자들에게 아이디어를 내놓을 기회는 많지만, 참가자 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약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단점이 있으므로 4명에서 10명 정도로 구성한다(김영천, 2016).

나. 면담 질문지 개발

인터뷰에 사용할 질문은 개방형 문장으로 반구조화 된 면담 형식으로 제시되었다. 질문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동연구자(박사과정) 2명과 교차 점검하였고, 교차 점검을 마친 질문지는 교육학과 교수 1인에게 검토를 받았다. 질문은 면담 1주일 전까지 연구 대상자의 이메일로 전달되었고 이메일 발송 후 유선 전화 통화를 통해 수신을 확인하였다.

다. 면담실 시

면담은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일 저녁으로 선정하였으며 면담 전 연구 윤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안내 및 동의, 연구 참여와 비밀보장 및 언제든지 원하는 경우 연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

1차 면담은 2023년 4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되었다. 개별 심층 면담으로 총 352분간 진행되었다. 질적 면담의 특성을 살려 연구자가 면담을 이끌지 않았으며 질문지에 기재된 질문의 순서와 상관없이 연구참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층 면담의 내용은 모두 녹음되었고 면담 과정에서 인상 깊고 특이한 내용, 생생하거나 흥미로운 내용은 연구 노트에 기록하였다.

2차 면담은 2023년 8월 2일 FGI로 총 96분간 진행되었다. 면담의 전 과정은 녹음되었으며 1차 면담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충할 내용과 추가된 질문을 제시하였고 공통된 경험에 대해 상호 간에 확인을 받도록 하며, 활발하고 왕성한 대화가 이어지도록 하였다. 공동연구자는 코디네이터의 역할로 면담에 동참하였다.

라. 연구의 진실성

현상학적 연구는 현상에 대한 조작적 기술(무엇), 현상에 대한 구조적 기술(어떻게)와 같이 현상에 대한 본질을 살펴보는 연구이다. 따라서 판단중지(epoche)라는 괄호치기가 중요하다. 현상학적 경험 연구에서의 연구 타당성은 연구자가 얼마나 현상에 충실할 수 있는지, 즉 현상학적 판단중지와 환

원을 통해 사태 적합성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현상을 현상학적으로 기술하고 있는지에 의해 평가된다고 하였다(강운진 외, 2021).

연구자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18년간 재직하며 제주에 9년째 거주하고 있다. 많은 학부모를 경험하며 학부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특수교육 현장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를 조직·운영하며 학부모와 관련된 지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평소 연구자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입장이 연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판단중지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의 방법에서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려우면 멈추고 연구참여자의 의견을 들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분석에 동의하는지, 중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는지, 의도가 잘못되어 수정하고 싶은 곳은 없는지 확인하였으며 연구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얻었다.

마. 자료 분석 및 주제 도출

인터뷰를 마친 뒤 전사 및 검토 작업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N사의 클로O 노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녹음하였으며 녹음된 음성파일은 문서 파일(.txt)로 변환하였다. 변환된 전사본은 연구자가 전사본과 음성파일을 비교하며 잘못 변환된 단어를 수정하였고, 2차로 공동연구자와 교차로 검토하여 오타자, 비문을 교정하였다.

전사된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Colaizzi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Colaizzi(1978)는 분석 과정에서 현상의 충실성과 이를 위한 현상학적 기술의 방법을 강조하여 무엇보다 적절한 자료 출처를 적절한 자료수집 방법과 일치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김분한 외, 1999). Colaizzi의 7단계 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3>과 같다.

<표-3> Colaizzi의 분석 방법에 따른 자료 분석 과정

단계	자료 분석 설명
1. 데이터 파악 단계	·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의 면담 후 전사에 대한 느낌과 이해를 얻기 위해 전사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었다. · 연구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철저히 이해하고, 연구참여자의 경험적 맥락을 파악하였다.

단계	자료 분석 설명
2. 의미 있는 진술도출 단계	·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사 내용을 문장이나 구 단위로 읽고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였다. · 의미 있는 진술로 선택된 문장과 구의 중복된 표현을 배제했다.
3. 의미 구성단계	· 추출된 각 진술들의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고 드러나도록 연구자가 통찰력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재진술하여 의미를 구성하였다. · 연구자는 본래의 연구참여자들이 진술한 내용과 맥락적으로 일치하는지, 범주화 내용이 모순되거나 오류가 없는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반성하며 고찰하며, 동료 연구자와 의견을 나누었다.
4. 주제군 범주화 단계	· 연구자는 구성된 의미 단위들을 주제, 주제군, 범주화로 조직하였다. · 범주화된 주제들이 원자료와 맥락적으로 일치하는지, 범주화 내용이 모순되거나 오류가 없는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반성하며 고찰하며, 동료 연구자와 의견을 나누었다.
5. 총체적 기술단계	· 연구자는 범주화된 결과를 연구주제에 따라 통합적으로 기술하였다. · 연구자는 각 통합된 범주에 대해 기술적인 정의를 제공할 때, 자료에 나타난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6. 본질적 구조 기술단계	·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전체적인 의미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며 선행 단계를 통해 확인된 경험의 공통적인 요소들을 종합하여 본질에서 기술하였다.
7. 최종 타당과 단계	· 연구자는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연구참여자에게 분석된 내용과 그 과정을 보여주고 면담에서 연구참여자가 의도한 의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 출처: Colaizzi, 1978, pp.59-62.

코딩 과정에서는 아틀라스ti 23을 사용하였다. 아틀라스ti는 질적연구를 보조하기 위한 정성적 데이터 분석 QDA(Qualitative Data Analysis) 소프트웨어이다. 아틀라스23를 통해 전사본 6개 파일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문단을 구분하였다. 이후 해당 문단을 대표하는 간결하고 직관적인 용어로 코드를 생성하여 삽입하였으며 범주화하였다.

바. 신뢰도 및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 간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자 간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자 간 신뢰도는 점검·비교, 합의 도출, 추가 확인 과정을 거쳤다. 첫째, 영역별로 분석한 자료가 본래의 의미를 잘 반영하는지

점검한 뒤 서로 비교하였다(이경숙, 박진아, 2016). 둘째,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공동연구자가 함께 상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전사된 내용을 연구 대상자에게 공유하여 의미를 확인하였다.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삼각측정으로 심층면담으로 얻어진 자료와 면담 시 작성된 연구 노트,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베이비뉴스, 2022. 5. 31. ; 김덕화 외, 2021)를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둘째, FGI를 추가하여 동일한 경험에 대한 상호 간의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사. 윤리적 고려사항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준수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이 학술 연구임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둘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안내하였다. 셋째, 연구를 위한 수집 자료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연구 종료 후 모두 폐기됨을 안내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항들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IV.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의 면담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Colazzi의 7단계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지방선거 공약 개발 경험의 배경’, ‘지방선거 공약 개발 경험의 과정’, ‘지방선거 공약 개발 후 변화’의 3개의 상위범주와 8개의 하위범주, 23개의 개념이 도출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4>과 같다.

<표-4> 영역별 주제 분석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1. 지방선거 공약 개발 경험의 배경	가. 멀고 어렵기만 한 특수교육정책	· 특수교육 정책 여전히 잘 모르겠음 ·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인지 와닿지 않음 · 정책 수립과정과 집행과정의 차이가 큼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2. 지방선거 공약 개발 경험의 과정	나. 특수교사의 만족도와 정책의 만족도를 동일시	· 특수교사의 태도에 따라 교육 성과가 천차만별 · 정책은 특수교사로부터 전달받는 것 · 특수교사의 말을 듣고 진위파악이 곤란함 · 학부모 연대의 필요성을 느낌
	가. 우리가 직접 알아보자	· 기존 학부모 활동에 대한 아쉬움 · 내 아이를 위해 직접 탐구하기로 함
	나. 가로막는 장벽	· 코로나-19로 인해 탐구가 제한됨 · 교육행정기관과 학부모의 시각 차이를 확인함 · 선배 학부모들과의 마찰
	다. 신의 뜻대로 흘러가는 과정	· 제주생활탐구라는 기회를 만남 · 제주지역 특수교육 환경 탐구 결과 제주지역의 학급 과밀을 확인함 · 보고서가 가지는 힘 · 그만하고 싶었지만 계속 진행함 · 우연히 지방선거 기간과 겹침 · 선거 공약제안으로 확대됨
	가. 교육정책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 내 자녀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로 시작함 · 제주도 특수교육 전체를 생각하게 됨 · 교육정책 형성에 대한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
3. 지방선거 공약 개발 경험 후 변화	나. 교육정책을 대하는 인식의 변화	· 제안된 공약이 정책화되어 추진되는 과정에 대한 보람을 느낌 · 교육정책에 관심이 생겼으며 제안된 공약이 잘 진행되는지 관찰하겠음

1. 지방선거 공약 개발 경험 배경

지방선거 공약 개발 경험의 배경은 ‘멀고 어렵기만한 특수교육정책’과 ‘특수교사의 만족도와 정책의 만족도를 동일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멀고 어렵기만한 특수교육정책

연구참여자들은 특수교육정책에 대해 대체로 불만족하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수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10점 만점에 6점이요. 왜냐하면 잘 모르겠어요. 노력하고 있는지(P-2).

정책적으로 우리 아이가 이 교육에서 이런 시스템하에 정책이 잘 내려와서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특수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P-4).

그들은 하지 않으니까 부모가 계속 건드려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전교생이 줄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줄넘기도 고민해야죠. 코딩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코딩도 생각해야죠. 학교가 먼저, 정책이 먼저 그 아이들을 위해 고려하고 내려오는 것은 저는 보지 못했어요(P-1).

특수교육정책에 대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인지 와닿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교육정책이 문서화되어 교육현장에 배부되지만 어려운 정책용어와 많은 양으로 되어 있어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이란게 어떻게 정해졌다 뭐가 어떻게 진행된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우리한테는 알려주지도 않고요. 뭐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시간에 거기 갈 사람이 많지 않으니 알 길이 없죠. 게다가 좀 찾아 읽어보려고 하면 너무 용어가 어렵고 딱딱해요. 그런데 양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몇백장 되니까 꼭 보험사 약관처럼, 보라는 건지 보지 말라는건지 잘 모르겠어요(P-3).

실제로 학부모가 많이 알고 참여하면 머리 아프다는 것이 보통이죠. 그리고 전문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P-5).

또한, 정책의 수립과정과 집행과정의 차이가 크다는 인식이 나타났는데, 이는 매체를 통해 접하는 구호는 매우 따뜻함에 비해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영역은 부족하다는 차이로 이해할 수 있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세워진다고 해도 그게 우리에게 오지를 않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TV나 블로그를 통해 나오는 구호를 보면 딱딱하게 채기겠다, 한명도 소외하지 않겠다 하는데 실제로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거든요(P-5).

현장에서 아이들이 잘 버티는 건 결코 정책이 잘 집행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아이의 힘이고, 같이 다니는 친구의 힘이고 그리고 이 부모들의 노력이에요(P-1).

나. 특수교사의 만족도와 정책의 만족도를 동일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특수교사의 태도에 따라 교육의 성과가 천지 차이라고 하였다. 특정 학년에서는 만족도가 높거나 혹은 특정 학년에서 만족도가 낮은 반응이 존재하였는데 이는 해당 학년의 담임교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른 학교와 비교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때 만족도가 높았고, 반대로 소통이 부족하거나 정보의 제공량이 부족할 때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생님에 따라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육청에서 지향하고 정책을 세워서 지침을 내려보내도 그걸 하고 안하고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까지 지원을 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너무 틀려요(P-2).

저같은 경우 S초등학교에서 3학년때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분이 경기도에서 오신 분인데 딱 부임하자마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를 보자마자 이걸 잘하는구나 딱 알아주시고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1등을 했거든요? 전국대회가서 3등도하고요.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4학년때는 1등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새로오신 선생님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쪽에(P-1).

선생님에 따라 다르다고 느꼈던 게 지금까지는 살짝 반성했던게 보통은 제출할 때 오늘까지 기한인데 왜 안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선생님은 탁 보내고 그런 피드백을 안하시는거예요. 놓치든 아니든 그냥 내버리는 것예요. 그때부터 엄마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단련하게 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지침이 쪽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엄마들을 계속 만나니까 다른 학교 엄마들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학교는 코로나 상황이고 온라인 학습이지만 두 시간정도 학교에 오게해서 봐주시는

데 안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옆반은 해주는데 우리 선생님은 안하니까 너무 어이없어서 항의하니까 그제서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P-3).

정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특수교사로부터 전달받는 것으로 특수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발달장애 자녀의 장애 특성상 학교에서의 일이나 내용을 전달할 수 없다는 점이 연구참여자들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었다.

우리는 뭐 담임선생님 외에는 정보를 받을 곳이 없으니까요. 담임 선생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거요 아니다 하면 아닌건거예요(P-3).

예전에는 더 심했어요. 내가 우리 OO이 키울때는요. 학교에서 통신문이라도 와야 오는거예요 아이가 아무것도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특수교사는 더 많이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P-5).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매년 좋은 특수교사를 만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좋은 선생님이 배정되는 것을 학부모 사이에 ‘복권 당첨’에 비유되기도 하였다.

오죽하면 뽑기라고 하겠어요. 좋은 선생님 만나는걸요.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인걸요(P-5).

선생님들한테도 부모들에 대한 정보가 있겠지만 부모들에게도 선생님에 대한 정보 많거든요. 어떤 선생님이 좋다. 어떤 선생님이 잘하신다더라. 그래서 그 선생님이 계신 학교로 전학 가는 엄마들도 있다니까요. 혹시나 담임이 될까(P-4).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교사에 따라 다른 정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부모 연대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다음 카페와 밴드를 통해 정보 공유의 방법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래서 제가 A모임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특수학교 부모님들의 커뮤니티, 다른 곳에서는 해주는데 우리는 안해주는 거 없도록 모두 정보를 공유해서 똑같이 누리자 이런 취지로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뭐 받으면 커

뮤니티에 막 올려요. 오늘 학교에서 이런 것을 받았습시다.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이렇게요(P-1).

솔직히 학교보다는 다른 부모님들의 말을 더 믿는 편이에요. 같은 입장이라 그런지 솔직하게 알려주더라고요. 또 먼저 경험하기도 했고요. 학교 선생님에게 뭐 해주지 않아요? 이런거 어디서 들었는데요? 이렇게 편하게 물어보지는 못하는거 같아요(P-4).

연구참여자들은 멀고 어렵기만 한 특수교육정책과 해마다 달라지는 특수교사에 따라 만족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다른 부모들과의 연대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발전되었는데 이 자체 모임과 정보 공유의 경험이 제주지역의 특수교육 환경탐구를 시작할 수 있게 한 배경요인이라고 보여진다.

2. 지방선거 공약 개발 경험의 과정

지방선거 공약 개발 경험의 과정은 ‘우리가 직접 알아보자’와 ‘심각한 특수교육 현실 인식’, ‘가로막는 장벽’, ‘신의 뜻대로 흘러간 과정’으로 구분되었다.

가. 우리가 직접 알아보자.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이었다. 하지만 기존의 학부모 참여 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뭐 주는게 많고요. 와서 배우고 만들고 가져가는 것, 그러니까 학부모 힐링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학교의 교육과정이고 제주도의 교육정책인데 정작 그런 곳에는 참여하려고 해도 기회 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P-3).

좋기는 좋아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로서 만나면 의지도 되고 공감도 되고 그래서 자꾸 모임을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학교 이야기, 아이 이야기, 치료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게 전달이 안되니까(P-2).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들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진학할 당시 교육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제기한 민원도 2년이 걸려 해결되는 경험을 하였다. 때문에 내 아이를 위해서는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3년 전부터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때는 순수하게 제주도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연구를 해보자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걸 정책적으로 써보자 뭐 이런건 생각도 못했고요.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우리 애 중학교 가기 전에 제주도 특수교육 현실에 대해 직접 알아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P-2).

지금은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다가 내 아이의 문제니까 직접 알아보자가 된거예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갈 때는 늦으니까 3년 전부터 미리 움직여야겠다고 해서 초등학교 3학년 또는 4학년 엄마들이 중심이 되었어요(P-3).

이때가 가장 고민이 심할 때거든요. 학교에서 작은 사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거 어떻게 초등학교는 졸업하겠지만 중학교는 어떻게 해야하나(P-4).

제가 밴드에 올린거예요. 우리 이런거 할건데 같이할 사람 하고요. 그랬더니 댓글이 꽤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아~ 다른 사람도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구나 (P-1)

나. 가로막는 장벽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강화되면서 우리가 직접 알아보자는 모임은 정체되는 시기를 맞이하였다. 이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사적 모임은 4명 이하로 제한되는 시기였으며, 당시 연구참여자들 걱정은 교육정책보다는 내 자녀의 감염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연초에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우리 이런거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할 사람 하니까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4명 이상은 못만나게 되니까 계속 그렇게 밀리고 밀려서 8월이 되었죠(P-3).

무엇보다 우리 아이가 코로나에 감염될까 그게 가장 두려웠죠. 그래서 막 사람을 만나는 것도 겁나고 그냥 집에만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P-3).

당장 우리 아이가 확진되면 어찌지? 이런 불안이 가장 컸어요. 왜냐하면 혼자서는 못있는데 격리라도 덜컥 들어가버리면? 나도 따라 들어가야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당장 불안하니까 집 밖으로는 못나가겠다라고요(P-4).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교육행정기관과의 시각 차이를 확인하게 되었다. 과밀이라는 현상을 바라보는 두 입장의 차이가 드러났다. 연구참여자들이 느끼는 학교의 현장은 매우 과밀한 상황이었었는데, 교육행정기관에서 내놓는 정보는 그렇게 과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육행정기관에서는 현재 심각한 수준이 아님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교육행정기관의 정보는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하지 자연스레 연구참여자들이 정보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심각한데, 생각보다 과밀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엄청 과밀일 줄 알고 살펴봤는데 실상은 평균 2~3명 과밀 이 정도였거든요. 우리는 완전 물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P-4).

아직 기억이 나는게 그때 담당 ○○○이 조금 이렇게 민망해하면서 한 명 또는 두 명정도 (과밀)는 그냥 봐줘야죠 이런 말투로 말했는데 이건 마사지를 미리 해 놓고(P-3)

평균의 함정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굉장히 과밀인 학교도 있었는데 그런 학교는 많지는 않았고 그걸 전체 평균으로 나눠버리니까 생각보다 과밀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라고 나온거죠. 그래서 그 때 언론에서 이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이건 진짜 평균의 함정이었어요(P-1).

한편, 자녀의 생애 주기에 따라 의견의 차이도 있었는데, 성인기의 자녀를 둔 학부모와 연구참여자들 간에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차이도 발생하였다. 성인기 자녀를 둔 학부모는 기존 그룹으로 제주의 특수교육 담론을 이끌었던 사람들인 반면에, 연구참여자들은 신규 그룹으로 기성 세력과 신규 세력의 갈등 양상으로 나타났다.

제가 그사이 하나 짚고 싶은 건 우리가 토론회를 했잖아요. 그날 그래도 선생님도 계셨고 제주도 특수교육에 관심있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오셨어요. 그 현장에요. 그리고 그때 ○○○의원도 오셨고 뒤늦게, 저희가 열변을 토하면서 주제별로 토론했는데, 그때 거기에 앉아계셨던 분들이 다 우리를 헷병아리,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초등학교 3학년, 3학년 키운 사람들이고

제주도 특수교육의 경험도 그래봤자 3년~5년 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은 막 20년, 30년 되시니까요. 그분들이 말미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거 우리가 30년 전부터 했던 이야긴데 안된다(P-1).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로 엄마들 힘 빼고 있냐고(P-1).

자기들은 자녀를 다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학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거예요. 오히려 평생교육이 더 중요하다(P-3).

솔직히 지금 환경 좋아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보조인력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 학생 5명 6명에 보조인력 1명이상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대이 정도 되는거예요. 양손에 잡으면 될만큼 그거 다 선배들이 요구했던거 우리는 누리지 못했던거 누리는데요(p-5).

이러한 선배 학부모들과의 마찰은 연구참여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며 탐구 활동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다. 신의 뜻대로 흘러간 과정

그러던 중 연구참여자들은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서 진행되는 제주생활탐구¹⁾를 만나게 되었고, 장벽에 막혀있던 탐구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포기하지 않는 부모, 끝까지 무엇이라도 잡고자 했던 마음이 제주생활탐구에 도전하게 만들었다. 주제가제주생활탐구의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의 지원을 받게 되고 탄력을 받으며 제주도 특수교육 환경 탐구가 본격화되었다.

제주생활탐구를 만나게 된거죠. 거기서 생활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진짜 문제인지 아닌지 탐구해보도록 도와주겠다니까 딱 제주도 특수교육 환경탐구가 생각이 난거죠.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 직접 탐구해보자(P-2).

1) 제주시소통협력센터에서 실시하는 시민 실험 프로젝트로 3개월의 시간을 통해 탐구활동을 지원한다. 탐구활동은 2021.8.1.~10.31.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7명의 연구자가 4개학교 8명의 교사, 6명의 학부모, 장학사 1명, 도의원 1명을 인터뷰하여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탐구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제주도의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교육청 장학사님을 만나러 다녔죠. 이야기도 듣고 실제로 환경도 눈으로 보고 느끼고(P-3).

3개월간의 제주생활탐구의 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제주지역의 특수교육 현장을 직접 탐구하며 과밀의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교육행정기관에서 제공했던 자료와 설명과는 다른 현상이었다. 이러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직접 탐구와 참여를 확대하게 하였다.

특수학교의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학교의 경우 정원이 가득 찬 학교에 애들이 계속 들어오니깐 자꾸 교실을 늘릴 수 밖에 없는데 새로운 교실을 만드는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공간을 교실로 바꾸는 거였어요. 그러니 무슨 실, 무슨 실 이렇게 하나도 없고 오로지 교실만, 애들이 교실에서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상황인거예요. 무슨 실, 무슨 실도 사실 모두 필요한거잖아요(P-1).

당장 아이들이 갈데가 없는거죠. 학교를 짓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모듈러 교실이 제주에 도입된거예요. 운동장에 컨테이너처럼 만들 교실에 애들이 가득차있어요(P-3).

제주생활탐구를 마치면서 연구참여자들의 탐구활동을 정리한 연구보고서 「2021 제주도 중·고등학교 교육환경 탐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총90페이지의 연구보고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파급효과를 가져왔고, 지방선거 공약 개발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연구집을 최초로 냈는데, 그 연구집이 나오니까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슈로 다뤄주더라고요. JOOO에서, 뉴스에 나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도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더라고요(P-1).

아! 이게 데이터가 가지는 힘이구나.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거 말고 너도 어떻게 못하고 나도 어떻게 못하는 객관적인 데이터, 팩트가 힘이 있구나를 느끼게 되었죠(P-2).

장기간 진행되는 탐구의 과정 동안에 이제 그만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른 이슈로 인해 활동이 어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를 신의 뜻대로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모든

것을 본인들이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외부의 요인과 내부의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자연스럽게 진행된 과정으로 분석되었다.

그때 우리 사실은 약간 힘들다 이제 그만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뭔가를 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P-3).

그러니까 그 방에 불이 꺼져갈 때쯤 되면 누가 꺼지지 말라고 계속 기쁨을 부어준 것 같아(P-4).

그러니까 모든게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닌데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움직인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계속 그렇게 끌고 간 것 같아요. 신의 뜻대로 흘러가서(P-1).

우연히 지방선거 기간과 겹치게 되고 교육정책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관점과 대안을 발전시키는 정책선도가 역할의 연구 참여자에 의해 정치화가 되었다.

때마침 지방선거가 났고 아, 이걸 이때 알리는게 가장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걸 지금 꼭 해야겠다 강력하고 주장하고 힘을 내자고 했죠. 지금이 이 문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다라는 확신이 들었죠(P-2).

기자회견도 그래요. 원래 우리는 기자회견을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각 캠프에 공약 제안서만 보낼 생각이었는데 그때 MBC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취재하러 가도 되겠냐고. 방송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림이 나오겠냐가 가장 중요했겠죠. ○○대표가 방송에서 온다고 하니까 피켓 만들고 현수막 달고 이렇게 된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언론을 타면서 캠프에서도 확 관심을 가지게 됐죠(P-3).

그게 참 신기하죠. 우리는 지방선거는 사실 생각 못했거든요. 공약 제안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정보 주고받고 끝났을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이게 오히려 지연되어서 더 잘됐다 이런거죠(P-4).

그러니까 연구보고서가 딱 나오고 토론회 할 때 그해에 지방선거가 있는게 기가막힌 타이밍인거지(P-5).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지금까지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선거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 제안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두 명의 교육감 후보 캠프에서 공약을 모두 수용하였다. 또한 당선된 교육감은 공약을 정책화하였으며 현재 일부 공약에 대해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지방선거 공약 개발 경험 후 변화

지방선거 공약 개발 경험 후 변화는 ‘교육정책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와 ‘교육정책을 대하는 인식의 변화’로 구분되었다.

가. 교육정책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살펴보았듯이 연구참여자들은 지방선거 공약 개발 경험의 배경은 특수교육정책의 불만족과 특수교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 알아보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는 내 자녀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의 참여 태도라고 분석된다.

처음에 시작은 우리 아이가 곧 중학교 갈텐데 중학교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서 탐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면 할수록 다르게 보이는거예요. 딱 초등학교, 딱 중학교 이렇게 잘라서 말할 수 있는게 아니라 제주의 특수교육을 하나로 보게되는거 있잖아요(P-3).

제주생활탐구를 통해 심각한 현실을 확인하면서 제주도 특수교육 현실의 어려움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언론과 교육행정기관의 정책 형성 파트너로서 대표성을 가지게 되면서 제주도 특수교육 전체를 고려하게 되는 태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자꾸 공식적으로 도의회나 교육청같은데서 말을 하니깐 자꾸 초등학교·중학교만 이야기할 수 없더라고요. 이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디 하나만 풀어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P-4).

물론 제주도 특수교육 여건이 좋아진다는 건 그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당연히 혜택이 있는거겠죠. 그렇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당장 우리 아이들의 것만 내세울 수는 없었어요(P-3).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모르면 몰랐지 어떻게 알면서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있는 초등학교 특수학급도 물론 문제가 아주 많지만 그래도 여기는 건달만 하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교는 과밀이 심각해요. 지금 그런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더 좋게 해달라 이런 말은 못하겠더라고요.(P-1)

교육정책은 교육의 3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교육정책 형성에 대한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저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많은 부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0인 토론 그런 거 같은 거. 제주도의 교육정책과 아이들을 위한 계획 수립에 부모들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뭐 전부를 들어줄 수 없는데 당연하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야기를 좀 들어라(P-4).

저도 교육청에서 오라고 하면 갈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달라고하면 해야죠. 그리고 계획이 세워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수립되고 잘 진행되는지 학교에서는 잘되는지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싶어요. 사실 학교가 개방적인 곳은 아니잖아요. 막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잘 진행되는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 궁금한 마음이죠(P-1).

나. 교육정책을 대하는 인식의 변화

연구참여자들은 지방선거 공약 개발의 과정을 거치며 교육감 후보들에게 제안했던 공약이 당선 교육감에 의해 정책화되고 추진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매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얼마 전 동부 특수학교 설치에 대한 공청회 있었잖아요. 제주도 동부권에 특수학교를 설치한다는 거 그거 우리가 제안했던 특수교육 과밀해소의 방법이었던데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괜히 으쓱해지는 뭔가가 있어요. (P-1)

정말 특수학교가 하나 더 생긴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지나다닐 때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저거 엄마가 만든 거다. (P-2)

기분이 좋죠. 그때 우리가 제안했던 공약이 총 6개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이 과밀해소, 그리고 전문 인력 확보거든요. 특수학교 설립과 그리고 제주대학교에 특수교육과를 설치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P-3)

어제도 ○○님 만나고 왔는데, 제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신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더라고요. 아~ 곧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보았다고. (P-4)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집행과정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이 있었으며 현실이 개선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아직까지 논의단계일 뿐이니까. 또 언제 엮어질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계속해서 관심가지고 필요성을 주장해야겠죠. (P-1)

연구참여자들은 정책의 형성뿐만 아니라 집행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다. 개발하여 제안하였던 공약이 정책화되어 추진하는 과정이 시작되었음에도 완전한 신뢰를 나타내지는 못했는데, 이러한 불신을 종식하고 진정한 의미의 학교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의 집행과정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기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의 지방선거 공약 개발 경험을 통해 바람직한 학부모의 교육 활동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5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하였으며, Colaizzi의 분석 방법을 통해 3가지 영역 ‘지방선거 공약 개발 경험의 배경’, ‘지방선거 공약 개발 경험의 과정’, ‘지방선거 공약 개발 경험 후 변화’로 분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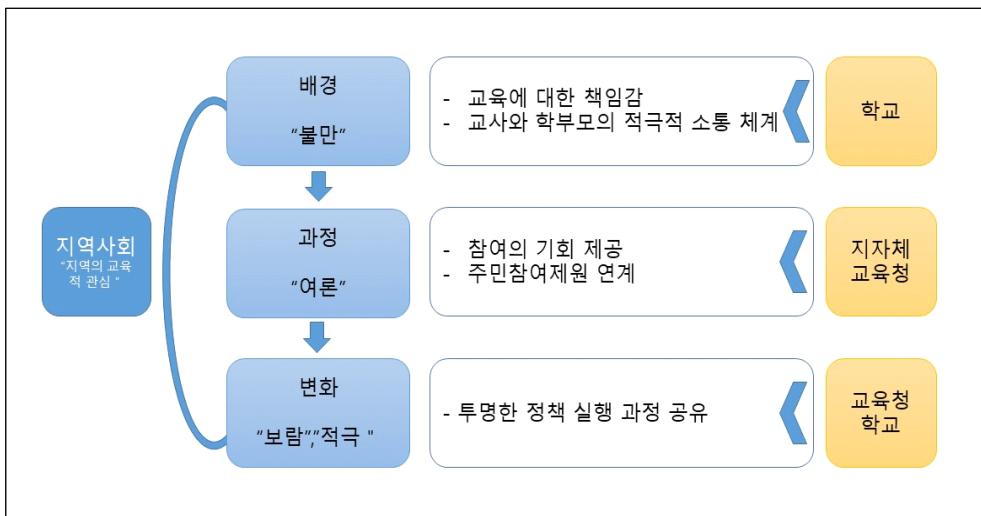
우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령기 발달장애 양육 학부모의 바람직한 학교 교육 참여 방향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 인식되고 바람직한 교육을 위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교육정책을 학부모 친화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는 마땅히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참여를 보장

받아야 하고, 또 수립된 교육정책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교육정책 수립에 일부 대표성을 가진 학부모를 대상으로 소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고, 수립된 교육정책은 학부모에게까지 파급되지 못하고 있었다. 교육정책의 성공적인 집행과 성과를 위해서라도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행정기관에서 학부모를 정책 수립의 주체로 인식하고 참여의 구조와 방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집행하고 목표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이해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는 학부모 참여의 긍정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교육적 관심과 함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영 효(2022)의 연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확대하고 수립된 정책에 대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및 학부모 친화적인 방법이 요구된다. 이는 실제적 특수교육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향식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만이 아닌 민주적 교육제도 마련을 통해 교육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박찬우 외(2019)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둘째, 교사 차원이다.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교사에 따라 만족도가 크게 차이 남을 알 수 있었다.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교사의 만족도 차이는 교사의 질적인 차이라고 하기보다는 소통하는 방식의 차이의 문제라고 인식된다. 왜냐하면, 교사 만족도의 차이가 곧 제공하는 정보량의 차이와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오란화·임선아(2020)의 연구에서 밝혔듯, 학부모와 교사 모두 의사소통의 기회의 확대와 보다 접근하기 쉬운 의사소통 방법을 원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교사와 학부모를 연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이 요구된다. 학부모가 학교의 외부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부에서 함께하는 존재라는 인식(이기석, 2018)이 필요하겠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 관계의 긍정적 전환을 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사소통 전략의 개발이 필요(황성희, 2022)하며, 교사가 부모와 소통에 적극적일수록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는 류방란 외(2019)의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선거 공약 개발을 위한 탐구과정과 공약 제안에서 태도의 변화가 뚜렷하였다. 대상 학부모들이 처음 교육정책에 대한 의문을 가진 것은 본인의 자녀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진학할 당시 겪었던 개인적인 문제를 바탕으로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게 되었다. 제주생활탐구와 기자회견 과정에서 느껴지는 피로와 어려움에 포기를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으나 점차 특수교육 전반에 과제와 실태를 알아가면서 지방선거 공약 개발에는 본인의 자녀에 해당하는 내용보다는 제주도 특수교육 전체를 대변하는 공약을 선정하는 모습으로 태도가 변화하였다.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욕구로 시작되었지만 다양한 사람 및 단체와 교섭하면서 더 우선시하는 과제에 대해 타협을 이루었다고 보이며, 류방란 외(2015)가 제시한 학부모의 참여 유형 가운데 아동에 초점이 있으나 학교 지역사회 발전에는 관심이 적은 마음 쓰는 학부모(멘토형)에서 학교와 아동에 고루 초점을 두는 온전히 참여하는 학부모(협력형)에 가깝게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학부모의 학교교육참여는 자녀만을 위한 교육적 관여가 아니라 자녀가 속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질적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학교 교육 전반의 질적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의 주체로 인식되었다는 주영효(2022)와도 연결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결론으로 제시하면 [그림-3]과 같다.



[그림-3] 학교 교육의 참여 방안

첫째, 학교는 학부모를 교육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지방선거 공약 개발 경험의 배경은 불만이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진 특수교육 정책에 대한 불만과

특수교사에 따라 달라지는 만족도는 이들에게 직접 탐구해보도록 하게 하는 배경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불만의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더 적극적으로 교육 정책을 홍보하고 이를 학부모 친화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의 적극적 의사소통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학부모가 학교의 운영과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범위가 넓을수록 학교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각성을 느끼고 학부모가 교사를 통해서만 교육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직접 교육을 바라보고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교육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은 학부모에게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진정성과 의지를 불만으로 이어지게 하지 않고 책임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학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청은 학부모의 직접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해야 한다. 지방선거 공약 개발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많은 장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고 직접 탐구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제주생활탐구의 역할이 매우 컸다. 제주생활탐구는 제주시소통협력센터가 시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시 말해 지자체의 제원이 교육에 투입된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학부모이기 이전에 시민이기에 교육에 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지자체의 지원은 신의 뜻이라고 표현된 과정을 통해 교육을 지원하였는데, 신의 뜻은 곧 여론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과정은 지역의 교육적 관심을 끌어냈으며 이는 다시 언론 및 정치에 작용하여 과정이 마무리되는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교육청은 이러한 제주생활탐구와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직접 탐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학부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제원과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정책의 추진과 집행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부모와 공유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개발한 교육 공약이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에 의해 수용되고, 다시 당선 교육감에 의해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큰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한편,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 지켜보고자 하는 의도도 나타내었다. 이는 정책화의 과정에 동참하며 결과를 이루어냈지만 한편으로 집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불안함도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교육정책은 형성도 중요하지만 집행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교육활동의 지원자로 이끌기 위해서는 교육청 및 학교 차원에서 교육정책의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언제든지 학부모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를 통해서 온전한 학부모로서의 참여 유형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령기 발달장애 양육 부모의 지방선거 공약 개발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탐구함으로써 학부모의 바람직한 학교 교육 참여 방안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교육감 선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특히 학부모 활동이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에서 다른 관점의 후속 연구가 진행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운진, 이인희. (2021). 제주지역 고등학교 특수교사의 장애학생 전환교육 지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56(3), 91-118.
- 교육개혁위원회. (1996). 신교육체제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보고서.
- 교육과학기술부. (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 서울: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16). 학부모 참여 정책 보고서. 세종: 교육부.
- 국립특수교육원. (2018). 발달장애인 성인 미래설계. 충남: 국립특수교육원.
- 김덕화, 박정경, 박정미, 서혜아, 이보림, 장성희, 현지은. (2021). 2021 제주도 중 고등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교육환경 탐구보고서, 제주:제주시소통협력센터
- 김대현. (2020). 초중등학교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형성. 교육혁신연구, 30(2), 151-177.
- 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이희영. (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 고찰, 한국간호학회, 29(6), 1208-1220
- 김영천. (2016).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장철. (2017). 초등학교 교사-학부모 갈등에 대한 상호 간의 인식 및 대응 전략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주후, 이종각, 이수광, 김경란, 김주아, 황의광. (2007). 학부모센터 설립방안 마련을 위한 예비연구. (2017-지정-14). 서울: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 류방란, 김경애, 임후남, 이성희, 양희준, 황지원. (2015). 학부모의 학교참여 실

- 태 및 정책 방안. 연구보고서.(2015-0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류방란, 황지원, 김경애, 임후남. (2019). 초중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학부모의 만족도, 학교신뢰도,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9(2), 169-193.
- 박찬우·최나라·강은영. (2019).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한 특수교사와 학부모의 특수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경기도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20(4), 205-222.
- 베이비뉴스. (2022. 5. 31.) ‘112명 장애학생 부모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제주교육을 바꿔주세요!’ 1면.
- 서근원. (2004). 산들초등학교의 교육공동체 형성에 관한 교육인류학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손준종. (2012). 편안한 협력자 또는 불편한 감시자; 초등학교 교사의 학부모에 대한 감정 연구. 한국교육, 39(3), 33-57.
- 손홍숙. (2019). 학부모 참여 정책과 통치성. 교육비평 제49호 논단.
- 신혜진. (2020). 교육공동체 관점에서 본 교사-학부모 간 협력과제:학부모의 교육관여를 중심으로. 학부모연구, 7(3), 1-18.
- 오경희, 한 대동. (2009).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과 열망에 대한 이해. 열린교육연구, 17(3), 127-148.
- 오란희, 임선아. (2020).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교사-부모 의사소통 인식 탐구. 열린교육연구. 58(3). 145-170.
- 이기봉. (2007). 장보기와 치맛바람-근대와 여성의 가정적 이미지. 대한지리학회 전국지리학대회 자료집, 107-109.
- 이기석. (2018). 초등학교 교사-학부모 의사소통 탐색: 행동경제학의 적용, 학부모연구, 5(3), 69-92.
- 이순형. (2003). 학부모 참여에 의한 학교교육의 혁신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3(2).
- 이종각. (2014). 학부모학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학부모연구, 1(1), 1-20.
- 이종각. (2014). 부모·학부모·교육열에 대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정책. 서울:원미사
- 이종재·이차영·김 용·송경오. (2015). 교육정책론, 서울: 학지사
- 주영호. (2020).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정책 분석 및 개선 방안, 교육정치학연구, 27(4), 57-86

- 주영효, 전하람, 황영식. (2022).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영향 요인 분석 : 학부모 단체활동과 학교생활 파악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9(3), 83-112.
- 홍지영. (2014).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학교상담자의 경험과 인식. 한국심리학회지 11(3). 585-619.
- 황성희. (2015). 학술지 교육학연구에 나타난 학부모 연구의 동향: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3(4), 253-282.
- 황성희. (2022). 교사에 대한 학부모 기대와 인식에 관한 고찰: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학부모연구 9(3), 77-98.
- Dimmock, C. A., O' Donoghue, T. A., & Robb, A. S. (1996). Parental involvement in schooling: An emerging research agenda. Compare, 26(1), 5-20.
- Epstein, J. L. (2001). School, family, and community partnerships: Preparing educators and improving schools. Boulder: Westview Press.
- Waller, W. (1932). the sociology of teaching. The Journal of Education, 115(23), 700-700

논문경진대회 세션II

대학원 경험 및 연구 효능감과 연구 성과의 관계 탐색

유 진 설(충남대학교 석사과정)

I. 서 론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함께 대학의 지식 생산이 강조되며 대학원 교육의 중요성과 대학원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꾸준히 증대해왔다(김미란 외, 2020; 김승정, 우한솔, 2014; 이호준 외, 2014). 경쟁적인 고등교육 환경 속에서는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대학원 교육의 수혜자들이 만족하는 양질의 교육성과를 거두어야 하는데(신현석 외, 2008), 이때 취업률의 고저와 같은 획일적인 지표가 아니라 대학원이 현재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능력을 학생들에게 얼마나 길러주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교육 성과의 달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변기용 외, 2013; 최윤미 외, 2010).

교육 성과로서 연구 성과는 개인에게만 아니라 대학원과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대학원 교육 및 연구의 경쟁력 확보는 곧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므로 정부는 이전부터 대학원 교육과 연구의 질과 성과를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왔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목표로 1999년부터 BK21(두뇌한국21)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 인력 양성 및 교육에 힘을 쏟고 있으며 현재는 4단계가 진행 중이다. 대학원생의 연구 성과는 BK21사업의 평가항목 중 하나로 참여 대학원생은 연구 실적의 우수성과 연구수월성 증진 실적을 평가받는다(한국연구재단, 2023). 이때 평가지표는 논문, 저서, 작품, 수상, 학술대회 발표, 특허, 국제공동연구 등으로 구성된다.

대학원생의 연구 성과와 관련된 연구는 대학원생의 사회화 과정 및 정체성 발달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김영진, 김명찬, 2021; 나승일 외, 2009; 박보람 외, 2022; 이수정, 김승정, 2020; 최윤미 외, 2010 등). 위 논문들은 대학원생이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자로서 사회화되고 연구자의 정체성이 생기는 것을 연구

성파로 보았다. 그 결과 대학원생이 재학 중 경험하는 연구의 어려움과 극복 과정, 대학원생의 본질적인 학문탐구 과정 등을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한편 대학원 교육의 결과와 성과는 대학원 재정지원사업 평가, 노동시장 이행 및 성과 분석, 하향취업, 교육수익률, 과잉교육 등을 주제로 교육재정과 경제학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었다(박경호, 장덕호, 2012; 송창용, 손유미, 2010; 이호준 외, 2014; 장홍근, 임창규, 2006 등). 위 연구들은 대학원 교육의 성과를 교수의 연구 성과, 학생의 노동시장 이행 등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학원 교육과정을 통해 연구력이 어느 정도 개발되었는가는 대학원 교육의 내용과 운영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므로(최윤미 외, 2010) 대학원 교육의 성과는 대학원생의 연구 성과로 판단될 필요가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원이 갖는 위상과 역할로 인해 현대 사회가 대학원생에게 요구하는 핵심능력은 연구력으로, 대학원생이 교육 성과를 획득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연구 성과를 보는 것이다. 이전과는 다른 측면에서 대학원 교육의 성과를 바라보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나, 대학원 교육과정 이수 등 대학원 경험을 통해 대학원생이 어떤 그리고 얼마나 연구 성과를 내는지와 같이 대학원 경험과 연구 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단계이다.

한편, 연구 효능감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개인의 믿음 혹은 자신감을 말한다(Forester et al., 2004). 연구 효능감이 높을수록 연구 성과가 높아진다는 해외의 선행연구(Bishop & Bieschke, 1998; Kahn & Scott, 1997, Raluca et al., 2021)을 통해 연구 효능감과 연구 성과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으나, 한국에서 연구 효능감을 다룬 연구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있다(최인희, 서재영, 2021; Jang & Shin, 2011; Son & Ke, 2022). 효능감이 학업적 성취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해봤을 때, 대학원생의 연구 효능감에 관한 연구의 지평이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 연구는 대학원생의 대학원 경험 및 연구 효능감과 연구 성과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집한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패널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선정하고 SPSS 25.0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학술적으로 대학원생의 연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원생의 연구 수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적으로 교수의 효과적인 연구 지도 방안 논의, 대학원 교육의 성과를 높이는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아이디어 제시 등 대학

원 교육의 질 제고와 대학행정 개선에 기여할 연구가 되었으면 한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원생 개인 및 학교 특성과 연구 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원생의 대학원 경험, 연구 효능감과 연구 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검토

1. 대학원 경험

대학원생은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을 거치며 석사 또는 박사 교육과정 동안 여러 경험을 하게 된다. 대학원에서의 학습과 연구의 경험은 학문 분야의 고유 특성, 지도교수 및 동료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비)공식적 교육과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김승정, 2017). 면담은 대학원생의 경험 양상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경험에 관한 연구는 질적 연구로 다수 수행되었다(박순용, 김아람, 2017; 유경훈, 김병찬, 2011; 이봉재, 박수정, 2019; 이수정, 김승정, 2020; 임희진 외, 2016). 양적연구로 수행할 시는 교육 및 연구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하여 이를 종속변수나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김세련 외, 2020; 신현석 외, 2008; 이정미 외, 2013; 최고은, 정수정, 2022).

임희진 외(2016)의 연구는 연구중심대학 석사과정 학생들을 면담하여 이들의 학습경험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았다. 석사과정 학생들이 경험하는 대학원 교육에 관해 ‘자율과 방임의 경계’, ‘불친절하고 불성실한 교육의 양면성’, ‘또 다시 시작되는 진로 고민’으로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학부과정과 달리 대학원에서는 지식을 새롭게 생산하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강요받는다고 느끼며 대학원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을 함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봉재, 박수정(2019)은 재직 대학원 박사과정생의 대학원 경험을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특히 전일제가 아닌 재직 대학원생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전일제 대비 대학원 학습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기준이 다를 것으로 보았다. 이들의 연구에 참여한 면담 대상자들은 대학원 교육에 대한 학문적 준비부족과 많은 학습량, 논문 투고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지만, 대학원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 속에서

다양한 행복요소를 찾고 있었다.

이렇듯 대학원 경험은 개인적 상황, 대학원 유형이나 학위과정, 소속 학과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공통적으로 대학원생들은 진학 동기나 기대와 다른 대학원 경험에 실망과 좌절을 겪거나, 개인적 상황이나 지도교수와의 관계에서 우왕좌왕하거나 혼란을 경험할 때도 있다. 그러나 대학원생은 대학원 교육과 연구 경험을 통해 얻은 학문적 성장과 전문성 향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들의 대학원 교육은 향후 진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대학원 교육만족도 요인 모형을 실증적으로 탐색한 김세련 외(2020)의 연구는 교육만족도의 하위 요인을 교육과정, 교수학습, 학습성과, 연구지도, 연구문화, 학사행정, 연구활동 지원으로 구성하여 이 하위 요인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지도-연구환경-학사행정-학습성과-연구문화-교수학습-교육과정 요인 순으로 교육만족도를 크게 설명하였다. 지도교수의 연구지도가 일반대학원생의 교육만족도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체계적인 연구지도 수업 운영과 비교과 프로그램 등에 대한 논의 및 고찰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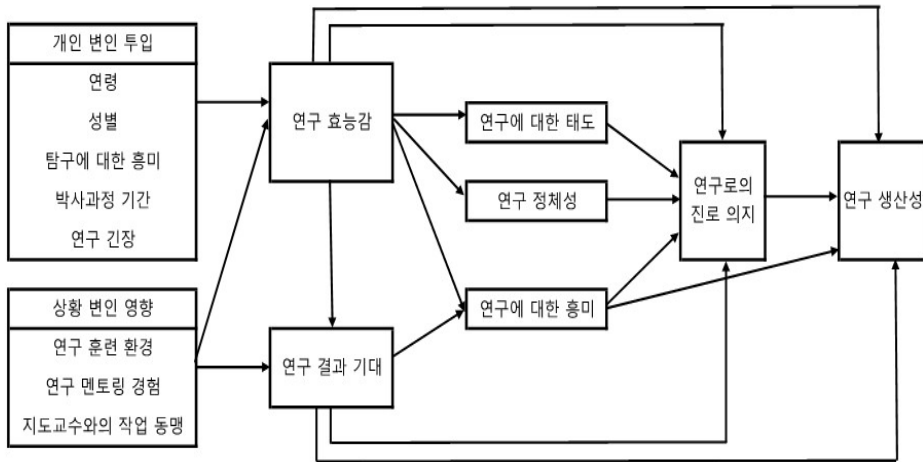
최고은, 정수정(2022)은 일반대학원의 전공계열을 인문사회 계열과 이공계열로 나누어 각 대학원생의 교육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수와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를 개인 배경(성별, 재학형태, 학위과정), 제도적 환경(BK참여여부, 학사행정, 교육 인프라), 교과 교육(교육과정, 전공수업), 학문적 상호작용(동료와의 관계, 지도교수와의 관계)으로 구성하였다. 두 전공계열 모두 학문적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특히 지도교수와의 관계는 전공계열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관되게 대학원생의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도교수의 연구 지도 혹은 지도교수와의 관계가 지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도교수는 대학원생 사회화과정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는 사회화이론(Gardner, 2008)을 바탕으로 대학원생은 지도교수로부터 충분한 학문적, 정서적 지원을 받고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 빈도를 높이고 긍정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2. 연구 효능감

연구 효능감(research self-efficacy)은 연구 수행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개인의 믿음 혹은 자신감으로 정의된다(Forester et al., 2004). 연구 효능감은 자기효능감 이론에서 출발하여 자기효능감이 영역 특정적(domain-specific)인 까닭에 연구 수행 활동에 한정된다. 연구 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는 해외에서 일찍이 이뤄졌다. 1989년에서 2020년 사이 수행된 85개의 연구 효능감 관련 연구물을 메타분석한 Raluca 외(2021)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 효능감은 독립변수이자 종속변수이다. 연구 멘토링 경험, 지도교수와의 작업 동맹, 연구 훈련 환경, 탐구에 대한 흥미, 연구 긴장, 박사과정 기간은 유의하게 연구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중 연구 훈련 환경과 지도교수와의 작업 동맹이 가장 큰 효과 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 = .30$). 동시에 연구 결과 기대, 연구에 대한 흥미, 연구로의 진로 의지, 연구에 대한 태도, 연구 생산성은 연구 효능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중 연구에 대한 흥미가 가장 높은 효과 크기($r = .47$)를 보이며 연구 정체성($r = .43$), 연구로의 진로 의지($r = .43$)가 뒤를 이어 높은 효과 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구 효능감 관련 선행연구물을 종합하여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바탕으로 연구 수행 맥락에 특화한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이때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 등 사회인지진로이론 관련 개념은 연구 맥락으로 한정되어 진술된다. 예로 자기효능감은 연구 효능감(research self-efficacy), 결과기대는 연구 결과 기대(research outcome expectations)와 같이 연구 수행 활동에 적용한 용어로 바뀌게 된다. 일반적인 사회인지진로이론의 변수들을 맥락화한 정도에서 더 나아가 연구 정체성(research identity), 연구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s research)와 같은 변수는 일반적인 사회인지진로이론과 다르게 오직 연구 활동에 한정되어 새롭게 등장한다(Raluca et al., 2021).



[그림 1] 연구 맥락적 사회인지진로 모형*

* Raluca et al. (2021)에서 제시한 연구 맥락적 사회인지진로이론 모형을 연구자가 번역하여 재구성함

국내에서 연구 효능감을 다룬 연구는 적은 편으로 특히 대학원생의 연구 효능감에 대해서는 3편 정도 확인되었다(최인희, 서재영, 2021; Jang & Shin, 2011; Son & Ke, 2022). 이중 최인희, 서재영(2021)의 연구가 구체적으로 대학원생의 연구 효능감을 다룬 대표적인 논문으로서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원생 연구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자아개념, 대학적응, 대학원 교육여건 만족도, 지도교수의 성장중심 멘토링 변인이 연구 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Son과 Ke(2022) 또한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자료를 사용하여 대학원생의 교육 경험과 대학원 만족도 간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구 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 경험과 대학원 만족도 사이 높은 상관관계($r = .44, p < .01$)가 확인되었고, 연구 효능감은 교육 경험과 대학원 만족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변수 간 관계를 검증했던 이들(최인희, 서재영, 2021; Son & Ke, 2022)의 최근 연구와 달리 Jang과 Shin(2011)의 연구는 연구 효능감과 다른 연구 관련 구성요소 간 효과 크기를 종합 및 분석하는 메타분석 연구를 수행했다. 이때 연구 관련 구성요소란 개인의 연구 기질(research disposition), 연구 지

원(research support), 연구 성과(research outcome)로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연구자가 새롭게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물을 메타분석하였으므로 대학원생에 한정 지어 수행되지는 않았으나, 연구 대상인 분석 논문 대다수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4개의 분석 논문에서 각각 .36(연구 기질), .24(연구 지원), .38(연구 성과)의 평균 효과 크기가 산출되었으며,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다 연구 경험을 일찍 제공하고 연구에 관한 관심을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3. 연구 성과

대학원생의 연구 성과는 대학원 교육의 주요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못하였다(이인서 외, 2022; 허정, 이길재, 2020). 또한 대학의 연구 성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연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거나 또는 성과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오현석 외, 2012).

국내와 국외로 선행연구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국내에서는 3편 정도가 확인되었다(이인서 외, 2022; 이정미 외, 2013; Kim, 2014). 앞서 언급한 이인서 외(2022)의 연구에서는 연구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개인 배경(성별, 졸업당시연령, 국적, 출신학부명성), 대학원 생활(전공계열, 재학기간, 최종성적, 학술대회 참여건수), 연구 환경(소속캠퍼스 박사과정 비율, 지도교수 연구실적)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이공계 박사과정의 연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대학원 최종성적, 학술대회 참여건수, 소속캠퍼스의 박사과정 비율, 지도교수의 연구실적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종속변수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술논문 게재건수에는 졸업당시연령, 최종성적, 학술대회 참여건수, 지도교수 연구실적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학술논문 환산편수에는 성별, 졸업당시연령, 최종성적, 학술대회 참여건수, 소속캠퍼스 박사과정 비율, 지도교수 연구실적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SCI급 학술지 IF 평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졸업당시연령, 최종성적, 소속캠퍼스 박사과정 비율, 지도교수 연구실적이었다.

대학원 교육 및 연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이정미 외(2013)의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이 크게 개인 배경 변인(성별, 연령, 부모 학력,

대학원 입학 동기, 대학원 교육목표, 학위과정), 학부 경험(타 대학 학부), 교육 경험(교육과정의 질, 수업 준비도, 장학금 비중), 연구 경험(연구 활동, 재정지원사업 참여), 학교 특성(소재지, 전공계열, 동료학생 수준, 학과의 경쟁력, 학부의 명성, 대학원 유형)으로 구분된다.

연구 결과, 개인 배경 변인 중 연령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 대학원 교육에 늦게 진입한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연구 성과 면에서 더 낮은 성과를 보였다. 그리고 타 대학을 졸업한 대학원생의 경우 동일 대학에서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 교육을 계속 받는 학생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연구 성과를 보였다. 교육 경험 변인 중 수업 준비의 충실도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교육과정의 질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연구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거나 국가 수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높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교 특성 중 전공계열에 따라 연구 성과가 달랐는데, 인문사회 계열 대비 이공계열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GPF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의 연구 생산성의 영향요인에 관해 논문을 쓴 Kim(2014)은 SCI급 출판물의 수로 연구 생산성을 측정했으며 독립변수를 인구통계학적 요인(성별, 연령), 재정적 요인(GPF 지원, GPF와 BK21 모두 지원, GPF와 다른 프로그램 지원), 학교와 지도교수의 명성 요인(QS 대학평가 순위, 지도교수의 연구 생산성, 전문적인 훈련)으로 구분하였다. 이중 연령, 지도교수의 연구 생산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연령이 낮을수록 연구 생산성이 높으며, 지도교수의 연구 생산성이 높을수록 대학원생의 연구 성과가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국외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다수 확인되었다(Kahn & Scott, 1997; Ynalvez et al., 2014). Kahn & Scott(1997)는 박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생산성의 예측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독립변인은 Holland 성격유형 검사, 연구 훈련 환경, 성별, 재학기간이며, 연구 흥미와 연구 효능감, 직업적 목표가 매개변인, 연구 생산성이 종속변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재학기간, 연구 흥미, 직업적 목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구 생산성을 예측하는 요인이었다. 연구 효능감은 연구 생산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았으나, 재학기간, 연구 흥미 등과 결합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Ynalvez 외(2014)는 박사과정 지도 실습, 박사과정 연구 경험과 연구 생산

성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일본, 싱가포르, 대만 3개국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통제변인에 지역적, 개인적(성별, 결혼여부), 전문적(재학기간, 연구 프로젝트 참여) 속성을 투입한 뒤, 박사과정 지도 실습(멘토의 학생 구직 도움, 멘토의 연구 조언 및 지도, 멘토와의 공동 프로젝트 및 논문 작성, 멘토의 실질적 도움)과 박사과정 연구 경험(논문 작성 및 투고 경험, 회의나 세미나 참여 및 발표 경험, 보고서와 학술지 논문 비평 및 리뷰, 기술 교육 수강 및 타 연구실 견학)이 연구 생산성(작성원고의 수, 상위 학술지 게재건수, 학술지 게재건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박사과정 지도 실습에서는 멘토 공동 프로젝트 및 학생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것만이 유의하게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박사과정 연구 경험 변인에서는 논문 작성 및 투고 경험이 가장 강한 예측력을 보였다. 회의나 세미나 참여 및 발표 경험 역시 정적인 영향요인이었다.

위의 선행연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성과 영향요인 선행연구 정리

저자	독립변수	독립변수 하위 요인
이인서 외(2022)	개인 배경	성별
		졸업당시연령
		국적
		출신학부명성
	대학원 생활	전공계열
		재학기간
		최종성적
		학술대회 참여건수
	연구 환경	소속캠퍼스 박사과정 비율
		지도교수 연구실적
이정미 외(2013)	개인 배경	성별
		연령
		부모 학력
		대학원 입학 동기
		대학원 교육목표
	학부 경험	학위과정
		타 대학 학부
	교육 경험	교육과정의 질
		수업 준비도
	연구 경험	장학금 비중
		연구 활동
		재정지원사업 참여

저자	독립변수	독립변수 하위 요인
	학교 특성	소재지
		전공계열
		동료학생 수준
		학과의 경쟁력
		학부의 명성
		대학원 유형
Kim(2014)	인구통계학적 요인	성별
		연령
	재정적 요인	GPF 지원
		GPF와 BK21 지원
		GPF와 다른 프로그램 지원
	학교와 지도교수의 명성 요인	QS 대학평가 순위
		지도교수의 연구 생산성
		전문적인 훈련
Kahn & Scott(1997)	독립변인	Holland 성격유형 검사
		연구 훈련 환경
		성별
		재학기간
	매개변인	연구 흥미
		연구 효능감
		직업적 목표
Ynalvez 외(2014)	박사과정 지도 실습	멘토의 학생 구직 도움
		멘토의 연구 조언 및 지도
		멘토와의 공동 프로젝트 및 논문 작성
		멘토의 실질적 도움
	박사과정 연구 경험	논문 작성 및 투고 경험
		회의나 세미나 참여 및 발표 경험
		보고서와 학술지 논문 비평 및 리뷰
		기술 교육 수강 및 타 연구실 전학

* 독립변수 중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변수는 음영처리함

결론적으로 연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개인 수준 요인과 학교 수준의 요인으로 구분된다. 개인 수준 요인 중 연령은 대부분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학교 수준 요인 중 지도교수의 연구 실적 혹은 연구 생산성이나 연구과제, 학회 혹은 프로젝트 등 연구에 관련된 경험이 연구 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효능감은 이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수로 작용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자료는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10차부터 12차 대학원생 설문지 응답 자료이다. 「한국교육종단연구2005」는 교육에 대한 종단적 자료 수집, 교육정책 수립 기초자료 등을 위해 실시된 국가수준 무선추출 종단조사이다. 종단으로 수집된 자료이나 연속해서 모든 차수에 응답한 표본의 수가 적으며 이 중 일부는 대학원 유형이나 전공이 달라진 것으로 파악되어 종단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최인희, 서재영, 2021). 또한 대학원생은 대학생 대비 수가 많지 않아 분석 대상의 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횡단 자료로 변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자가 모든 차수에 응답했을 경우 12차 자료를, 세 차례 중 두 차례에 응답했을 경우 최신의 자료를, 세 차례 중 한 차례에 응답했을 경우 해당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위의 방법으로 재구성한 결과 10차 응답자 44명, 11차 응답자 94명, 12차 응답자 186명이었다. 총 324명 가운데 대학원 유형을 국내 일반대학원으로 한정하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는 등 연구 목적과 주제에 맞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 총 206개의 표본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 변수 설명

가. 종속변수

이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대학원생의 연구 성과이다. 범주형 변수로서 연구 성과의 유무(有無)이다. 분석 대상 206명 중 연구 성과가 있는 표본은 126명(61.2%), 연구 성과가 없는 표본은 80명(38.8%)이었다.

나.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대학원 경험과 연구 효능감이다. 대학원 경험은 대학원 교육 경험과 대학원 연구 경험으로 구성된다. 「한국교육종단연구2005」에서는

교육 경험을 전공 개설 교과목이 전문성 개발에 도움을 주는 정도와 대학원 교육여건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에 개인별로 응답한 점수의 평균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각각의 신뢰도는 .907, .812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연구 경험은 연구과제(프로젝트) 참여 경험과 (지도)교수의 연구멘토 문항으로 구성된다. 연구과제 참여 경험 여부는 ‘없음’을 0으로, ‘있음’을 1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한편, 교수의 연구멘토 영역은 다른 독립변수와 달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이 두 개가 도출되었다. 분석 방법은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해 베리맥스의 직각요인회전방법을 선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번호	1	2
지도 중심 멘토	1	.839	.259
	2	.864	.298
	4	.813	.337
	5	.826	.213
	6	.853	.182
	7	.819	.291
	10	.658	.562
경험 중심 멘토	3	.420	.660
	8	.233	.869
	9	.173	.925

* 같은 요인을 묶어 음영처리함

결과적으로 문항 1, 2, 4, 5, 6, 7, 10번이 하나의 요인으로, 문항 3, 8, 9번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 KMO(Kaiser-Meyer-Olkin) 계수 값은 .926으로 KMO 값이 1에 가까워 요인분석을 위한 세부 지표들이 적절하게 선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변수들 간 상관이 0인지 검정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근사 $\chi^2 = 1662.872$, $p < .001$). 문항의 공통점을 찾아 전자를 지도 중심 멘토, 후자를 경험 중심 멘토로 명명하였다. 요인별 하위 문항의 평균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각

각의 신뢰도는 .944, .840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 다른 독립변수는 대학원생의 연구 효능감이다. 11개 문항의 신뢰도는 .920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연구 효능감 평균 점수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핵심적인 연구문제인 대학원 경험, 연구 효능감과 연구 성과의 관계 탐색 외에 개인과 학교 특성과 연구 성과의 관계도 검증하기 위해서 표본의 개인 및 학교 특성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때 전공계열의 다양한 계열을 유사한 특성을 지닌 계열끼리 유목화하였다. 공학, 자연, 의약학을 이공계로, 인문, 사회상경, 교육(사범), 예체능과 기타를 비이공계로 묶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재학 형태도 학·석사 통합과정을 석사과정으로, 석·박사 통합과정을 박사과정으로 합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단 2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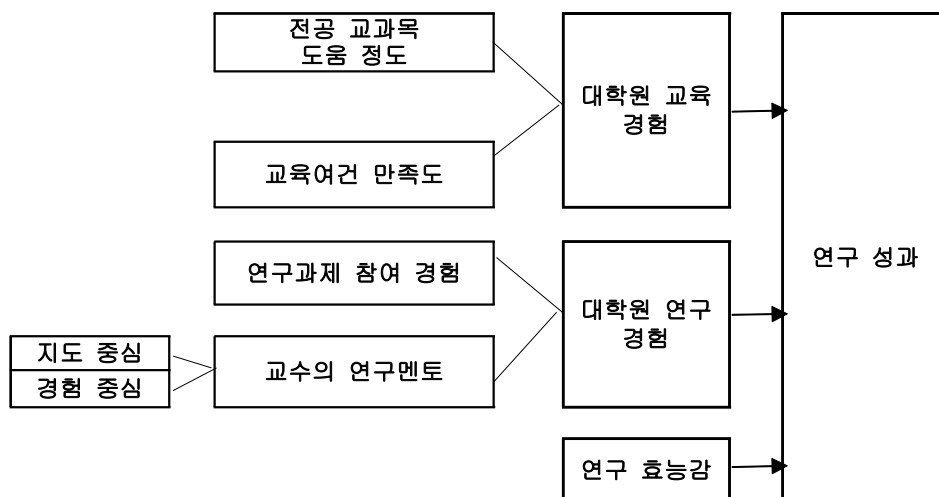
3. 분석 방법

종속변수가 이분형 변수이기 때문에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이분 변수일 때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통계적 모형으로 등식은 다음과 같다.

$$\frac{P}{1-P} = e^{B_0 + B_1X_1 + \dots + B_kX_k}$$

B_k 를 로지스틱 회귀계수라고 하며 다른 독립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해당 독립변수(X_k)를 한 단위 증가시키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보다 $\exp(B_k)$ 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성태제, 2022). 선형 다중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B_k 가 클수록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어 연구 성과의 유무 차이를 만들어내는 독립변수 간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도 비교할 수 있다.

종합하면 이 연구의 모형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이 연구에서의 독립변수는 전공 교과목 도움 정도, 교육여건 만족도, 연구 과제 참여 경험, 교수의 지도 중심 연구멘토(이하 지도 중심 멘토), 교수의 경험 중심 연구멘토(이하 경험 중심 멘토), 연구 효능감 총 6개이다. 이들 중 연구과제 참여 경험을 제외한 변수는 각각의 평균이 독립변수로 사용되었다. 연구과제 참여 경험은 범주형 변수로 더미변수이다.

이 절에서는 먼저 각 세부 문항의 기초적인 통계치를 살펴봄으로써 분석 대상의 인식 수준과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독립변수 기술통계

변수명	문항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전공 교과목 도움 정도	전공 분야 내용 심화	4.02	.86	-.89	1.12
	최신의 논의 다룸	3.81	.93	-.57	.06
	방법론적 지식 길러줌	3.59	.99	-.32	-.42
	논문 주제 심화 발전에 도움	3.60	.94	-.48	.22
	전공 교과목 도움 정도 평균	3.75	.82	-.52	.69

변수명	문항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교육여건 만족도	교육과정 다양함	3.31	1.00	-.10	-.43	
	공간/시설/장비 보유	3.73	.96	-.62	.19	
	학비 지원	3.66	1.03	-.66	.05	
	도서관 장서 보유 수준	4.00	.84	-.70	.86	
	행정 서비스 제공	3.46	1.02	-.50	.00	
	교육여건 만족도 평균	3.63	.73	-.40	.66	
교수 의 연구 멘토	지도 중심	시간 할애	3.71	1.01	-.75	.30
		아이디어 발전에 도움	3.76	1.01	-.78	.40
		연구방법 지도	3.67	1.02	-.63	-.00
		전문가 혹은 문헌 소개	3.74	1.07	-.84	.35
		선행연구 분석을 도와줌	3.41	1.12	-.42	-.43
		제한점 인식을 도와줌	3.70	.99	-.82	.60
		아이디어 표현 격려	3.50	1.15	-.64	-.19
	경험 중심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3.74	1.07	-.86	.38
		학회 참석 격려	3.81	1.07	-.76	.07
		학회 발표 격려	3.65	1.14	-.68	-.18
	지도 중심 멘토 평균		3.64	.91	-.68	.54
	경험 중심 멘토 평균		3.73	.95	-.72	.38
연구 효능감	최근 연구동향 파악	3.50	.88	-.26	.10	
	연구 가능한 문제 도출	3.52	.86	-.31	.03	
	선행연구 분석	3.74	.87	-.46	.30	
	연구 주제에 적합한 연구 설계	3.53	.88	-.17	-.28	
	모의 연구(시뮬레이션) 수행	3.43	1.01	-.46	-.05	
	실험 또는 조사 수행	3.76	.85	-.36	-.19	
	데이터 분석	3.73	.94	-.46	-.16	
	결론 및 논의 도출	3.66	.84	-.50	.17	
	내용이나 결과를 논의 및 토론	3.76	.85	-.31	-.25	
	학문적 글쓰기	3.24	.98	-.02	-.50	
	연구윤리 준수	4.05	.85	-.68	.14	
	연구효능감 평균	3.63	.67	-.18	.08	
변수명		N	비율			
연구과제 참여 경험	없음	61	29.6			
	있음	145	70.4			

최솟값은 연구 효능감 평균(1.73점)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에서 1점이었으며, 최댓값은 모두 5점이었다. 왜도의 기준은 절대값 3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는 절대값 8 또는 10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규분포로 볼 수 있으므로 독립변수는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 할 수 있다.

전공 교과목 도움 정도 변수는 평균 3.75점이며, 세부 문항 중 평균이 가

장 높은 문항은 ‘전공 분야의 내용에 대한 지식을 심화시킨다’로 평균 4.02점이었다. ‘독자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론적 지식을 길러준다’ 문항은 평균 3.59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논문 주제를 심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문항과 불과 0.01점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교육여건 만족도 변수는 평균 3.63점이며, 세부 문항 중 평균이 가장 높은 문항은 ‘도서관은 나의 전공 영역에 관련된 장서(전자저널 등)를 보유하고 있다’로 평균 4.00점이며 가장 낮은 문항은 ‘교육과정이 다양하다’로 평균 3.31점이었다.

지도 중심 멘토 변수는 문항별로 평균이 3.4점에서 3.8점 사이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는 문항은 ‘내 연구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신다’로 3.76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평균의 문항은 3.41점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하는 것을 도와주신다’였다.

기본적으로 지도 중심 멘토(3.64점)보다 경험 중심 멘토(3.73점)의 평균이 더 높다.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는 문항은 ‘학회에 참석하도록 격려해 주신다’ 문항(3.81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이는 문항은 ‘내가 학회에서 발표하도록 격려해 주신다’ 문항(3.65점)이었다.

연구 효능감 변수의 세부 문항 중 평균이 가장 높은 문항은 ‘연구윤리 준수’로 4.05점이었으며 반대로 평균이 가장 낮은 문항은 ‘학문적 글쓰기’로 3.24점이었다. 두 문항의 평균차는 0.81점으로 다른 연속형 독립변수의 그것에 비해 다소 높았다.

2. 개인 및 학교 특성과 연구 성과의 관계 분석

대학원생의 개인 및 학교 특성이 연구 성과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개인 및 학교 특성과 연구 성과의 관계 분석

독립변수(특성)			B	SE	Wald	p	OR	95% CI	
								LLCI	ULCI
개 인	성 별	남자	-.076	.364	.044	.834	.926	.454	1.892
	전 공	비이공	-1.166**	.428	7.418	.006	.312	.135	.721

독립변수(특성)			B	SE	Wald	p	OR	95% CI	
								LLCI	ULCI
	계열								
	학위과정	석사	.241	.431	.313	.576	1.273	.547	2.964
	재학형태	전일제	1.085*	.529	4.214	.040	2.961	1.050	8.346
학교	소재지	수도권	-.371	.435	.727	.394	.690	.294	1.618
	설립유형	국공립	.025	.429	.003	.953	1.026	.443	2.377
상수항			-4.320	1.523	8.044				
-2로그우도			208.780						
R ²	Cox&Snell		.276						
	Nagelkerke		.374						

1) * p<.05 ** p<.01

2) 통계적으로 유의한 특성은 음영처리함

3) reference group: 성별: 여자 / 전공계열: 이공 / 학위과정: 박사(석박사)과정 / 재학 형태: 시간제 / 대학원 소재지: 비수도권 / 대학원 설립유형: 사립

위의 <표 4>를 보면 알 수 있듯 분석 결과, 개인 특성 중 전공계열과 재학 형태가 연구 성과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이공계열 대학원생이 이공계열 대학원생보다 연구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68.8% 감소하므로 이공계열 대학원생이 비이공계열 대학원생보다 연구 성과가 있을 승산이 더 높다. 또한 전일제이면 시간제보다 연구 성과를 낼 승산이 약 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학원 경험 및 연구 효능감과 연구 성과의 관계 분석

이 연구는 개인 및 학교 특성 그리고 대학원 경험과 연구 효능감이 연구 성과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독

립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탐색하였다.

가. 상관관계 분석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다중공선성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때 변수 간 Pearson 상관계수가 .90 미만이면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1	1				
2	.543**	1			
3	.568**	.477**	1		
4	.338**	.415**	.622**	1	
5	.311**	.396**	.380**	.414**	1

1) **p<.01

2)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음영처리함

3) 1. 전공 교과목 도움 정도 2. 교육여건 만족도 3. 지도 중심 멘토 4. 경험 중심 멘토 5. 연구 효능감

분석 결과, 모든 값이 .90 미만이므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상관계수가 .40에서 .60 사이에 있으므로 독립변수 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나. 대학원 경험 및 연구 효능감과 연구 성과의 관계 분석

대학원 경험과 연구 효능감이 연구 성과 유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 대학원 경험 및 연구 효능감과 연구 성과의 관계 분석

독립변수	B	SE	Wald	p	OR	95% CI	
						LLCI	ULCI
전공 교과목 도움 정도	-.010	.296	.001	.972	.990	.554	1.768

독립변수	B	SE	Wald	p	OR	95% CI	
						LLCI	ULCI
교육여건 만족도	-.071	.309	.053	.818	.931	.508	1.708
연구과제 참여 경험	없음	-.499	.457	1.191	.275	.607	1.488
지도 중심 멘토	-.327	.295	1.232	.267	.721	.405	1.285
경험 중심 멘토	.547*	.264	4.291	.038	1.728	1.030	2.898
연구 효능감	1.082**	.316	11.693	.001	2.949	1.587	5.482
상수항	-4.320	1.523	8.044				
-2로그우도	208.780						
Cox&Snell R ²	.276						
Nagelkerke R ²	.374						

1)* p<.05 ** p<.01

2)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음영처리함

3) reference group: 연구과제 참여 경험: 있음

교수의 경험 중심 멘토와 연구 효능감이 연구 성과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수의 경험 중심 멘토의 정도가 1 증가할수록 대학원생의 연구 성과가 있을 승산이 1.728배 증가하며, 대학원생의 연구 효능감의 정도가 1 증가할수록 연구 성과가 있을 승산이 약 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B값을 통해 영향력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데, 연구 효능감(B=1.082)이 경험 중심 멘토(B=0.547)보다 B값이 높다. 따라서 연구 효능감이 교수의 경험 중심 멘토보다 연구 성과 유무에 있어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학부 수준의 고등교육 팽창,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급 연구개발 인력 수요의 증가 등 대학원에게 사회가 더 많은 역할과 성과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연구자가 인식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학문적 관심은 대학과 대학생에 치중되어 있고, 대학원생의 교육 및 학습 경험, 교육을 통한 성과 등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위와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 연구에서는 대학원생의 대학원 경험을 통한 연구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문제는 두 가지였다. 첫째, 대학원생의 개인 및 학교 특성과 연구 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원생의 대학원 경험 및 연구 효능감과 연구 성과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집한 <한국교육중단연구2005> 패널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종단 자료이지만 대학원생 표본의 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횡단 자료로 변형하였으며, 연구 성과라는 연구주제에 더 적합한 국내 일반대학원에 재학하거나 재학했던 표본으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표본은 총 206개였다. 독립변수는 크게 6개이다. 먼저 대학원 교육 경험을 반영하는 변수는 전공 교과목 도움 정도와 교육여건 만족도이다. 각 변수의 세부 문항에 응답한 값의 평균을 활용하였다. 대학원 연구 경험은 연구과제 참여 경험과 교수의 연구멘토로 구분되는데, 연구과제 참여 경험은 더미변수이다. 교수의 연구멘토는 요인분석 결과 요인이 두 개로 도출되어 지도 중심 멘토와 경험 중심 멘토로 명명하였다. 지도 중심 멘토 변수와 경험 중심 멘토 변수의 세부 문항에 응답한 값의 평균을 활용하였다. 연구 효능감의 세부 문항에 응답한 값의 평균이다. 종속변수는 연구 성과 유무로 이분 변수이다. 설정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별, 전공계열, 학위과정 유형, 재학 형태, 대학원 소재지, 대학원 설립유형이 연구 성과 유무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공계열과 재학 형태가 연구 성과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이공계열 대학원생이 비이공계열 대학원생보다, 전일제 대학원생이 시간제 대학원생보다 연구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공 교과목 도움 정도, 교육여건 만족도, 연구과제 참여 경험, 교수의 지도 중심 멘토, 교수의 경험 중심 멘토, 연구 효능감 중 연구 성과 유무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수의 경험 중심 멘토와 연구 효능감이었다. 경험 중심 멘토와 연구 효능감의 정도가 높을수록 연구 성과가 있을 승산이 높아졌다.

이상의 결론 및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원생은 적극적으로 연구과제나 학회에 참석하고 교수는 이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선순환적 멘토링이 이뤄져야 한다. 연구 결과가 가리키다시피 연구 성과를 내는 데 있어 교수의 경험 중심 멘토와 연구 효능감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 그중 경험 중심의 멘토링을 하고자 한다면 교수는 대학원생에게

학회 발표를 권장하고 이를 격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학원생이 연구 성과를 내는 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생이 연구세미나나 연구실에서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의 아이디어를 실제 연구로 이어질 수 있게 지원한다면 대학원생의 연구 성과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한편 연구 효능감은 개인의 심리적 변수로 이전의 성공 경험이 있을수록 높아진다. 따라서 대학원생은 최대한 연구과제에 참여하거나 학회에서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연구를 직접 경험해보으로써 연구 효능감을 높여야 한다. 연구 결과를 가시화하고 이를 성과로까지 연결해보는 경험은 연구 효능감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축적된 성공 경험은 연구 효능감을 높이고, 높아진 연구 효능감이 다시 연구 성과를 낼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교수는 대학원생이 대학원 재학 중 연구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질 높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학생의 높아진 연구 효능감이 성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심리·정서적 지원을 쏟는 멘토링을 발휘해야 한다.

둘째, 정부와 대학은 대학원생의 연구 성과가 향상될 수 있는 대학원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연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연구 효능감의 필요성, 연구과제 참여 경험의 중요성 등을 인식하여 이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 대학원 차원의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수를 대상으로 경험 중심 멘토링 워크숍을 실시하거나 학생들에게 연구 효능감 상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아이디어가 있겠다. 특히 연구 성과의 기술통계를 보면 전체 표본 206개 중 연구 성과가 없는 표본이 절반 이상이었다. 더 많은 대학원생이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BK 미참여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 요구되는 바이다. 정부는 대학원생들이 단순히 연구 성과를 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우수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들에게 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자는 데이터의 한계를 느꼈다. 대학원생 대상의 국가 수준 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이나 외적타당도는 확보하였으나 설문 자체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연구자가 직접 설문을 설계하거나 표본을 선정하지 못해, 표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과 표본의 수가 다소 적은 점 등 아쉬움이 남았다. 따라서 BK 4단계 사업 데이터, 대학기관연구(IR, Institutional Research) 데이터 등 대학원 관련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더욱 구축 및 공개되어 대학원생에 관한 연구의 지평이 확장되었으면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원생의 교육 및 학습에 대해 더욱 풍부한 학문적·실제적 논의를 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미란, 조옥경, 박승재, 장덕호, 주희정, 홍세진. (202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원 교육 혁신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중심대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김세련, 최고은, 박인우. (2020). 일반대학원 교육만족도 요인 모형에 대한 실증적 탐색. 교육방법연구, 32(3), 487-510.
- 김승정. (2017). 대학원 교육에서 나타나는 학문 분야별 연구 및 교육 특징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5(2), 227-251.
- 김승정, 우한솔. (2014). 대학 단위 외적 책무성 기제가 교수 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2(2), 137-160.
- 김영진, 김명찬. (2021). 상담전공 석사과정 대학원생이 겪은 연구의 어려움과 대처경험. 질적탐구, 7(1), 245-277.
- 나승일, 박희철, 김연정, 장규선, 장현진, 이은경. (2009). 산업교육분야 전공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형성 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1(3), 87-121.
- 박경호, 장덕호. (2012). 대학원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에 관한 추론적 연구: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 사례. 공학교육연구, 15(4), 101-108.
- 박보람, 정진철, 김민희. (2022). 박사과정생의 박사학위과정에 대한 인식 유형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5), 121-140.
- 박순용, 김아람. (2017). 공대 대학원생의 대학원 생활 및 진로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한국HRD연구, 12(2), 109-137.
- 변기용, 서경화, 남미자, 이수지, 김희연, 유흥뢰. (2013). 현행 고등교육 책무성 확보기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정책방향 탐색. 아시아교육연구, 14(1), 163-196.
- 성태제. (2022). SPSS 25.0 / AMOS / HLM을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 기술통계에서 구조방정식모형까지 3판. 학지사.
- 송창용, 손유미. (2010). BK21사업 참여인력의 노동시장 이행 및 성과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현석, 이은구, 김겸훈, 노명순. (2008). 대학원생이 인식하는 대학원 교육의 질

- 만족요인 탐색. 교육문제연구, 31, 49-77.
- 오현석, 배진현, 성은모, 배형준. (2012). 과학자의 전문성과 연구 성과의 관계 분석 - 교수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 직업교육연구, 31(1), 75-94.
- 유경훈, 김병찬. (2011). 교육대학원 경험 의미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교육문제연구, 39, 131-160.
- 이봉재, 박수정. (2019). 대학원 생활 속 행복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재직 대학원 박사과정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5(5), 199-226.
- 이수정, 김승정. (2020).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석사과정생의 대학원 학습경험과 진로에 관한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21(3), 879-906.
- 이인서, 김문주, 이병식. (2022). 대학기관연구(Institutional Research) 데이터를 활용한 대학원 박사과정생 연구 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40(3), 143-169.
- 이정미, 김은영, 이길재, 임소현, 장덕호, 한경희, 신수희. (2013). 대학원 교육 운영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호준, 양민석, 이현국, 정지혜, 유지은, 정동욱. (2014). 국가 간 대학원 교육의 교육투자수익률 비교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3(4), 161-183.
- 임희진, 김소현, 박혜연, 김경호. (2016). 연구중심대학 석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학습경험에 대한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7(3), 379-408.
- 장홍근, 임창규. (2006). BK21사업 참여자의 노동시장 이행 및 성과분석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고은, 정수정. (2022). 전공계열별 대학원생의 교육만족도 예측요인 분석 :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학문적 상호작용의 영향력 검증. 한국교육학연구, 28(4), 267-289.
- 최윤미, 김민성, 홍윤경, 남창우. (2010). 연구역량에 대한 이해: 대학원생, 연구원, 교수 집단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1(2), 1-27.
- 최인희, 서재영. (2021). 대학원생 연구 효능감의 영향요인 탐색. 열린교육연구, 29(6), 105-128.
- 한국연구재단. (2023).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미래인재 양성사업 성과평가 설명회 자료.
- 허정, 이길재. (2020). ‘경향점수매칭’을 활용한 BK21플러스사업 참여 대학원생의 학습성과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9), 877-905.
- Bishop, R. M., & Bieschke, K. J. (1998). Applying social cognitive theory to

- interest in research among counseling psychology doctoral students: A path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2), 182-188.
- Deok-Ho Jang & In-Soo Shin.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research self-efficacy and other research constructs: Synthesizing evidence and developing policy implications through meta-analysis. *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 8(2), 279-301.
- Forester, M., Kahn, J. H., & Hesson-McInnis, M. S. (2004). Factor structures of three measures of research self-efficac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2(1), 3-16.
- Gardner. S. K. (2008). “What’ s too much and what’ s too little?” : The Process of Becoming an Independent Researcher in Doctoral Education,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9(3), 326-350.
- Kahn, J. H., & Scott, N. A. (1997). Predictors of research productivity and science-related career goals among counseling psychology doctoral studen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 38-67.
- Kim, K. H. (2014). Research Productivity of Graduate Students in GPF program of Korea.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3(1), 72-93.
- Raluca Livinti, George Gunnesch-Luca, & Dragos Iliescu. (2021). Research self-efficacy: A meta-analysis. *Educational Psychologist*, 56(3), 215-242.
- Son, Daun & Ke, Yiru (2022). The moderating effect of research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experience and graduate school satisfac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13), 701-714.
- Ynalvez, R., Garza-Gongora, C., Ynalvez, M. A., & Hara, N. (2014). Research experiences and mentoring practices in selected East Asian graduate programs: Predictors of research productivity among doctoral students in molecular biology.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Education*, 42(4), 305-322.

논문경진대회 세션 II

NIE 지도사의 신문활용교육 지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김 향 란(제주대학교 박사과정)

김 은 영(제주대학교 박사과정)

I. 서 론

현대사회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영상매체를 통한 정보의 가치가 우리의 삶에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김우준, 2011). 그와 더불어 영상의 폐해에 대한 연구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진(1991)은 매체 논리에 대한 비판의식 없이 미디어 내용을 수용한 결과 실제의 현실과 가상의 현실을 혼동하기 때문에 매체를 선별하여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기태(1993)는 영상매체는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감수성, 지능지수, 독서능력, 상상력, 언어양식, 비판능력, 그리고 전반적인 가치관 뿐만 아니라 신체와 뇌파에 이르는 부분에도 폐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정백(2000)은 지속적인 영상매체 노출은 알파파의 발생을 초래하여 두뇌에 영향을 미치고, 학습과 지각능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독서와 문자이론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학습의 과정이 고등화 될수록 독서능력은 더욱 필요한데 어려서부터 영상매체에 길들여지게 되면 언어발달뿐만 아니라 주의력 저하와 같은 문제를 동반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어린이의 활자매체 기피는 읽기 능력 저하라는 우려와 밀접하게 관련된 다”는(유홍식, 2012: 419)의 주장처럼 영상매체의 폐해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영상의 폐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위의 연구들은 영상시대에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영상시대일수록 활자 읽기 교육이 더 필요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활자 읽기 교육의 하나인 NIE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김기

태, 2010)는 점에서 영상의 폐해를 해결해 주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

NIE는 'Newspaper In Education(신문활용교육)'의 약자로, 국제신문발행인 협회는 “신문을 교재 또는 보조교재로 활용해 지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 (강명선, 황성욱, 2013: 10)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신문활용교육(NIE)을 하는 목적¹⁾은 신문에 실린 정보를 활용하여 교육 효과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스스로를 책임질 줄 아는 교양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다. 정문성, 김양은, 은지용, 최상희(2010)는 신문을 통해 정보를 얻고, 그 정보가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정보를 취사선택하며,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능력을 기른다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 NIE는 교육부에서 고시한 2022 핵심역량²⁾을 키우는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까지 활발하게 연구되었던 NIE는 2020년 이후에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NIE 연구는 2010년대까지 양적으로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김광재와 강신규(2013: 269)는 국내 NIE 연구를 크게 ‘NIE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NIE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NIE의 효과나 영향에 대한 연구’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NIE를 실천하고 있는 NIE 지도사들의 생생한 경험을 다루는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의 구체적인 실상과 문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경험과 목소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들은 오랜기간동안 현장의 변화와 그 원인을 나름의 의미체계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일석, 2019: 3)는 주장과 “보다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NIE 관련자들에 대하여 면접이나 참여관찰과 같은 보다 질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김동일 외(2013: 127)의 제언에 의의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에 처음으로 NIE 학회를 창립한 신문활용교육 지도사들의 지도 경험에 대한 본질과 의미는 무엇인지 현상학적으로 파악하는

-
- 1) 미국신문발행인협회가 발표한 NIE의 주요 목적에는 신문 자체에 대한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의 향상, 비평 능력의 향상, 사회 참여에 대한 동기의 배양 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민주사회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여 이끌어 갈 수 있는 시민이 되도록 돕는 것이 NIE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 2)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NIE 지도사의 경험에서 나타난 NIE 활동의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NIE 지도사의 활동 경험을 통해 나타난 NIE 효과는 무엇인가? 셋째, NIE 지도사의 활동 경험을 통해 나타난 NIE 한계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NIE(Newspaper In Education)의 개념

신문활용교육의 정의나 개념에 대해서는 교육계와 언론계 그리고 학부모, 학생 등 활용 단계와 방법, 가치 기준에 따라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안미영(2015: 92)은 NIE는 “신문을 교과학습에 활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즉 살아있는 교과서로서의 신문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종합적인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 이라고 하고, 이민규(2016: 231)는 “신문활용교육(Newspaper In Education)은 신문 지면을 활용한 교육으로 활자를 보고 느끼며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매체에 대한 비평, 감상, 수용, 창조적 제작 등의 활동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의도하는 일련의 활동”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오영수(2000: 102)는 “NIE란 신문 지면에 나타난 모든 자료, 즉 기사, 칼럼, 사설, 그림, 사진, 그래프, 광고, 만평, 만화, 삽화 등을 학습에 활용하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고 하였다. 가장 공통적으로는 국제 신문발행인 협회에서 정의하는 ‘학교에 유용한 보조 교재와 교수방법을 제공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미래의 신문 독자를 키우는 수단’ 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신문활용교육이란 신문지면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학습에 활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의도하는 교수- 학습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의 종합적 능력을 키워주는 살아있는 교육활동이며, 학교에 유용한 보조교재와 교수 방법을 제공하는 동시에 미래의 신문 독자를 키우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NIE의 발전 과정

“교육 속에 신문을 활용하자”라는 취지로 시작된 NIE는 미국·유럽·일본·호주 등으로 확산 되었다(임성관, 2015). NIE는 1930년대 미국의 대표적 일간지인 <뉴욕타임스>가 신문을 교실에 배포하며 처음 시작되었다. 청소년의 문자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학교 수업에 신문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1958년 미국 신문발행인협회(ANPA)가 NIE의 전신인 NIC(NewspaperIntheClassroom)를 주도하면서 본격 확산되었다(김광재, 강신규, 2015). 그 후 캐나다 일간신문 발행인협회가 신문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NIE 라고 명칭했고, 미국신문발행인협회 재단에서 1976년부터 이를 받아들여 ‘NIE’ 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김훈순(1994)에 따르면 일본 NIE 교육은 일본의 교사들 측에서 개인적으로 신문을 이용한 교육이 자체적으로 연구되어 오다가 신문협회의 도움으로 진지한 교육론이 검토되어 각 학교에 정식 교육방법으로 보급되었다고 한다. 당시 학생들의 문자이탈과 독서기피현상에 활자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미국과 유럽 등 여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NIE 운동을 도입했으며, 1992년 2월에 NIE위원회를 신설하였다. NIE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신문사와 학교 교육현장을 연결하여 교사 연수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독일도 1970년대부터 ‘학교에서의 신문교육’ 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시켜 전국으로 활발하게 확산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신문협회나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NIE를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서울시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NIE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와 여러 나라의 NIE 사례를 신문협회보 1985년 9월 15일자에 보도한 바 있는데 이 보도를 국내에 최초로 NIE를 소개한 사례로 보고 있다. 그 후 1994년 5월 7일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교과부 장관 앞으로 신문 활용 교육의 도입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고, 서한에는 “청소년과 어린이가 어린 시절부터 신문을 읽고 배우며 토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언론의식,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깨닫게 해야 올바른 현대인으로 자라날 것”(편집인협회보, 1994)이라 쓰여 있었다. 그 서한을 계기로하여 NIE 운동이 활발하게 확산 되었다.

3. NIE 관련 선행연구

“국내 NIE 연구 경향은 크게 ‘NIE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NIE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NIE의 효과나 영향에 대한 연구’로 나뉜다”(김광재, 강신규, 2013: 269).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관련된 NIE의 효과나 영향에 대한 연구,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효과나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청소년의 신문뉴스 활용교육(NIE) 효과 : 뉴스 이용, 뉴스 리터러시, 정치사회적 참여를 중심으로(송원숙, 2020), 중학교 과학 교과목의 지질학 영역에서 신문을 이용한 수업의 적용 효과(조진희, 1998), 한국적 NIE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김기태, 2010), 중학교 지리 수업에서 e-NIE를 활용한 과정중심 지리글쓰기의 적용 및 효과에 관한 실험연구(이형상, 2020)등이 있다.

송원숙(2020)은 청소년의 NIE 효과에서 단순한 학업 성취도 뿐만 아니라, NIE 경험과 활동은 청소년 개인의 의사결정능력이 향상되고, 창의력이 증진되며, 진로방향 탐색, 바람직한 인간관계능력 향상, 공동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밖에도 황유선, 박진우, 김위근(2011)은 NIE는 단순한 학습교육을 넘어 다양한 능력을 길러주는 다차원적 교육이며, 학생들의 통합적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높여 줄 수 있다고 하였고, 김기태(2010)는 독해능력, 비판력, 정보검색·분석·활용능력, 공동체 관심, 민주시민의식 고취등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조진희(1998)는 학업성취도 향상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수업의 태도나 반응에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고 밝혔고, 이형상(2020)은 교과에 대한 흥미, 지식의 활용, 정보의 이용, 가치·태도의 함양,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역량을 함양함에 있어 효과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 외에도 NIE는 뉴스를 능숙하게 소비하고 해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라는 연구결과도 발표했다.

위의 선행연구들의 효과성을 종합해 본 결과 NIE는 의사결정능력, 창의력, 공동체에 관한 이해, 정보처리 능력,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학습이라 할 수 있다.

둘째, NIE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로는 독서 운동과 NIE 활동의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임성관, 2015),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NIE 활성화

방안 연구 :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김광재, 강신규, 2013), NIE 실태 및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설규주, 김명정, 이봉민, 2011), 국내 NIE 현황 조사 연구 :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김동일, 정문성, 최상희, 강은비, 연준모, 2013)등이 있다.

임성관(2015)은 독서 운동과 NIE 활동의 연계를 위해서 국가 차원의 독서 진흥 정책에 신문 읽기를 포함시켜야 하며, 국가 교육과정에 NIE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김광재, 강신규(2013)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맞는 제도 마련, 디지털 교과서 제작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신문사는 종이신문 지원과, 광고를 제거한 온라인 기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재 외(2013)는 신문의 기사를 활용하여 도덕교과에 적용할 수 있는 NIE수업 모형을 제시했다. 설규주 외(2011)는 절반 이상의 교사들이 수업에서 NIE를 활용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교과 수업을 보완하는 전통적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며, 독립된 NIE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동일 외(2013)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NIE 관련 업무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NIE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업무 지원이 미흡한 부분이 아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 방법

1. 질적연구 방법으로서의 현상학

현상학적 질적연구란 인간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그 체험을 바로 그 체험이게 만드는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분명하게 기술하고, 이를 통해 체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Creswell(2007)은 현상학적 질적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적 의미를 기술하며 현상학자들은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현상을 경험하면서 공통적으로 갖게 된 것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둔다. 즉, 인간의 체험을 살펴보고 그 체험 속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요소나 구조를 밝히는 것이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질적연구방법론Ⅱ:Methods, 2013).

즉, 현상학적 질적연구는 한 사람의 삶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생애사 연구와 달리 특정 현상(보육종사자들의 경험, 간호사의 환자 돌봄 등)에 대하여

여러 개인들이 체험한 바에 대하여 의미를 기술하고 본질적 구조를 탐구하는 방법이다(전영국, 2017).

가. Colaizzi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서 Colaizzi(1978)의 연구 방법을 사용했다. Colaizzi 연구방법은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적이면서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며, 그 의미들을 주제묶음으로 범주화 한 후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방법이다. 데이터 분석방법의 변형은 연구 참여자들의 기술을 함께 살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연구참여자의 기술에 대해 따로 분리하여 비교 분석하고 확인하는 분석 방법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NIE 학회’를 창립한 NIE 지도사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NIE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개인의 경험들에서 보편적 본질을 찾아 기술하기 위해 질적연구 면담기법 중 현상학적 연구를 사용하였고, Colaizzi의 분석 방법과 절차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 참여자

<표 1> 연구 참여자

순번	가명(연령대)	성별	학회 활동 기간	경력
1	k(50대 후반)	여	2006~현재	초대 고문 NIE 경력 18년째
2	e(60대 초반)	여	2006~2013	1대 회장 역임 NIE 경력 18년째
3	h(50대 중반)	여	2006~2021	3대회장 역임 NIE 경력 18년째
4	o(50대 초반)	여	2006~현재	4~5대 회장역임 NIE 경력 18년째

본 연구에서는 ‘NIE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를 위해 대상자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표집을 사용하였고, 적절성과 충분성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을 정하였다.

적절성으로는 주제에 대해 가장 세세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로 4명의 연구대상자 모두 30~40대에 ‘제주 NIE학회’를 창립한 창립기이며, 학회의 고문이거나 회장을 역임한 사람들이다. NIE 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면서 학회와 신문사, 기업(JDC)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해나갔고, 제주에 가장 먼저 NIE를 정착시키고 확산시킨 대표 주자들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2005년도부터 NIE를 배우고 가르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18년째 수업에 활용하여 지속하고 있다.

충분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연구 현상에 대해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위한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심임숙, 2022)을 바탕으로 1차 면담은 2023년 4월~6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2차 면담은 7~8월에 진행이 되었으며, 3차 면담은 10월에 진행되었다. 1~2차 면담까지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약 1시간30분~2시간에 걸친 심층면담으로 진행되었고, 3차 면담은 면담 내용을 코딩하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문자나 통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3. 자료 분석

가. Colaizzi분석 단계 및 과정

본 연구는 현상학적 질적연구 학자들이 제안하는 현상학적 분석 절차 중에 Colaizzi의 분석 절차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Colaizzi의 분석 방법은 주체의 관점을 서술한 것 중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진술을 묶어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해 내는 것이 특징이다(강윤진, 이인희, 2021). 따라서 연구대상자들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고 신문활용교육 지도 경험에 대한 사실적인 구조를 파악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Colaizzi의 단계 자료분석 방법에 맞춰 본 연구의 분석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자료의 분석 단계 및 과정

단계	내용	과정
자료의 검토	수집된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읽고 그 안에 포함된 의미들	녹취한 면담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전사한 자료와 현장 일지를 바탕으로 각

단계	내용	과정
	을 발견한다.	각의 의미들을 발견하였다.
의미나 주제의 추출	의미나 주제를 추출하여 그것을 범주화한다.	발견한 의미들을 코딩하고, 코딩한 핵심 개념들을 범주화하여 26개의 의미단위를 형성했다.
의미나 주제 단위로 진술을 통합	범주화된 의미나 주제 단위의 진술들을 따로 묶어 여러 개의 의미 단위를 구성한다.	26개의 의미단위를 다시 10개의 주제와 3개의 범주로 나누었고, 그 결과를 지도 교수님, 박사 1명, 박사과정 동기들과 함께 검토하였다.
의미나 주제 단위로 묶인 자료에 대한 성찰	의미나 주제 단위로 묶인 각각의 의미 단위에 대해 성찰하여 그것의 의미를 밝힌다.	주제로 묶인 각각의 의미단위에 대해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 비교·분석해 나가는 작업을 하며 NIE 지도사들의 경험의 의미를 찾아내고자 했다.
의미나 주제에 대한 통합적인 구조적 진술의 구성	각각의 의미 단위에 대해 성찰하여 그 의미나 주제에 대한 개념화를 한다.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각각의 의미단위에 대한 성찰을 하고, 통합적인 구조를 찾아내고자 하였으며, 그 주제에 대해 개념화하는 작업을 하기위해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4. 연구의 신뢰성 확보

가. 삼각측정

어떤 사실에 대한 이해는 특정한 한 가지의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자료에 의존하였을 때 그 연구 대상에 대한 탐색과 이해가 보다 정확할 수 있다(Mathison, 1988). 따라서 상이한 두 가지 이상의 방법들이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였을 때, 연구자가 내린 연구 결론이 보다 신뢰로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김영천, 2006). 트라이앵글레이션은 질적연구의 자료의 타당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연구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사실을 가감없이 기술(이근호, 2007)하기 위해 삼각측정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과정은 첫째, 연구자가 진행한 분류가 다른 연구자가 분류한 의미군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3명의 전문가에게 각각 독립적으로 의미군 분류를 부탁하였다. 둘째, 이러한 의미군들이 기존의 관련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셋째, 연구자가 추출한 의미군들의 분류를 연구대상자들이 수용하는지 확인하였다.

나. 연구 윤리

이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연구 윤리 문제에 대하여 깊이 고려하여 모든 연구 과정과 목적을 연구에 참여하는 면담자들에게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는 연구 동의서 서식에 직접 자필 서명하였다. 연구 참여 결과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연구의 과정에서 수집된 면담 녹음 파일, 전사 파일은 연구자 본인과 면담을 분석에 도움을 줄 동료연구자 외에는 일체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연구가 끝난 후에는 녹음과 전사 파일이 지워질 것을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모든 전사 자료에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영문 이니셜과 의미단위 번호를 사용하였으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할 것을 약속하였다.

다. 괄호치기

연구자는 판단중지를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을 괄호 안에 집어넣는 괄호치기를 해야한다, 연구자는 연구주제의 설정 이후에 그 주제와 관련된 선개념이나 선이해등을 명확히 밝혀두고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판단중지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연구자가 NIE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NIE가 창의성 키우기에 참 좋은 도구라는 생각을 했으며, 기사보다는 사진, 광고, 단어, 운세표, 일기예보 등을 사용하여 재미위주의 수업자료를 만들고 자녀들과 집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NIE를 좀 더 배우고자 ‘제주 NIE 학회’에 가입했고 학회 창립기들과 스터디를하면서 학회 행사인 전시회, NIE 대회, NIE 연재 등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창의력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석사논문 <NIE 활동

과 아동의 창의력 신장에 관한 실험연구>을 쓰게 되었다. 기회가 와서 조선일보와 한국신문협회에서 주최하는 NIE 전국대회에 아이들을 참여시켰고, 예상외의 좋은 결과로 시상식이 이루어지는 서울에서 다른 지역의 수상 작품들을 볼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는 수 년간 지속되었다. 그런 경험은 나의 NIE를 넓히는데 큰 역할을 해 주었다.

하지만 학회는 NIE를 펼치려는 날개를 자꾸 접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탈퇴를 했고, 그 후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대로 18년째 NIE를 해오고 있다. 10년 전부터는 행복교육문화센터를 만들어 NIE를 이어가고 있는데 NIE 민간 자격과정을 개설하여 2급 지도사와 1급 지도사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나 한국신문협회에서 진행하던 NIE 대회가 사라지게 되자 연구자가 직접 센터에서 NIE 공모전을 만들어 8년째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센터는 ‘NIE의 효과를 아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정보력이 있는’ 일부 자녀들만의 리그였기에 NIE 사각지대의 아이들과의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 NIE가 학교 교과목이 되어야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 지도사들이나 교사들이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행복한 NIE] 1학년용에서 6학년용까지의 교재를 만들게 되었다.

이런 연구자의 경험이 이번 연구에 편견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 면담에서부터 분석단계까지 연구자의 선이해는 무엇인지 자기분석을 되풀이하였다. 연구자가 선 이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NIE는 ‘어휘력·사고력·창의력·인성의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이런 역량을 갖춘 통합적인 인재는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큰 힘 될 것이다.’, ‘지속적인 NIE는 결국 학교 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적극적인 참여 자세를 가지게 되어 리더십을 가지고 학교 행사나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반면 연구자가 생각하는 NIE의 한계는 ‘지도사의 창의성이 부족하면 NIE를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도사 양성과정을 만들고, 쉽게 자격증을 줄 것이 아니라 오랜시간 배우고 적용하여 전문성을 갖춘 후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IV. 연구 결과

<표 3> NIE 지도사들의 신문활용교육 지도 경험 분석

범주	대주제	소주제
자기 주도적 삶의 태도	오랜 갈등을 해소해 준 NIE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해주고 싶어
		·능동적 참여 수업과 자기주도학습
	NIE 학회의 창립, 그리고 갈등	·NIE의 이론적 체계가 잡히지 않아 혼란과 갈등
		·목적이 다른 스터디와 엇박자
		·학회는 주인의식도 이끌어 갈 힘도 없는 상태
	각자의 텃밭에서 뿌리내리기	·각자의 NIE 색깔 가지기
		·개별적으로 독서동아리를 이끌다.
	NIE에서 찾은 삶의 의미	·그게 옳기 때문에 해야 한다.
		·공동체를 만들어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핵심 역량 강화	미디어리터러시 향상	·어휘력 향상
		·정보 취사선택 능력 향상
		·비판적 사고능력 강화
	건강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자기 주도 학습 능력
		·사회에 대한 관심 증가
		·다양성 존중
한계 받아 들이기	신문 자체가 가진 한계	·정치적 도구가 되어버린 신문
		·구독료 부담
		·주교재보다는 보조교재로서의 활용도
	지도사의 역량 부족	·직접 차려야 하는 밥상
		·낮은 수준의 욕구
		·읽지 않는 지도사

범주	대주제	소주제
	시대의 변화	·변화되는 미디어 환경
		·새로운 교육도구와 교육방법이 쏟아져
	교육적 협력관계의 미흡	·학교교육에 스며들기 어려운 NIE
		·뿌리가 약한 사회교육기관
		·양성기관의 부재

1. 자기주도적 삶의 태도

자기주도적 삶의 태도의 범주에는 ‘오랜 갈증을 해소해 준 NIE’, ‘학회의 창립, 그리고 갈등’, ‘각자의 텃밭에서 뿌리내리기’, ‘NIE에서 찾은 삶의 의미’ 4개의 대주제로 나누어 구분되었다.

가. 오랜 갈증을 해소해 준 NIE

독서지도를 받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교육방법을 찾아다니다가 NIE를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교육방법인 NIE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아이들도 수동적으로 받아왔던 수업에서 신문을 오리고 붙이는 생동감 있는 수업에 흥미를 느꼈으며 스스로 말주머니도 만들어 채워보고 낱말도 붙여보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초반의 NIE는 전체적으로 생동감과 재미가 느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조선일본가 중앙일본가 모르겠다. 교육을 제주에서 할 기회가 있어서 그 선생님들이 서귀포에서 했는데 되게 좋더라고. 그때 했던 게 이제 창의성 부분에 NIE야.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책이라는 것이 새로운 정보나 창의성에 대해서는 조금 모자람을 느꼈기 때문에 NIE가 그 갈증을 조금 식혀주겠다고. h367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만나면서 교육적인 기법이 필요했어. 그래서 독서지도 받았고, 글쓰기 받았고, 거기서 파생되는 것 중에 하나로 NIE를 받게 되었어. 봉사하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남는 시간을 무엇을 할까? 그걸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프로그램이었지. o366.

당시만 해도, 98년 그때는 그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되게 아이들이 일단은 오리고, 자르고, 붙이고 그런 작업이 생동감이 있었다고 해야 하나.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료를 스스로 생각해서 말풍선도 그리고 편지지도 그리고 하면서 모든 걸 스스로 해보는 거지. 스스로 구성을 하면서 표현 활동을 하니까 공부를 좀 뭔가 하고 있는 듯한 느낌. k98.

일단 나는 재미가 있었어, NIE 수업이. 신문에 있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는 거잖아. 자료도 되게 많잖아. 그리고 되게 즉각적이잖아, 현실감 있고.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듣지 않고 스스로도 생각해 보고. 낱말도 만들어보고, 자기 주도적으로. 그럴 때 나는 좋더라고, NIE가. e334.

나. 학회의 창립, 그리고 갈등

학회를 만들고 스터디를 하다보니 NIE 개념이 정립이 되지 않아 혼란이 시작 되었고, 스터디를 하였지만 제대로 된 연구는 하지 못했고 학회에 필요한 행사 위주의 스터디만 하다보니 엇박자가 났으며 그로부터 갈등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유로 하나 둘씩 학회를 탈퇴하고 현재는 얼마 남지 않은 인원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행사를 치를 힘도 없고, 무엇보다 학회원들의 주인의식의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때 000선생님을 주축으로 해서 학회를 만들고 시작을 했지. 그런데 중앙일보에서 받은 내용하고 000선생님은 좀 달라. 결이 좀 달라가지고. 나는 처음에 중앙일보에서 받았기 때문에 실은 거기에 좀 흥미가 많았었는데. 그 혼란이 먼저 있었고, 스터디의 방향도 나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 NIE가 뭐냐? 이렇게 되고. h85.

우리 학회 내에서도 우리가 NIE에서 배운 기법들을 다 영어로 만들어 버려. 대표적으로 ‘체인지 메이킹?’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해. 그럼 난 학회원들이 그럴 때마다 “그거 꼭 영어로 그렇게 불러야 돼? 우리가 NIE에서 다 해 온 거잖아” o66.

전시회를 하는 것부터도 그랬잖아, 내가. 테이프커팅 왜 해야 되냐고. 그냥 nie 연구만 하면 안 돼? 그러면 우리도 성장할 것이고 제대로 우리가 탄탄해지면 말할 때 자신감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나는 한라일보 자문위원 되어서 기사 쓰는 것도 원치 않았어.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아이들한테 풀고, 풀어놓은 결과가 나와서 그걸 연재해야 하는데, 연재를 하

기 위해서 우리 애들을 마루타로 쓰는 거야. 나는 그거 너무 싫어. 거기서 막 엇박자가 나고. 이게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받아버리니까 막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고. e196, 221.

내가 가르칠 아이에 대한 스터디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 보다 학회에 필요한 거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연구는 못했다고 봐야지. h177.

회원들의 탈퇴가 하나들 이어지고 신입회원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어. 물론 학회의 방향이나 정체성을 논하자는 의견도 많았고,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 학회의 방향을 다시 세우자는 의견도 많았지.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어.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서 주도하고 이끌었으면 혹시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지다만 . 전체를 이끌 힘도 없었고, 모두가 주인이라는 의식도 없어서 그냥 시간이 흐르는데로 현재까지 와 있는 것이지. o394.

다. 자신의 텃밭에서 뿌리내리기

지도사들은 각자가 NIE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NIE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연구하여 지금은 자신만의 NIE 색깔을 가지게 되었다. ‘감수성 키우기’, ‘추론 교육’, ‘세상 읽기 교육’, ‘정치 교육’의 색깔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을 아이들에게 펼치고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소규모 독서 동아리를 이끌며 읽기를 생활화 하고 있다.

감정수업을 하는데 난 NIE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됐고. 내담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NIE에서는 그 단어를 이끌기가 너무 쉬웠다. 왜냐하면 자기가 끄히는 단어를 찾으면 되니까. 또 아이들한테도 내 감정을 알고 내 감정을 표현하고 이제 이렇게 글로 쓰게 하기에는 NIE가 대단히 좋은 영향을 줬다. h157.

우리가 NIE 수업을 할 때 추론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결국 창작역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상상해보는 거지. 이게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추적하고 그 원인에 대한 원인을 추적하고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 하다 보면 공감 능력도 생겨나는 건데. e306.

내가 이것을 관심을 갖게 될 때와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을 때를 비교했을 때는 ‘사람이 정말 천지 차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 사실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읽기 교육, 그러니까 ‘세상 읽기 교육’ 세상을 읽어야 된다. 세상 공기를 마시듯이 또 해야 될 거 있으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민이다. 이게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가는 길이다. k249.

아이들이 그 정치의 룰이나 정치의 세상이나 그 정치가 돌아가는 거를 알았으면 하는 거지. 민주시민, 결국은 건강한 민주시민의 어떤 의식을 기르는 거 아니? 정치 교육이라는 게 넓게 보면 그거지만 실질적으로 정치가 무엇인지를 나는 가르치고 싶어. 신문을 통해서. 그게 왜냐면 신문 아니고는 다른 길로는 못 가르쳐. 우리 신문 읽기가 좋은 건 신문을 펼쳐놓으면 다양한 게 한눈에 다 있어. o160.

꼭 읽어야 되는 책하고 있잖아. 소설책도 필요하지만 그런 좀 깊이 있는 책들 있잖아. 근데 그건 혼자 힘들면 같이 모여 같은 책 읽어서 말을 해보는 거야.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의미 같다. 나는 이런 것 같다 하면서. e17.

조금 더 좀 독한 독서? 독한 토론? 조금 공부다운 공부? 그런 걸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제 진짜 뭔가를 하고 싶다면. 그 정도로 간단하지가 않다, 세상이. k345

라. NIE에서 찾은 삶의 의미

일상에서 아이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인식에서 행동까지 이어져야 함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게 옳기때문’이라고 한다. 지도사들은 사회에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하는데 그 보람된 일이란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사회에 이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기에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나이’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

상위권 애들 있잖아. 그 애들한테 너네는 너네가 받는 무한한 혜택에 대해서 왜 저희가 그걸 자꾸 받아야 되는지 질문 한번 해봤나? “너네 왜 안하는데? 너네 알잖아. 경시대회도 니네한테 우선권을 주고, 뭘 할 때도 니네 우선권 주고, 우선권 다 주는데 니넨 뭐라서 그렇게 당연하게 그걸 받

는데? 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도 문제잖아” 난 좀 이렇게 해. 사실은 그런 아이들이 인식이 안 깨면 나머지 아이들은 기회가 없어. 나 꼭 행동하게 해. 왜냐면 그게 옳으니까. o22

우리 사회는 여러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사회에서 보람된 일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런 거는 정확히 잡히는 것 같아. 꼭 그런 데(공청회, 봉사 등) 안 가더라도 고민을 하는 거지. 어쨌든 그런 고민은 계속되는 것 같아 그래서 공동체 만들고 해보자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켜주고 내가 태어났으니 사회 이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노력은 언제든지 한 것 같아. 우리가 혼자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단체라든가 그런 쪽을 고민하게 되지. h2.

교육감, 교육의원 만나러 갈 때 나 갈 수 있어. 지금 우리 나이가 그런 걸 해야 하고, 대빵들이 다 우리 나이. 그 쪽에 거기 대빵들이 있으니 스터디를 계속하면서 학부모 동아리도 만들고 연구자 동아리도 만들고, 이렇게 분야가 조금 다르지만 같이 뭔가 통합해서 행사도 치르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다 해줘야 돼. k225.

NIE 지도사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구’에서 NIE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에 NIE 의미를 두고 있으며 그 생각을 각자 실천해 나가고 있다. 학회 설립 후 각자가 생각하는 NIE 목적과 학회의 목적이 달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자기주도적으로 문제해결을 해나가면서 결국 자신이 생각하는 NIE를 찾았고, 지금은 각각의 NIE 색깔에 뿌리를 내리고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주도적학습은 결국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이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핵심역량강화

연구의 결과 NIE의 효과로는 ‘미디어리터러시 향상’과 ‘건강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2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가. 미디어리터러시 향상

신문에 있는 다양한 어휘들을 자주 접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어휘력이 향상

되고, 어휘력은 글을 잘 이해하게 만들어주고 어휘력이 좋아질수록 새로운 지식이 많아졌다. 어휘력은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보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취사선택하게 도와 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읽기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는 능력을 키워준다. 그리고 비판의식은 실천 의식과 연결된다고 한다.

일단은 신문과의 친밀도를 좀 높이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려면 문장, 어휘나 이런 것들이 신문에서 자주 보이니까. 만약에 영어도, 어려운 낱말도 자주 보다보면 자기 것 같아지지? 원활하게, ‘원활’이 너무 어렵잖아, 근데 ‘원활하게’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라. 그럼 ‘원활하게’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지는 거라. 어려운 낱말도 신문에 꽤 있으니까 자주 노출되면 그 낱말이 익숙해지고. 우리도 어휘력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k52.

글을 잘 파악을 하다 보면 다른 것도 좋아져. NIE를 하면, 성과는 뭐 점수로 나오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이해하는 게 달라. 그게 금방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에 익을 때까지 좀 시간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한 단어를 알기까지는 여러 번 반복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속하고 하니까 글이 잘 익히지.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정보를 알게 되니까 좋아하고. 단어 공부라 될수록 애들은 굉장히 지식이 많아졌다. 새로운 지식인 거지. h119.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에 이 세대의 아이들은 어떤 걸 깊게 읽어야 되는데 빨리 지나가버리는 영상 세대니까 정보를 취사 선택하기 어렵단 말이야. 어떤 게 옳은지, 이게 진짜 기사인지 가짜 기사인지도 모르고 무분별한 기사들이 너무나 많잖아. 그거를 읽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힘도 길러지는 거지. h30.

세상 읽기와 더불어서 비판적 읽기. 그런 것이 길러질 수 있다. 관심 갖고 이해하고 또 비판적으로도 생각해 보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거지?’ 실천 의식,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비판적 읽기와 토론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신문을 활용해서 그런 걸 함양하기에 참 좋은 도구라 할 수 있지. k310.

나. 건강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혹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문자료를 선택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나가는 스크랩은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신문은 책과 달리 실제 살아있는 우리의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다양한 시각으로 하나의 사건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신문들이 자기 색깔이 있다는 점을 오히려 교육적으로 활용하면 더 좋을 수 있다고 한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도 NIE 스크랩은 어마무시한 효과를 보는 거야. 대학 가서, 직장 가서까지 정말 자기주도 학습의 기본적인 게 우리 스크랩이지. 숙제를 내면 애들이 맨날 징징하면서도 집에서 다 하고 와. 그리고 나도 지금까지 스크랩 해. o230.

아이들이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어쨌든 좋았던 것 같고. 교사가 기본 틀만 제공하면 스스로 자료도 선택하고, 활동지도 스스로 만들고, 그 활동지 안에 집어넣는 것도 자기가 하고. 그런 것이 가장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만드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거지. k343.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읽다 보면 “아!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고 있네?” 이런 것들도 보이니까. 사회에 관심도 갖게 되고. e357.

워낙 신문들이 자기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대신에 그런 거는 여러 신문을 봐야 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보게 되니까 아이들이 한 사건에서 이 시각도 있고 저 시각도 있고 다양한 시각 중에 내 시각을 끌어내는 것이고. h18.

단어의 노출은 어휘력을 향상 시켜주고 어휘력은 세상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쏟아지는 정보를 취사선택 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어휘력은 선택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며, 비판의식은 실천의식으로 이어진다. 또한 NIE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길러주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다양성을 존중하게 되는 건강한 민주 시민이 되도록 도와준다.

3. 한계 받아들이기

NIE의 한계로는 ‘신문 자체가 가진 한계’, ‘지도사의 역량 부족’, ‘시대의 변화’, ‘교육적 협력 관계의 미흡’의 4가지로 분류되었다.

가. 신문 자체가 가진 한계

정치적 도구가 되어버린 신문의 기사는 뭐가 진짜이고 뭐가 가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신뢰 할 수 없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NIE 수업을 하려면 하나의 사건을 비교하며 읽어야 해서 신문 두 개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고, 돈을 내고 볼 만큼의 좋은 가치를 전달하느냐를 따졌을 때 다른 무료 매체들보다 더 나은 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NIE 수업에서 신문자료만으로 수업하는 것보다 다른 매체들과 같이 해야 확장성을 펼 수 있다고 한다. 즉 주교재라기보다 신문은 그 자체로 보조교재가 된다는 점을 한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신문은 한마디로 정치적이 돼버려서 그래. 아주 정치의 도구가 돼버렸어. 신문 자체에 대한 신뢰감은 떨어져버렸어. 정치 편향적이라고 해야 하나. 노골적으로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신문을 안 보기 시작했지. 신문에 있는 정보들에 대해 거짓 정보 그러니까 정치적 가십거리들. 너무 그러니까 그거를 걸러낼 수가 없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가짜인지를. k100.

두 개 이렇게 신문을 받잖아? 근데 그 신입 선생님들은 그거 받아 놓으면 신문은 쌓이고 돈도 아까운 거야. 지금 뉴스 다 여기 있는데. 사실 우리 선생님들 이게 유지가 안 돼. o114..

모든 국민이 다 인터넷을 설치해서 집에서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뉴스도 다 되는 거라. 영상도 다 되고, 노래도 다 들을 수 있고 근데 별도로 종이신문을 왜 보겠냐? NIE 하려면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새로 받으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겠냐? 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지. k352.

nie를 갖고 수업을 할 경우에 그냥 신문만 갖고 할 수도 있지만 확장성을 띠기 위해서는 그림책도 갖다 붙이고, 그냥 책도 갖다 붙이고 그러면 더 풍부해지지. e148.

예를들어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활자로 된 신문만 보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기도 하고, 이게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왜? 영상이 새로우니까. 그런 것들을 어찌면 많이는 아니어도 다른 자료를 이용을 하면서 넘나들 수 있어야 해. h10.

나. 지도사의 역량 부족

독서수업과 다르게 NIE 수업은 먼저 매일매일 달라지는 신문을 읽고, 스스로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즉 스스로 ‘밥상을 차려야’ 하는데 그것을 귀찮아하고 차려진 밥상을 원한다는 것을 한계로 지적했다. NIE를 제대로 하면 비판의식이 생기고, 비판의식이 생기면 실천해야 할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불편하여 비판의식까지 가지 않고, 활용 방법만을 알려주길 원한다고 한다. 또한 무엇보다 읽지 않는 지도사들을 큰 한계로 지적하고있다.

NIE는 자기가 모든 걸 해야 돼, 자기가 찾아야 되고. 책은 딱 정리가 돼 있어. 거기를 읽고 요약만 하면 돼. 음식을 다 차려 준 거야. 근데 이 NIE는 음식 차리는 것부터 스스로 해야 돼. 귀찮고 되게 피곤한 거야. 대부분은 차려진 밥상을 원하지. k316.

지도사들이 보통은 그냥 낮게 낮게. 어떻게 활용하는 거 빨리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활용법까지만 알고 싶은 거야. 그다음 단계, 정말 제대로 세상 읽고, 비판의식 생기고 그러면 실천해야 될 것들도 막 보이고. 이런 비판의식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해. k137.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사 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 10만 원, 여기 15만 원, 여기 8만원 하면 그럭저럭 한 달 별이가 된단 말이야. NIE에만 치중하지 않아. 그냥 단타로 하는 거지. o368.

000 선생님께서 신문 읽기 해라 계속 얘기했어. 신문 읽기 해라. 지도사가 신문 읽기 안 하면 할 수가 없다. NIE가 너무 조잡하고, 복잡하고, 자기가 신문을 읽지 않으면 전혀 해낼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 o167.

다. 시대의 변화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하는 강사양성 교육을 받은 학회 회원들이 영상미디어 쪽으로 빠져나가서 NIE 학회엔 회원이 거의 없다. 그런데다 좋은 영상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데 꼭 신문로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새롭고 다양한 학습도구들이 만들어져 판매되다보니 신문에서 자료를 찾아내는 것은 번거롭고 세련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교육방법 측면에서도 새롭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이 많이 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NIE는 재미가 없어서 끼워주지 않는다고 하며 NIE도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 kkk 선생님의 파트는 새로 밀려드는 정보에 밝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확 동참했 가버려. 그래서 그쪽 선두 주자로 가버리면 결국은 이제 000선생님 닮은 사람만 남는 거야, 나 닮은 사람만. 사람이 거의 없어. o146.

오히려 좋은 영상들이 더 만들어지고 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한. 다큐멘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식 채널, 좋은 다큐멘터리, 기획 시리즈물, 영화, 애니메이션, 오히려 좀 더 좋은 예술가들에 의해서 제작된 영상물들. 그런 것들이 더 좋은 자료다 라는 평가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데 우리의 정치 문제, 국가보안법,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도 「변호인」이 더 좋다, 이렇게 되는 거지. k84.

근데 요즘은 이제 자기 표현하기 위 자기를 표현하는 도구들도 막 개발 되는 거야. 아이스 브레이크 도구들, 사진 도구들. 이것도 하나의 학습 도구를 만들어내는 회사에서의 상품화 노력과 전략에 의해서 이제 개발되고 판매되고 그렇게 하는거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쨌든 그걸 또 신선하네? 해가지고 배우는 거잖아. k39.

작년에 내가 장애인식개선하면서 한 15개 학교 가봤거든? 가보니까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왔더라구. 우린 재미 없어서 못 낀다. 이미 대중성에서 물러나 있기 때문에. NIE 대회를 해도 참가자도 없거니와 하는 나도 재미없어. 그리고 맨날 해보니까 이제 재탕인 거야. 뭔가 NIE도 새로운 게 필요해, 새로운 게. o3.

라. 교육적 협력 관계의 미흡

NIE가 학교 교육에 스며들기 어려운 이유로 학교의 교사들이 귀찮고 번거로워서 수업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고, 신문이 정치적이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기 더욱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학회가 탄탄해지려면 NIE에 대한 연구결과가 들어있는 논문이 있거나, 교수님을 고문으로 세우거나, 혹은 다른 학회랑 연결해서 조직을 탄탄하게 해야 하는데 탄탄하지 못해 협력이 어렵다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 NIE 지도사 양성과정 있어야 새롭게 배우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그들이 모여 연구를 하고 적용할 곳도 생겨가는데 삼박자가 꿰진 점을 한계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NIE에 우수한 학생들을 받

굴하고 제자로 길러내야 하는데 그것마저 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계로 드러냈다.

학교 선생님들도 귀찮지. 번거롭고 또 시간 많이 걸리잖아. 찾는데 20분, 찾아서 붙이고 한 문장 쓰는 거 시간 걸려.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거야. 공들이는 데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 k275.

신문은 교과목에 넣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신문사의 색깔이 너무 강한데 그걸 교과목에 놓으면 아이들한테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야 하는데 기사들이 정치 편향적일 수 있고. h171.

논문 딱 갖다 봐야 돼. 어떤 결과지. 우리끼리 하든 아니면 어느 학회랑 연결해서 좀 해야 돼. 아니면 제대 교수님들하고 연결된 고문 교수님 모셔서 교육감 찾아가든가 해야지. 조직이 그런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거기까지 안 갔지. o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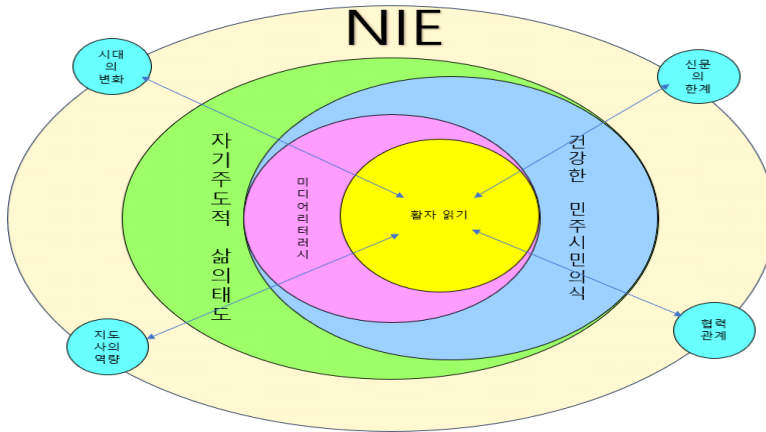
이건 이 단체가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NIE 학회가 제민일보라든지, 한라일보하고 이렇게 연결하려면 그 사람들에게도 메리트가 있어야지. e108

일단 전문적인 강사,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맥이 딱 끊겼어. 그거 다 삼박자가 다 이렇게 어우러져야 돼. 그 전문적인 그런 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든지 뭐든지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배출해 내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나와서 연구를 하는 거지, 자기네들끼리. 그리고 연구만 하면 뭐 해. 연구한 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지. 어딘가로 나와서 수업을 한다든지. 삼박자가 이렇게 연결되면 다시 부활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게 다 죽어버린 거야. e150.

일고(제주제일고등학교)나 제주여고는 계속 NIE 동아리 지도를 하거든? 근데 가보면 NIE에 뛰어난 애들이 있어. 그런 아이를 만나는 기쁨들. 너무 좋아. 근데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대회나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아이들을 모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 쪽에 한계는 제자를 기르고 있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 o188.

시대의 변화로 인하여 활자로 된 신문을 보지 않게 되었고, 신문이 정보취득의 주연에서 조연으로 밀려남에 따라 교육에서도 보조교재 신세에 머물게 되었다. 그런 변화로 인하여 줄어드는 수요는 NIE 지도사 양성기관등의 부재

를 낳아 지도사의 역량을 탄탄하게 키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지도사의 역량부족은 협력관계를 맺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NIE 지도사들은 이런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한계의 진단으로부터 어떻게 나아갈지 자기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그림 1] NIE와 활자 읽기의 관계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교육기관인 ‘제주 NIE 학회’를 창립한 NIE 지도사 4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오랜시간 현장에 몸담으면서 경험한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질적연구 중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탐색하였다. 심층면담을 통해 드러난 신문활용교육의 지도 경험은 3개의 범주, 10개의 대주제, 26개의 소주제로 분류되었고, 3개의 범주는 각각 ‘자기 주도적 삶의 태도’, ‘핵심역량강화’, ‘한계 받아들이기’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스크랩은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길러주는 교육 방법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주제에 맞는 신문 기사를 찾아보고 학습내용과 연결하여 이해하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해진다는 구정화(201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강은미(2012)의 ‘알게 된 정보로부터 또 다른 차원의 정보를 알고 싶은 욕구가 생성’되는 데 이것이 바로 자기 주도

적 통합 학습의 기초이라는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오희정(2020), 양애정, 조호재(2009)의 연구처럼 자기주도학습과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신문을 이용한 수업이 전통적인 수업에 비해 학업 성취도 향상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조진희(1998)의 연구 결과와는 대조적이다.

스크랩은 같은 날짜, 같은 신문을 읽어도 사람에 따라 내용, 중요성, 필요성, 흥미, 관심, 연령 등 선호하는 정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최상희, 조현수, 2007) 자신이 선호하는 자료를 골라 붙이고, 생각을 쓰는 모든 과정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 교사는 이때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조언을 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학생중심 수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스크랩을 하려면 신문을 꼼꼼하게 읽어야 하는데 신문을 읽으면서 알게 된 정보로부터 그 정보와 파생되어지는 다른 정보를 알고 싶은 욕구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 주도적 학습의 기초이고 동기화라고 할 수 있다(강은미, 2013). 이처럼 자기주도적 학습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스스로 선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기고, 그 호기심은 탐구력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기주도학습은 학업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오희정(2020)의 연구결과와 자기주도적 학습이 교사 주도 학습에 비해 학업성취도에 효과적이라는 양애정, 조호재(2009)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하지만 신문활용교육이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조진희(1998)의 연구결과를 들여다보면 10차시에 걸친 NIE 수업으로 변화를 연구한 것이라 큰 결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점차 수업이 진행될수록 자료를 찾거나 발표하고 다른 사람의 조사에 대해 질문하는 태도가 향상된 것”이라는 점과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주제 이외의 정보를 더 알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면 오랜시간 NIE를 지속하다보면 호기심이 탐구력으로 이어지고 배경지식도 넓어져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NIE 지도사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교육을 스스로 찾아나섰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임했으며, 갈등상황에서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갔을 뿐만아니라 자기만의 학습의 목적을 세우고 탄탄하게 뿌리를 내렸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갈등으로 시작한 NIE가 현재는 자신의 경험을 공동체에 기여하고 싶다는 삶의 태도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이들도 누군가에 의해 결정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고 결정

하며 그 결정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이 필요하며, 그런 주체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을 길러주는 일이 우선된다.

둘째, NIE는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NIE의 효과로는 읽기능력 향상, 정보취사선택 능력, 비판적 사고능력의 향상을 하위요소로 한 미디어리터러시 영역과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 사회에 대한 관심, 다양성 존중을 하위요소로 한 건강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이다. 이 결과는 김기태(2010)의 연구에서 밝힌 독해능력, 비판력, 정보검색·분석·활용능력, 공동체 관심, 민주시민의식 고취 등이 NIE 효과를 지지한다. 또한 이형상(2020)의 지식의 활용,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역량을 함양 함에 있어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한국신문협회는 2005년 9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초, 중, 고교(18개 학교 54개 학급) 학생 20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에 대한 관심증가, 읽기능력 향상, 정보취사선택능력, 비판적사고능력, 지식정보처리 능력, 의사소통능력, 자기관리능력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본 연구결과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한국신문협회의 연구는 교육부에서 고시한 2022 핵심역량³⁾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2022 핵심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다.

영상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영상은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친다. 윤진(1991)은 매체논리에 대한 비판의식 없이 미디어 내용을 수용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적 읽기 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했고, 정백(2000)도 지속적인 영상의 노출은 두뇌에 영향을 미쳐 문자 이론과 점점 멀

3)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어지게 만든다고 하였다. 영상시대에 활자 읽기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읽기가 탄탄해져야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 중에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게 된다. 내가 선택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다보면 내가 사는 공동체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은 실천으로 이어지기가 쉽다. 결국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활자로 세상 읽기’ 교육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셋째, NIE는 신문사, 지도사, 시대의 흐름, 협력관계 미흡이라는 다양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 결과는 신문이 정치적 입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하기 힘들다는(임미선, 2010) 신문자체의 한계와 또한 매일의 새로운 소식과 정보, 이슈를 다룬다는 점에서 사전에 수업을 계획하기 어렵다는 것이 극복 과제(임미선, 2010)라는 지도사의 역량의 한계,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젊은 독자층들을 빼앗기고 있다(강명선, 2016)는 시대의 변화로 인한 한계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성격상 NIE는 학교나 정부 기관에서 맡아주어야 할 과제들이 많으나 시민사회단체는 학부모 교육을 비롯하여 다문화 또는 장애인 등 소외 계층 대상 교육등을 맡는게 효율적(김기태, 2010)이라는 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NIE가 사회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 55%의 학생들은 그 원인을 ‘집에서 신문을 구독하지 않아서’ 라고 응답했다(임석희, 홍현옥, 2005). 구독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적 색깔이나 구독료 등도 원인으로 유추할 수 있다. 신문사는 가십성 뉴스보다도 미래독자를 키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가치있는 내용을 지면에 실어서, 구독료를 내면서라도 신문을 보겠다는 독자들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NIE 지도사는 다른 지도사들과 다르게 매일매일 새로운 신문을 읽고, 직접 자료를 고르고 활동지를 만들어야 하는 ‘직접 차려야 하는 밥상’을 어려워하고 있다. 지도사의 역량 부족은 도미노처럼 다른 한계를 불러온다. NIE 지도사는 이 업계에서 장시간 몸담아야 키워지는 것이라고 연구 대상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지도사 양성기관의 부재로 새롭게 NIE에 입문하는 지도사들이 없을뿐더러 기존의 지도사들도 충분히 연구할 기회가 없어져서 각자가 바다에 떠있는 섬처럼 따로따로 맥을 이어 가고있는 실정이다. 김기태(2010)는 학교나 정부기관에서 맡아야 할 과제가 많다고 하며 시민사회단체는 소외계층의 교육을 맡는게 효율적이라고 하지만 본 연구는 NIE를 사회교육단체에서 이끌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규모 연구모임을 만들

어(다문화, 장애, 읽기, 인성, 창의 등등) 분야별로 연구를 하고 그렇게 연구한 결과를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공유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지도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깊이 연구하여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다면 학교가 신경써야 하는 것들도 사회교육단체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의 변화가 신문의 구독률을 낮춘다는 것을 한계로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시대의 변화가 NIE를 더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도사의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신문활용교육 지도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는 스크랩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워야 한다. 스크랩은 학생들이 주도해서 자료를 선택하고 활자를 읽고, 비판적 사고의 과정을 거친 후 정리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교사의 역량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문보급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학교 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다. 둘째, NIE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와 사회교육단체, 신문사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NIE는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핵심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다. 영상시대에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미디어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교육이며 미디어리터러시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이어지는 길에 있다. 빨리빨리 지나버리는 영상이나 간단하게 요약 되어있는 카드뉴스로는 미디어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미디어리터러시의 핵심은 어휘력이다. 어휘력이 부족하면 정보취사선택이 어렵고, 그에 따라 비판적 사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상을 왜곡하여 받아들이게 되는 등 많은 문제를 동반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NIE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은 NIE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하고 독일처럼 학교와 사회교육단체, 신문사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셋째, 소규모 교육단체를 만들어 연구하며 그 분야의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자기주도적 삶의 태도를 가진 지도사들은 다른 사람이 정해 준 목적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목적에 맞는 연구를 하여야 탐구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문활용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비슷한 지도사들이 소규모 단체를 만들어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일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다양성이 풍부한 NIE 조직이 될 수 있고 후배양성에도 활기를 띄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에서 NIE 학회를 창립한 창립기를 중심으로 NIE 지도사들

의 신문활용교육 지도경험을 탐색한 질적사례연구이다. 신문활용교육 지도 경험에 대한 연구를 ‘제주 NIE 학회’ 창립기를 중심으로 하여 보다 더 다양한 그룹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후속 연구는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연구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학교 현장의 NIE 실정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NIE를 이끌어 갔던 경험을 심층면담하여 연구한다면 NIE의 현주소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선. (2013). 신문활용교육(NIE)면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프레임 비교 연구. 미디어와 교육. 3(1), 7-38.
- 강명선. (2016). 지역신문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성공 사례연구. 사회과학 연구. 32(1), 229-257.
- 강운진, 이인희. (2021). 제주지역 고등학교 특수교사의 장애학생 전환교육 지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56(2), 91-118.
- 강은미. (2012). NIE의 이론과 실제 생각을 건축하라. 서울: 이미지북.
- 김광재, 강신규. (2013).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NIE 활성화 방안 연구: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57(6), 263-296.
- 김광재, 강신규. (2015).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NIE 활성화 방안 연구: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57(6). 263-296.
- 김기태. (1993). 우리나라 시청자운동의 현황과 과제. TV모니터 훈련프로그램 자료집. 서울 YMCA 시청자 시민운동본부. 1993, 9.
- 김기태, 권혁남, 양은 (2007). NIE 프로그램의 내용분석 및 효과 검증. 신문발전위원회.
- 김기태. (2010). 한국적 NIE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 국내 NIE 실태 및 해외사례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동일, 정문성, 최상희, 강은비, 연준모. (2013). 국내 NIE 현황 조사 연구: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21(2), 111~129.
- 김영천. (2006).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문음사.

- (2013).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아카데미프레스.
- 김우준. (2011). 영상매체 폭력성 노출이 청소년의 폭력적 비행 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애적 성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김훈순. (1994). 신문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연구원 총서. 25, 337-373
- 설규주, 김명정, 이봉민. (2011). NIE 실태 및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 한국정치정보학회. 14(1). 71-94.
- 송원숙. (2020). 청소년의 신문뉴스 활용교육(NIE) 효과 : 뉴스 이용, 뉴스 리터러시, 정치사회적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언론학회. 20(1), 49-76.
- 심임숙. (2022). 초등학생 부모의 아동 돌봄공동체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안미영. (2015). 신문활용교육에서 교원의 역할에 관한 소견. 중국조선어문. 199(5). 92-94.
- 양애경, 조호재. (2009). 자기주도적 학습과 학업성취도간의 관계. 한국교육실천연구학회. 8(3), 61-82.
- 오영수. (2000). 중 , 고등학교 경제 교육에 있어서의 신문활용 유형. 한국경제교육학회. 6(1), 101-123.
- 오희정. (2020).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및 독서활동과 학업성취도 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1), 719-738.
- 유홍식. (2012). 어린이신문에 대한 학부모의 중재 유형과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56(1). 418-440.
- 윤진. (1991).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2). 53-94.
- 이민규. (2016). 중앙일보 · 한겨레 공동기획 ‘사설 속으로’에 나타난 의견다양성 효과 연구. 한국지역언론학회. 16(4). 221-253.
- 이형상. (2020). 중학교 지리 수업에서 e-NIE를 활용한 과정 중심 지리 글쓰기의 적용 및 효과에 관한 실험연구. 한국지리학회. 9(1), 17-35.
- 임미선. (2010). 신문활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7, 33-57
- 임석희, 홍현옥. (2005). 신문자료를 활용한 중학교 사회과 교수 · 학습(NIE) 방법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연구 1(1), 91-117.

- 임성관. (2015). 독서 운동과 NIE 활동의 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49(3). 209-231.
- 전영국. (2017).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면담 및 심층면담에 관한 비교 고찰. 한국열린교육학회. 25(1), 147-168.
- 전해미. (2016).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웹 활용 음악신문 만들기 수업 지도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정문성, 김양은, 은지용, 최상희. (2010). NIE가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지정주제 연구보고서 2010-15).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정백. (2000). 영상매체의 문화적 유해성에 대한 이해. 사단법인 한국지역사회연구소. 2000(3). 103-111.
- 조진희. (1998). 중학교 과학 교과와 지질학 영역에서 신문을 이용한 수업의 적용 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최상희, 조현수. (2007). 사회과 교육을 위한 신문스크랩 기술 방안 연구. 교육문화연구. 13(1), 273-294.
- 최일석. (2019). 초등교사들의 초등교육의 역할과 교직에 대한 관점:심층면담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황유선, 박진우, 김위근. (2011). NIE와 교육 효과 (연구서 2011-05).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Creswell, john. (2007).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Thousand Oaks : SAGE Publications, California.
- Crotty, Michael. (1996). Phenomenology and nursing research. South Melbourne. Vic. : Churchill Livingstone.

논문경진대회 세션 II

초등학교 남교사의 여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충 탐색: 성역할 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황 정 훈(서울대학교 박사과정)

I. 서론

교사의 성별은 학생 생활지도 방식에 큰 영향을 준다.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되는 성별은 사회 전반을 구조화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원인기제이다. 특히 사회의 각 분야 중 성별이 교육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교직 내 성비 불균형은 그간 균형 잡힌 성역할 학습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왔으며 여전히 한국 교육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은 초등 교직의 여성화가 초등학생들의 성역할 사회화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오래전에 제시된 바가 있으며(심미옥, 1999), 초등학교 내 남교사 품귀 현상은 학부모들의 남교사 선호 현상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최효정·채민석, 2023.2.13.).

이처럼 학생들의 균형 잡힌 성역할에 대한 이해와 내면화는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Mischel (1968)의 성역할 사회학습이론이 있다. Mischel (1968)은 성별에 따른 행동의 유형화는 조작적 조건형성(operant conditioning)과 관찰학습(observational learning)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면서 성역할의 사회화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정관념(stereotype)과 편견은 대상에 대한 기존 지식으로서 고착화된 틀에 따라 정보를 단순화하고 자동화된 사고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지각자와 대상자 모두의 정보처리 과정 및 행동에 영향을 준다(김혜숙, 2002). 따라서 성장 과정에서의 올바른 성역할 사회학습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초등 남교사들은 여학생 생활지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본적인 성비의 극단적 불균형으로 인해 단위 초등학교 내 남교사들은 소수자이자 약자의 입장에 있다. 교직사회 내에는 남교

사라는 이유로 과중한 업무량과 기피 업무를 떠맡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지배하고 있다(구본열, 2009; 박종모 외, 2019; 손형국, 2015; 한수명, 2003). 이러한 기본적인 교직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성차에 따른 여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은 남교사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기제가 된다. 그러한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최근 10년 간 극소수 남교사의 성비위 사건들로 인해 남교사들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취급과 같은 예의주시의 압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여학생과 거리두기, 남교사 대상 성폭력 예방 연수 등 교직 내 다양한 제도 및 지침이 하달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 및 분위기로 인해 초등 남교사들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다. 초등 남교사들은 근본적인 성차로 인한 특성, 초등학교 내 남교사의 적은 비율, 사회적 압박 등으로 인해 여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사의 어려움과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여교사 중심의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초등 남교사와 관련된 연구는 소외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Strauss & Corbin (1998)의 근거이론방법을 활용하여 Mischel (1968)의 성역할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에서 초등 남교사의 여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충을 탐색하고 일련의 생활지도 메커니즘을 중범위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 남교사의 효과적인 여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제도적 개선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성역할 사회학습이론

Mischel (1968)은 성별의 유형화된 행동은 조작적 조건형성(operant conditioning)과 관찰학습(observational learning)에 의해서 학습된다고 하였다. Mischel (1968)은 성역할의 사회화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며, 학습 환경의 변화할 경우 신속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이재연, 1985). 조작적 조건형성이란 어떠한 행위에 대해 보상과 같은 정적 강화와 처벌과 같은 부적 강화를 받음으로서 특정 행위에 대한 인식이 형성됨을 의미한다. 강화는 애정, 인정, 칭찬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관찰학습이란 아동이 타인 및 사건을 관찰과 같은 모방에 따라 성역할이 학습됨을 의미한다. 관찰학습의 주요 대상으로는 부모, 친인척, 교사, 매체 등이 해당된다.

이후 Mischel (1973)은 성역할 사회학습이론에 상벌의 체계적 활용 및 모방 과정에서의 내적 사고 과정을 추가하여 인지적 사회학습이론으로 발전시켰다. 아동이 조작적 조건형성에 따라 직접적 훈련을 통해 성역할을 학습할 때, 일종의 ‘기대(expectation)-반응(reaction)-보상(reward)’의 절차가 내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관찰학습에 있어서도 개인의 관심, 동기, 기대 등의 인지과정에 따라 특정 행동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2. 선행연구 분석

가. 초등 남교사의 정체성 및 교직생활 관련 연구

초등 남교사와 관련된 연구는 교직 내 남교사로서의 정체성, 교직생활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한수명(2003)은 초등 남교사의 정체성과 여교사에 대한 시각에 관한 연구에서 초등 남교사는 잡무와 적은 남교사 비율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남교사들은 여교사에 대해 강한 보신주의와 낮은 사명감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민망함을 느끼고 있었다. 구본열(2009)은 초등 남교사에게 요구되는 성역할에 대해 마당쇠, 근엄한 아버지, 중성적 인간이 주된 기대 이미지임을 밝혔다. 안아라·김한별(2013)은 초등 남교사의 정체성 탐색 연구에서 여성적 생활 양식에 적응해야 하는 소수, 관대한 호랑이 선생님 같은 존재, 성범죄 가해자로서 남성을 조망하는 사회 편견에 대한 남교사로서의 심리적 불편함, 다양한 업무를 감당하는 전문 일꾼, 승진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존재 등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손형국(2015)은 남교사의 교직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를 통해 남교사는 기피업무 떠맡기, 과격학생 전담교사, 감투 쓰기, 학교운영을 위한 마당쇠, 다수의 여교사에 둘러싸인 외로운 섬을 경험하며, 승진을 위한 감내, 남자로서 희생, 남교사 간 뭉치기, 학교 밖 즐거움 찾기(도피하기)로 대응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박종모 외(2019)는 초등 남교사들의 갈등 관련 내러티브 탐구 연구에서 남교사가 경험하는 갈등의 원인으로 구시대적 사고관의 기성세대와 양성평등의 사고관을 가진 신세대 간의 인식 차이, 교내 업무에 대한 성역할 기대와 고정관념 등이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모두 초등 남교사들이 정체성과 교직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밝히고 있다.

나. 교사 성역할에 따른 교직 특성 관련 연구

교사 성역할에 따른 교직 관련 연구는 크게 교사 성별에 따른 역할 수행 관련 연구와 교직의 여성화 연구로 구분된다. 먼저 교사 성별에 따른 역할 수행 관련 연구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경미(2004)는 교사의 수업 방식과 관련하여 여교사는 남교사에 비해 다양한 장치를 활용하고, 남교사는 추상성과 형식성이 돋보이는 직해적 언어를 활용하는 반면 여교사는 은유적 언어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또한 남교사는 답이 명백한 발문을 활용하는 반면 여교사는 명백한 발문과 개방형 발문을 적절히 균형감 있게 사용하는 등 교사 성별에 따라 수업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김영희(2005)는 교사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양성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효과 분석 연구에서 교사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로서 남성성이 증진됨을 밝히며, 학생 교육에 있어서 교사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밝혔다. 김남지·한유경(2011)은 초등학교 담임교사 역할 수행의 성차 분석 연구에서 초등학교생들은 교사 성별에 따라 생활지도, 학급경영, 학습지도, 특별활동 지도 순으로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교직의 여성화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세영(1998)은 교직 여성화와 교직의 성별 관계 연구에서 교사 간 공유된 성별 특성 및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따라 남교사의 권력 획득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상대적으로 여교사의 소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심미옥(1999)은 교직의 여성화가 초등학생의 성역할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탐색 연구에서 초등교사의 성별에 따라 학생 행동에 대한 반응이 다름을 밝혔는데, 주로 여교사가 여학생의 긍정적 성역할 특성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교사는 부정적 성역할 특성에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김경화(2003)는 초등교직 여성화에 따른 학교경영의 과제를 탐색한 연구에서 여성 중심적 관점보다 여성의 특성과 장점을 부각시키고 여교사의 교육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종필(2010)은 학교경영 측면에서 교직 여성화가 교원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남교사와 여교사는 생활지도와 학습지도에서 부족하지 않았으나, 학교 업무 기획 및 추진에 있어 남교사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관리자들은 여교사 증가에 따라 업무분장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밝혔다.

다. 아동·청소년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사회화 관련 연구

아동·청소년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사회화 관련 연구는 오래전부터 수행되어 왔다. 선행연구들을 연령에 따라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이후 청소년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유미숙(1986)은 직업에 대한 아동의 성별 고정관념의 인식 탐색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직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성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와 반대로 안라리(2002)는 유아들은 사회의 고정관념화된 성역할과 일치하게 식별하고 있으며 성역할 선호도에 있어서도 고정관념화된 사회의 선호와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점, 남아는 여아보다 성역할 선호도에 있어 고정관념적 인식이 높다는 점,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유아들은 더 높은 정도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는다는 점을 밝혔다. 김지희·이순형(1994)은 아동의 성 항상성과 성 고정관념 간의 관련성 탐색 연구에서 아동의 성 항상성 발달 수준은 연령 증가와 비례하며, 성역할 발달 과정 순서는 성 동일성, 성 안정성, 성 일관성 순임을 밝혔다. 정순화·이경희(1997)는 아동의 성역할 태도와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탐색 연구에서 아동 연령 증가에 따라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 여아가 남아보다 융통성이 높으며, 아동의 성역할 태도가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고현·황정련(2013)은 유아의 성역할 사회화 형성 변인 분석 연구에서 가정 환경요인, 교육기관 환경요인, 사회 환경요인 순으로 유아의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설명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유아의 올바른 성역할 사회화를 위해 가정과 교육기관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초등 고학년 이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심미옥(1998)은 초등학교에서의 학생 역할과 성역할 비교 연구에서 능동적이고 성취지향적인 남아의 특성이 수동적이고 정서적인 여아의 특성보다 바람직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김정민(2006)은 아동의 성역할 개념은 사회적 상황을 제시하였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유연성을 보이며, 영역, 학년, 성, 대상의 특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구정화(2009)는 초등학교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학년 및 성별 차이 연구에서 초등학교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며 그 폭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크다는 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고정관념이 낮다는 점, 남학생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공통적으로 높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

다.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로 이현주(2012)는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에서 초·중학생들의 경우 여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남학생보다 낮으며, 초등학생의 남성역할 고정관념과 자기결정성은 정적 상관을 갖는 반면, 여성역할 고정관념과 자기결정성은 부적 상관을 가짐을 밝혔다.

성역할에 따른 직업과 관련된 연구로는 어윤경(2008)은 초등 고학년 대상으로 성역할 정체감이 직업적 성 고정관념에 미치는 효과 탐색 연구에서 성 고정관념 수준은 성별 및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성역할 정체감이 직업적 성 고정관념에 차이를 준다는 점에서, 아동기의 성역할 정체감 형성이 진로교육의 주요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영실·박은주(2011)은 남녀유아교사직에 대한 고3학생의 인식 연구에서 배우자로서 유아교사직에 대해 여학생들은 부정적으로, 남학생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며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유아교사직에 대한 인식이 다름을 밝혔다.

성역할과 관련하여 부모의 영향과 관련된 연구들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주연·한세영(2004)은 어머니와 초등학생 간 성역할 태도와 성역할 사회화에 대한 지각 차이 분석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다는 점, 어머니는 자녀에게 성역할 태도와 사회화를 강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나 남녀아동은 어머니로부터 성별에 따라 남성적, 여성적이길 요구받는다고 인식한다는 점 등을 밝혔다. 강태중 외(2005)는 학교 교사에 비해 가정에서 아동들에게 성차에 따라 다른 경향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음, 아동 성별이 성역할 사회화 경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읍면 지역에서 여아에게 여자답도록 요구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문화차이 및 성정형화된 기대가 있음을 밝혔다. 하문선(2014)은 여고생의 여성성역할, 여성성역할갈등과 부모진로지지, 의사결정의존성 및 진로결정 간 관계 탐색 연구에서 여성의 성역할사회화가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결정의존성과 부모진로지지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각각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라. 초등교사 생활지도 관련 연구

함은지·황매향(2017)은 초등교사가 생활지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탐색 연구에서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아동의 특성으로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아동, 이기적인 아동, 산만하여 다른 아이들을 방해하는 아동, 교사를 부정적

으로 평가하는 아동 등이며, 이러한 아동 지도 방안으로 별을 통한 행동수정, 장점에 대한 칭찬, 상담을 통한 소통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김지혜·신효정(2022)은 초등학교사의 고학년 생활지도 경험과 관련된 연구에서 생활지도 어려움에 관한 대처 과정으로 ‘쓰라림 단계’, ‘돌아봄 단계’, ‘애씀 단계’, ‘깨달음 단계’, ‘내딛음 단계’의 총 5단계의 절차로 정리하였으며, 생활지도 유형으로 ‘적응적 실천형’, ‘긍정적 성찰형’, ‘제한적 성찰형’, ‘소극적 대처형’의 4가지로 정리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근거이론

가. 근거이론의 개념

근거이론은 해석주의 패러다임에 따라 탄생한 질적연구 방법 중 하나로써 실제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실제적 이론 또는 이론적 틀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김영천, 정상원, 조재성, 2019, p.29). 구체적으로 근거이론기법은 특정 맥락에서 실제적인 이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이론을 보완하거나 다른 맥락에서 재구성하려는 경우, 사회적 실재가 어떻게 지식화될 수 있는지 탐구하려는 경우 등에서 활용된다.

근거이론기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Corbin & Strauss, 2015/2019, pp.7-8). 먼저 이론으로 구축된 개념은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로부터 도출된다는 점이다. 이는 ‘근거’와 ‘이론’이라는 명칭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자료 수집과 분석은 지속적인 순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초기 자료 수집 후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념이 후속 자료 수집의 기초를 형성한다. 활용되는 대표적인 자료 유형은 인터뷰와 참여 관찰이다. 다만 단순히 연구 참여자의 말 자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서, 그림, 일기, 메모, 온라인게시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과 관찰, 녹취 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

나. Strauss & Corbin의 근거이론

근거이론기법은 Glaser & Strauss (1967)에 의해 시작되어 이후 여러 학파

가 탄생하였다. 각 학파는 관점에 따라 크게 구성(주관)주의에 초점을 둔 Charmaz, 약한 구성(주관)주의에 초점을 둔 Strauss & Corbin, 약한 실증(객관)주의에 초점을 둔 기노시타(木下), 실증(객관)주의에 초점을 둔 Glaser로 구분된다(변기용, 2020). 이중 본 연구에서는 Strauss & Corbin의 관점에 입각한 근거이론기법을 활용하였다.

Strauss & Corbin (1998)의 근거이론기법을 활용한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를 선정한다. 이때의 연구문제는 연구 주제 영역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광범위하게 진술된다. 둘째, 자료를 수집한다. 자료는 모든 형태의 기록, 관찰, 녹취 자료가 사용될 수 있으며, 자료 수집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의 수집이 불필요하다는 이론적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수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이론적 틀은 연구목적에 따라 선제시될 수도 있고 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근거이론기법 자체가 이론을 개발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는 것이 권장되나, 연구목적이 이론의 변형 및 재구성에 있는 경우,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특정 이론이 연구의 출발점 수준에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자료 분석 단계이다. 자료분석은 원자료를 분해하여 개념의 윤곽을 잡는 개방 코딩(open coding),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한 축 코딩(axial coding), 핵심범주를 작성하는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의 3단계로 진행된다. 다섯째, 결과 작성 단계이다. 분석결과를 통해 완성된 핵심범주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 집단 전체를 묘사하는 스토리라인(story line)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후속 양적연구를 통한 일반화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2. 연구 절차

가.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남교사의 여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충의 발생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수도권에 근무하는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를 수도권 근무 초등교원과 학부모로 한정된 것은 본 연구가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 관점에서의 중범위 수준의 일반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비판적 실재론에서는 실제 세계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관계는 그 자체의 특별한 인과적 힘과 성향, 발생기제 및 구조들을

갖는다고 가정한다(김선희, 2017). 따라서 비판적 실재론의 관점에서는 주어진 조건과 맥락에서의 일반화 범위를 규정하는 중범위 이론을 통해 ‘절반의 규칙성’ 발견이 가능한 질적연구 방법에 주목한다(변기용 외, 2022).

이에 본 연구진은 수도권 초등학교 중 하위 지원청, 교육경력, 젊은 연령 등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함으로써, 조직 내 젊은 남교사를 중범위로 두고 초등 남교사의 여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충 발생의 매커니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경우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자료 수집과 분석의 순환적 과정을 반복하며 이론적 포화에 이를 때까지 연구참여자의 추가 선정 과정이 있었다. <표 1>은 연구 참여자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구 분	지 역	학 교 유 형	교 직 경 력(년 차)	연 령
A교사	서울	공립	9년차	33
B교사	서울	공립	8년차	34
C교사	서울	공립	8년차	33
D교사	서울	공립	8년차	33
E교사	서울	공립	8년차	34
F교사	서울	공립	8년차	33
G교사	서울	공립	8년차	36
H교사	서울	사립	8년차	33

나. 연구 절차

자료 수집은 2023년 9월 ~ 10월까지 약 2개월 간 이루어졌다. 면담은 한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효과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참여자 간의 관계 및 상황을 고려하여 FGI(Focus Group Interview)를 병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보다 풍부한 면담 자료의 수집을 위해 상황에 따라 질문을 추가하거나 수정 혹은 보완할 수 있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면담 시간은 1시간 내외로 진행되었으며, 면담 내용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녹취 혹은 현장에서 전사하였다. 수집한 면담 자료는 질문과 관련 있는 핵심 개념 및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구조화 하였다. 또한 연

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동료 연구진을 통한 교차 검증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구조화한 자료를 내담자 대상자와 공유하고 추가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연구진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초등 남교사의 여학생 지도 고충 매커니즘

가. 성역할 사회학습에 따른 기본적 맥락: 다른 성별에 대한 접촉 빈도 감소

1) 가정의 영향

초등 남교사들이 인식하는 여학생 지도의 어려움에는 기본적으로 성장기에 다른 성별에 대한 접촉 빈도 감소로 인해 균형감 있는 성역할 사회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본 매커니즘 발생의 기본적인 맥락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 환경의 영향이 지적되었는데,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가족 구조의 변화’, 학교 내 문제 상황 발생 시 ‘여학생은 피해자일 것이라는 가정의 기본 인식’이 주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가족 구성원이 예를 들어 좀 대가족이야.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렇게 살아. 그러면 그만큼 이제 좀 더 다른 성에 대한 그런 게 더 역할 성 역할에 대한 게 좀 더 흡수가 빠를 거고, 근데 반대로 이제 그냥 외동으로 컸어. 그러면은 진짜 사회화 된 남자는 아빠 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남자 교사에 대해서 낯설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남교사A)

여학생들 부모들 같은 경우는 보통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약간 더 피해자의 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스텐스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 같습니다. (남교사E)

남자랑 여자랑 뭐가 사건이 발생해서 서로 전화를 하면 남자 부모님이든 여자 부모님이든 남자가 무조건 잘못된 거라고 전제를 깔고 가긴 하는 것 같아요.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여자가 무조건 피해자일 것이라라고 전제해서 되게 날카롭게 민원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남교사D)

2) 초등교사 성비 구조의 영향

남교사들이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초등교사 성비 구조가 매우 불균형하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 단위학교 내 남교사가 전체 교원의 20%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초등 남교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성역할에 대한 균형감 있는 모델링 학습이 부족해지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또한 교사들 역시 ‘교사 성별에 따른 경험적 이해 차이’가 있어 여교사의 경우 모범적인 학창시절을 보내왔기에 장난이 많고 짓궂은 남학생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이 있으며, 반대로 남교사의 경우 10대 여학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특히 젊은 남교사의 경우 극도의 남성 중심 사회인 군복무를 마치고 난지 몇 년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해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여교사들이 어릴 때 못 겪었던 거. 우리는 남자 애들이 왜 이렇게 미쳐 날뛰는 줄 알고 에너지가 너무 추인 줄 알고 뛰어놀아야만 견딜 수 있는 그 시절을 우리가 겪었는데 일반적으로 모범생적인 삶을 살던 여자 선생님들한테는 그정도까지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가 없다 보니까 그 행동 자체가 머리로 나는데 마음으로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자애들 무리 짓는걸 이해 못하는 것처럼. (남교사F)

내가 여자가 아니다 보니까 여자에 대해서 조금 여학생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그렇게 이제 모범생으로 크다가 이렇게 교사가 되다 보니까 10대들이 갖는 여학생의 특징에 대해서 진짜 몰랐던 것 같아. (남교사B)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하죠 혹독하게 대했을 때 반발심이 엄청나게 컸었어. 초등학교 남자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초기에는 군대를 군대 전역한 다음이거나 아무튼 그런 시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래서 더더욱 여학생에 대한 이해가 더 떨어지는 것 같아. (남교사B)

나. 인과적 조건: 여성의 본능

1) 본능적 행동 양식

남교사들은 여학생이 ‘단짝 만들기에 대한 본능’이 있어 단짝 간의 교우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관계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여학생들에게는 ‘화장실이 중요한 소통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해 남교사들은 지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단짝 짓는 경향이 남학생들보다 더 강하게 있는 것 같은데 단짝 지어서 다니던 친구들 사이에 잘 지내다가 뭔가 한 번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좀 문제가 크게 생기는 경향이 있고 관계 회복이 남학생들보다도 더 어려운 모습들이 보여서 그 이후에 교실에서 학교 생활이 많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남교사E)

여학생들은 진짜 그 무리 짓기 특성 그러니까 내 단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 그런 부분은 좀 남자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남교사H)

화장실을 꼭 둘이 같이 가더라고요. 여학생들끼리 꼭 화장실을 같이 가는데 또 이게 흡수면은 1교시 갔는데 2교시 나는 가줬는데 애는 안 가줬다. 이런 결로도 또 트러블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남교사C)

고학년 될수록 특히 문제 있는 학생들일수록 화장실에서 이제 다른 반 학생들하고 교류까지 하면서 화장실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어서 이제 남교사다 보니까 여자 화장실 안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도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교사E)

2) 지도에 대한 민감한 반응

기본적으로 여학생들은 ‘감정 변화가 예민’ 하여 남교사들이 여학생들을 단호하게 훈육하는 것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또 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훈육 경험의 빈도가 낮기 때문에 남교사의 ‘훈육에 대해 남학생에 비해 크게 반응’ 하는 경향이 있었다.

수업 가르치는 것조차 힘든데 이것까지 아이 감정까지 챙겨가지고 가르치려고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남교사A)

계속해서 좀 빠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 (남교사G)

남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호하게 혼낼 순 있는데 약간 이게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좀 애매하게 이게 관계 형성되는 경우 지도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남교사C)

여자애들은 사실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이미.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이런 사회적인 발달은 남자들에 비해 빠르고. (남교사A)

확실히 여자애들이 더 있나 봐서 혼나는 거 무서워 해. 상대적으로 감정이라는 게 빨라서 확실히 덜 혼나고 훨씬 더 눈치같은 행동을 하다 보니까 혼나본 경험이 적어서 조금만 혼나도 확 더 반응이 빨리 오는 거지. (남교사F)

3) 남교사에 대한 이성적 접근

남교사들은 여학생들이 젊은 남교사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여교사에게는 행하지 않는 일종의 선을 넘는 언행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여학생들의 ‘남교사를 선생님보다 이성으로 생각하는 경향’으로 인해 자칫 감정적으로 틀어질 경우 이에 대한 남교사들의 고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교사한테는 그래도 약간 좀 선을 좀 지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 여교사한테는 근데 남교사한테는 이제 남교사는 아예 무서운 선생님은 노내로 하는데 남교사한테는 약간 선을 좀 자주 넘는다. 약간 이런 경향이 있고. (남교사B)

남교사와의 마찰이 있었을 때는 그게 굉장히 오래가고 마치 남자친구랑 헤어졌듯이 헤어지면 여자애들은 그냥 완전히 딱 이거잖아. 무자르고 끝내 버리잖아. 그러니까 여자 애들이 남교사랑 뭔가 마찰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그냥 일말의 기회조차도 없어. 우리한테는 그냥 끝이야. (남교사B)

여자 아이들은 사실 똑같은 나이에 남자 아이들보다 훨씬 성숙하잖아 성적으로,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특히 젊은 남자 선생님이 교사로서 학생을 챙겨주기 위해서 잘해준거를 애들은 그걸 이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남교사A)

그 경계를 지켜서 지도한다는 게 계속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애를 친절하게 대했을 때 멘탈이 약한 애들은 진짜 그거를 좀 이렇게 이성적인 걸로 오해를 해서 고백을 한다든지, 그래서 참 남학생 생활지도하는 것보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지나치게 이성적으로만 접근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그렇다고 감정적으로만 갈 수 없는 문제다. (남교사A)

다. 중심 현상: 성차로 인한 기본적인 지도 고충, 남교사에 대한 사회적 압박

1) 감정을 고려한 지도의 어려움(성차)

남교사들은 ‘여학생의 감정 상함과 지도 사이의 딜레마’를 겪고 있었다.

여학생의 감정을 지나치게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옳은 방향으로 행동 교정을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여학생들은 감정이 상할 경우 교사와의 관계에서 한번에 돌아서버리기에 이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여학생들은 ‘남교사와 한번 들어지면 끝’이라는 점에서 관계에 대한 큰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감정을 어떻게 지나치게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옳은 방향으로 끌고 오냐 애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교사가 그걸 감수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 애의 감정을 상하게 하더라도 지도를 해야 되는 건가. (남교사A)

항상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애들이 감정이 상하면 그냥 돌아서버리는 이런 거. 진짜 잘해줘도 조금 서운하게 그 순간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애들은 진짜 견잡을 수 없이 교사의 적으로 돌아서는구나. 그러니까 교사는 학급 경영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 너무 이렇게 막 강하게 나갈 수도 없어. (남교사A)

남자는 딱 혼내고 금방 잊어요. 금방 잊고 다음 날 체육 하시면 그대로 칭찬하면 그냥 바로 풀려서 관계 회복이 되는데 여자애들은 그거 진짜 한번 혼내면 그러니까 1대 1로 혼내든 대놓고 혼내든 그거를 졸업할 때까지 마음에 품고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남교사D)

확실히 여학생들은 한 번 뭔가 관계가 들어지면 관계 회복하기가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를 회복하기가 좀 더 어려웠던 것 같고 남학생들은 비교적 단순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관계회복이 좀 더 쉬웠던 것 같고요. (남교사E)

2) 여학생 간 관계 매커니즘이 주는 학급경영 어려움(성차)

남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여학생들이 상호 간 관계맺는 방식이 그룹핑이라는 점에서 ‘홀수로 구성된 그룹 및 그룹 이탈 상황이 주는 어려움’이 크다고 하였다. 그러한 그룹핑 매커니즘으로 인해 ‘한 명의 여학생 지도는 학급경영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정신적 성숙으로 인해 ‘남학생들을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제 단짝이 이제 홀수로 막 지워졌을 때, 세 명이 지워졌을 때, 한 친구가 그 그룹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벗어나게 됐을 때 그 이후에 다른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남교사E)

일단 홀수 단짝하는 게 사실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남교사C)

일단 팸이라고 하죠 패밀리 그게 제일 여학생들 어려웠어요. 보면은 팸에 못들어가는 아이들이 한 명씩은 꼭 있어요. 울면서 애가 어디에도 들어가기 힘들다. (남교사D)

그 여학생의 그 주류들을 이제 다 학급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 주류들을 완전히 개가 틀어버리면은 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남교사A)

은근히 말도 안 듣고 좀 빠텐다 해야 되나. 남자애가 자리를 막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왜 바꿨어’ 하면 여자애들을 분명히 여자가 한 것 같은데 여자애는 입 닫고 있고 그냥 여자애를 1대 1로 혼내기 그러니까 남자애를 불러서 니가 했냐니까 꼬덕꼬덕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가스라이팅 그런 느낌으로. (남교사D)

정신적으로 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성장이 좀 더 빠른 것 같고 좀 더 성숙해 있는 여학생들이 더 많다 보니까, 남학생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의도대로 이렇게 유도하는 게 좀 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남교사E)

3)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성차)

남교사들은 초등 여학생의 ‘2차 성징에 대한 소통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여학생들이 월경 시기에 남교사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거나, 남교사 또한 이에 대해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약간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생리일 때 그런 거도 애들이 잘 얘기 못하고 남교사한테, 쭈뼛쭈뼛거리거나 아니면 다른 그냥 배 아프거나 머리 아프다고 그런 식으로 보건실에 가거나 실제 그런 자신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잘 못하거나, 나도 그거에 대해서 지도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 (남교사B)

생리하는데도 나한테 말도 못하고 끄끙 앓다가 집에 가서 나중에 예를 들어 체육하는데 너무 체육을 열심히 안 해가지고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오늘 따라 뼈나 이랬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오셨어. 사실 그날 애가 생리를 해서. (남교사F)

확실히 생리 결석 관련해서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담임 교사에게 이야기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걸 좀 느꼈고요. (남교사E)

4) 기본적인 지도 관계 형성의 어려움(사회적 압박)

남교사들은 여학생들이 ‘남교사의 생활지도는 기본 상하는 일’로 취급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여학생들은 교사는 여교사라는 편견을 갖고 있어 남교사의 생활지도는 교사의 생활지도이기도 하지만 남자의 생활지도라는 점에서 기분이 상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여학생들의 기분과 감정은 세밀하기 때문에 반대로 칭찬을 했을 때도 이성적 반응, 주변의 질투 등 상대적으로 반응이 크다는 점에서 ‘칭찬도 조심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일단 초등학교는 여교사가 엄청 많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테레오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교사는 여자다라는 거에 이제 그게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여교사가 혼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 같은데, 저학년인 경우에는 남자 교사를 거의 만나보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지나다니면 아저씨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여교사는 그냥 교사가 하는 지도, 근데 남교사는 교사가 하는 생활지도 플러스 남자가 하는 생활지도 그러면서 살짝 거기서 기분이 상해버리는 거야. (남교사B)

칭찬도 조심해야 돼. 여자애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여자애한테 내가 발표 잘한다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발표가 잘 들리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애가 선생님 제한테 플로팅 하시냐고 그런 얘기를 해. (남교사B)

교사로서 좀 더 말을 좀 더 세게 했을 때 이제 뒤에서 SNS를 하게 되면서 학교에서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뒤에서는 어떤 뒷담을 하고 다닐지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담임교사가 욕을 한 경우도 있었고. (남교사C)

5) 사회 분위기로 인한 여학생 지도 방식의 위축(사회적 압박)

남교사들은 여학생과의 ‘1:1 상담의 물리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기본적으로 남교사와 여학생 간의 신체적인 접촉을 원천적으로 금기시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1:1 상담에 있어서도 장소 선정의 어려움, 이를테면 솔

직한 대화 기반의 개별 지도를 위해서는 개방적인 공간에서 진행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지 않은 공간 자체를 찾는 것도 어렵고 심리적인 부담이 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여학생 중에는 친밀감 차원에서 교사와의 접촉을 바라는 여학생, 혹은 교사에게 갑작스레 다가오는 여학생들이 있을 때 남교사는 이를 밀어낼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여학생에게는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물리적 거리감’ 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1대 1로 상담하는 게 생각보다 여자애들이랑 상담하는 게 그게 환경 여건 상 쉬운 일도 아니야. (남교사B)

요즘 사회적 분위기도 이렇다 보니까 약간 얘기를 할 때 공개적인 장소에서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면담할 때는 교실 문 창문 다 열어놓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걸리는 거 같습니다. (남교사E)

상담 공간을 정할 때도 공간을 훨씬 더 민감하게 상담 장소까지도 고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학생들하고 뭔가 조금 개방적이지 않은 곳에 이렇게 1대 1 지도를 하러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훨씬 남학생 지도보다는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교사E)

일부 여학생 중에 이제 스킨십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 교사에게. 그럴 때 마다 되게 조심스럽더라고 어느 정도 선까지 받아줘야 되는지. 이제 나는 최대한 밀어내는 편인데, 선배 남교사 형님들 보면은 더나보다 더 연배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진짜 아빠처럼 대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나는 조금 아직 좀 그런 포지션은 아니다. 젊은 남교사에 속하다 보니까. (남교사H)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몸싸움하면서 많이 놀아준다 말이지 이렇게 들었다 났다도 하고, 그런데 여자애들은 와갖고는 자기도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조금 어떤 그런 어떤 선이 생기지. (남교사G)

라. 작용/상호작용: 여학생 특성을 고려한 학급 경영

1) 개별적 접근 방식의 지도

이와 같은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남교사는 여학생의 성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청 및 충분한 공감’ 전략을 활용하고 있었다. 여학생을 상담할

때는 사무적으로 듣기보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감정에 대한 세심한 접근’ 전략을 활용하였다. 여학생 감정의 세밀함과 변화의 큰 폭을 고려하면서 피드백을 주더라도 최대한 평등하게, 지도를 할때도 강한 워딩(wording)보다는 완화된 표현을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경청 이런 것들. 왜 그랬는지 사무적으로 듣지 말고 진짜 좀 여자친구를 대하듯이 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듣고 근데 그와 동시에 그러면 이제 선을 넘어오려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친해지는 것은 좋은데 그 선을 유지하라는 거 근데 그 선을 근데 명확하게 긋지는 말라고 그러면 또 애네들이 너무 이제 폭霆겨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 선을 찾아야 되는 것 같고. (남교사A)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도 충분히 공감을 해준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를 나중에 꺼내라. 그래서 좀 일단 학생에게 너의 생각을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학생이 먼저 말을 조금 충분히 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의 생각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 준 다음에 그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면 좋을 것 같다. (남교사B)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이 이렇게 누그러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들어줄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바쁘고 학교 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애한테 시간 투자하고 뭔가 공감 많이 해주고 그랬다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한테는 좀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거라는 걸 이제 여학생 지도하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남교사H)

긍정적인 피드백을 할 때도 조금 최대한 평등하게 그렇게 해서 좀 질투라는 표현을 쓰기 좀 뭐하지만 여학생들이 좀 민감하게 누구에게 잘해주고 누구에게는 편해 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교사E)

너무 지나친 워딩을 사용하기보다는 조금 완화해서 생각하는 게 좋고 조금 더 강한 얘기를 하고 싶으면 부모님이랑 상의를 먼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교사C)

2) 구조적 접근 기반 지도

남교사들은 문제 행동 여학생에 대한 효과적 지도를 위해 해당 여학생의 교우 관계 내 ‘핵심 그룹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지지 얻기’ 전략을 활용

하였다. 이는 여학생들은 친한 친구의 의견에 쉽게 동조하고 크게 영향받기 때문에 그들이 담임교사를 인정한다면 해당 여학생도 본인만 담임교사를 배척하기 어렵고 종국적으로는 담임교사의 지도를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남교사들은 여학생들의 그룹핑을 완화하기 위해 ‘서로 다른 학생들 간 상호작용 기회 확대’ 전략을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반에서 활용하고 있었다.

다수파가 나(교사)를 좋아해야 돼. 소녀들의 심리학 이런 책에서 보면은 여자 아이들은 그런 관계에서 끊어진다는 거는 거의 사형 선고이기 때문에, 개랑 연결되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게 해야 돼. 그러면 자기 혼자만 담임을 싫어하고 있다.면 개는 조금 팽당할 수도 있어. 오히려 나는 약간 그런 애가 있으면 개 주변의 애들을 좀 이렇게 내 바운더리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 같아. (남교사A)

여자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휩쓸리는 그런 경향, 친구들의 의견에 대해서 잘 동조하고 잘 따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목소리가 가장 큰 여자 애랑 이제 관계가 좋아지지 않게 된다면 그 해는 진짜 거의 남교사로서 쉽지 않은 해가 된다. (남교사B)

무리 짓는 경향이 여학생들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모둠을 형성할 때 자연스럽게 다양한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모둠을 매번 바꾼다든지, 아니 쉬는 시간 같을 때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도록 보드게임 같은 걸 일부러 더 같이 어울려서 할 만한 그런 보드게임 같은 걸 준비해둔다든지. (남교사E)

나는 학급 내에서 단짝을 원래 만들지 않아.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있어서 조금 저항감이 있지. 나는 다른 아이들한테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지도할 때 조금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학기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계속해서 뭉쳐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남교사G)

확실히 근데 뭉쳐다니는 거 보면은 아무리 봐도 좋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돼도 자기들끼리 딱 봐서 딱 댔을 때 하는 꼴 보라는 거는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해야 되는 건데 좋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그런 쪽은 최대한 빼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교사F)

마. 결과: 여전한 어려움 속 개선 의지

1) 남교사에 대한 배려 필요

이와 같은 남교사의 여학생 생활지도 매커니즘 속에서 남교사들은 성차를 고려하여 다양한 전략들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었다. ‘초등교육 현장에서의 남교사에 대한 이해 부족’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과거 시대에는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생활지도가 쉽다고 생각하였으나, 이는 교사의 통제적 권위가 충분하였기에 가능한 것이며 오히려 예민하고 섬세한 아이들이 많은 현 시대에는 남교사 입장에서 어려움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초등교육 현장에서 남교사는 소수자이자 약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가 상대적으로 조직 내 여자가 소수일 때와 남자가 소수일 때 배려에 대한 인식과 폭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수자이자 약자인 남교사가 배려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다양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보통 여선생님들은 대체로 남교사들을 좀 부러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 왜냐면은 생활지도 지도 쉽잖아요. 남자 선생님들은 애들이 말 잘 듣잖아요. 근데 하지만 남교사가 직접 되어보지 않고는 모른단 말이에요. 남교사만의 생활지도 스트레스가. (남교사B)

어떻게 보면은 남교사가 봤을 때는 여교사가 좀 더 쉬워 보이는 경우도 있어. 요즘 같은 시대 때는 옛날에는 통제만 하면 됐으니까 남 교사가 쉬워 보였겠지만 요즘 같이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아이들이 많고. (남교사B)

남교사에 대한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하다. 여자가 소수일 때는 여자를 배려해 주면서 남자가 소수일 때는 남자를 배려하지 않아.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는 소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배려를 받고 존중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야. (남교사B)

상당하는 곳이나 이런 데 CCTV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상황이 그대로 전달되면 좋은데 그렇게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남교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교사C)

2) 여학생 생활지도 역량 개선 의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남교사들은 효과적인 여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이에 대한 역량 개선 의지를 보였다. 역량 향상 차원에서 ‘교사의 성차를 고려한 지도 연수’ 측면에서는 남교사와 여교사의 차이에 따른 생활지도 관련 연수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학생 대상 측면에서는 교사-학생, 학생 간

‘성차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연수는 꼭 나오면 좋겠다. 남자 선생님이 해 주시는 연수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교사A)

예를 들어서 남교사와 여교사는 분명히 다른 사람 다른 종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종류의 연수가 별로 없단 말이야.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남교사B)

담임교사들이 입장에서 성 이해 교육을 할 때 학생들을 남녀를 분리해서 수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전문적인 지식도 사실 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수를 받긴 하겠지만 보건교사 중심으로 해서 강화된 성 이해 교육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남교사E)

성 이해 교육을 외부 기관에서 레포 없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실효성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이 올 때마다 좀 지루하기도 하고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남교사H)

이와 같이 분석된 초등 남교사의 여학생 지도 고충에 대하여 패러다임 범주화에 따른 개방 코딩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패러다임 범주화에 따른 개방 코딩 결과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패러다임
· 가족 구조의 변화 · 여학생은 피해자일 것이라는 가정의 기본 인식	가정의 영향	다른 성별에 대한 접촉 빈도 감소	맥락적 조건
· 초등 남교사 품귀 현상 · 교사 성별에 따른 경험적 이해 차이	초등교사 성비 구조의 영향		
· 단짝 만들기에 대한 본능 · 화장실은 여학생 간 소통 공간	본능적 행동 양식	여성의 본능	인과적 조건
· 예민한 감정 변화 · 훈육에 대해 남학생에 비해 크게 반응	지도에 대한 민감한 반응		
· 남교사를 선생님보다 이성으로 생각하는 경향	남교사에 대한 이성적 접근		
· 여학생의 감정 상황과 지도 사이의 딜레마 · 남교사와 한번 들어지면 끝	감정을 고려한 지도의 어려움	성별 차이로 인한	중심현상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패러다임
· 그룹 내 흡수 및 그룹 이탈 상황이 주는 어려움 · 한 명의 여학생 지도는 학급경영 전체에 영향 · 남학생들을 조종하려는 경향	여학생 간 관계 매커니즘이 주는 학급경영 어려움	기본적인 지도 고충	
· 2차 성장에 대한 소통 부담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		
· 남교사의 생활지도는 기분 상하는 일 · 칭찬도 조심스러움	기본적인 지도 관계 형성의 어려움	남교사에 대한 사회적 압박	
· 1:1 상담의 물리적 어려움 · 상대적으로 큰 물리적 거리감	사회 분위기로 인한 여학생 지도 방식의 위축		
· 경청 및 충분한 공감 · 감정에 대한 세심한 접근	개별적 접근 방식의 지도	여학생 특성을 고려한 학급경영	작용/ 상호작용
· 문제 여학생 소속 그룹으로부터의 지지 얻기 · 서로 다른 학생들 간 상호작용 기회 확대	구조적 접근 기반 지도		
· 초등교육 현장에서의 남교사에 대한 이해 부족 · 초등교육 현장에서 남교사는 소수자이자 약자	남교사에 대한 배려 필요	여전한 어려움	결과
· 성차 이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 인식 · 교사의 성차를 고려한 지도 연수	여학생 생활지도 역량 개선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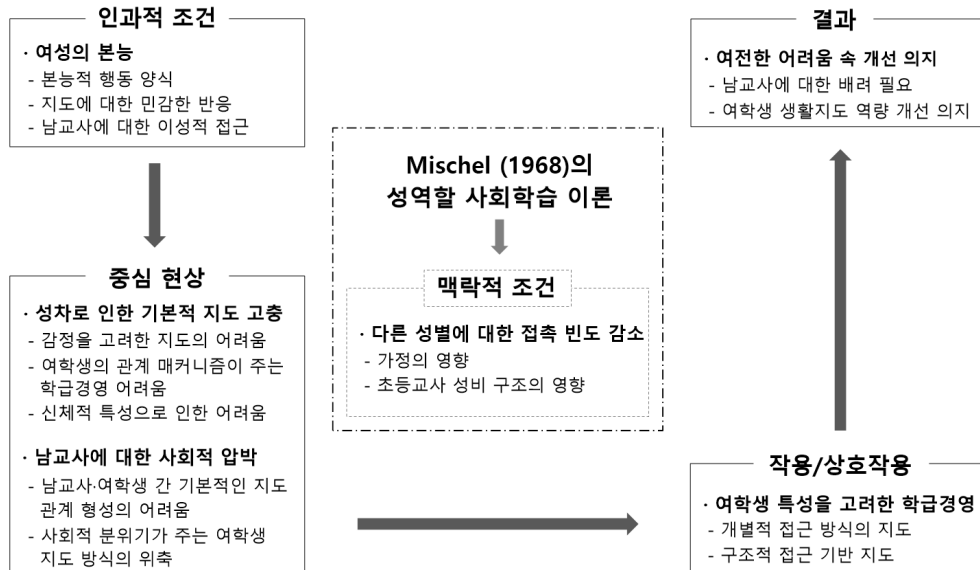
2. 초등 남교사의 여학생 지도 패러다임과 핵심범주

가. 축 코딩(axial coding) 결과: 패러다임 구조화

초등 남교사의 여학생 생활지도 고충 탐색을 위하여 Strauss & Corbin (1998)의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맥락적 조건’, ‘인과적 조건’, ‘중심 현상’, ‘작용/상호작용’, ‘결과’를 축으로 하여 코딩하였다. 먼저 ‘맥락적 조건’은 본 매커니즘의 전반에 영향을 주는 배경적 요인으로서 Mischel (1968)의 성역할 사회학습 이론이 맥락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Mischel (1968)은 성별로 유형화된 행동이 ‘조작적 조건형성(operant conditioning)’과 ‘관찰학습(observational learning)’에 의해 학습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맥락적 조건은 ‘다른 성별에 대한 접

축 빈도 감소' 로써 이는 남교사와, 여학생 모두에게 적용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가정 내에서 여학생은 피해입장이기 쉽다는 가정의 인식적 맥락 속에서 성장해왔으며, 이는 '조작적 조건형성'에 해당한다. 또한 가족 구조가 과거에 할아버지, 삼촌 등 남성의 비율이 충분했던 대가족 구조에서 아버지만 있는 핵가족 구조로 변화와 더불어 출생률 감소와 함께 여학생 혼자 외동인 가정이 증가하였다. 이는 '관찰학습' 기회 축소 및 빈도 감소에 해당한다. 또한 초등학교 성비 구조를 볼 때 남교사가 단위학교 내 20% 이하인 경우가 많은 상황 속에서 남녀학생 모두 남교사와 여교사로부터의 균형적인 성별 학습 모델링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관찰학습'의 기회 부족과 같다. 게다가 남녀교사의 성차로 인한 경험적 이해 차이는 남녀학생 지도에 차이를 불러 일으키고, 예를 들어 남학생의 같은 행동이라도 남교사가 이에 대해 반응하는 것과 여교사의 반응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균형적인 접촉 기회의 부족은 편향된 경험의 누적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조작적 조건형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적 조건 하에서 '인과적 조건'으로는 여학생의 여성으로서의 본능이 도출되었으며 하위 요소로 본능적 행동 양식, 남교사 지도에 대한 민감한 반응, 남교사에 대한 이성적 접근으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인과적 조건에 의해 성차로 인한 기본적 지도 고충과 남교사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라는 '중심 현상'이 드러났으며, 성차로 인한 기본적 지도 고충에는 여학생의 감정을 고려한 지도의 어려움, 여학생의 관계 매커니즘으로 인한 학급경영의 어려움,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정리되었다. 남교사에 대한 사회적 압박으로는 남교사와 여학생 간 기본적인 지도 관계 형성의 어려움, 사회적 분위기가 주는 여학생 지도 방식의 위축으로 정리되었다. 이와 같은 중심 현상에 따라 남교사들은 여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학급경영을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여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 접근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여학생의 무리 짓기 경향을 고려하여 구조적 관점에서의 지도 방식을 병행하였다. 이러한 전략 사용에도 불구하고, 남교사들은 여전히 여학생 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그 속에서도 꾸준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중재적 조건'은 별도의 축(axis)이 되지 않았는데, 이는 분석 과정에서 중심 현상에 영향을 줄만한 중재적 요소들은 없었으며, 그와 유사한 요소들은 인과적 조건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초등 남교사의 여학생 생활지도 고충 탐색 패러다임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초등 남교사의 여학생 생활지도 고충 탐색 패러다임 모형

나.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 결과: 핵심범주 도출

본 연구에서 정리된 Mischel (1968)의 성역할 사회학습 이론 기반의 맥락적 조건, 인과적 조건, 중심 현상,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를 총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핵심 범주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성별에 대한 불균형적 관찰과 조작적 조건 하에 있는 초등 여학생들의 효과적 지도를 위한 남교사들의 좌절과 고군분투’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남교사의 여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고충 탐색을 위해 수도권 젊은 남교사들을 중범위로 하여 Strauss & Corbin (1998)의 근거이론 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Mischel (1968)의 성역할 사회학습 이론이 맥락적 조건에 기반이 되었으며, 가정적, 교육현장 구조적 여건으로 인해 다른 성별에 대한 접촉 빈도 감소가 매커니즘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인과적 조건으로는 여학생의 여성으로서의 본능, 중심 현상은 성차로 인한 기본적인 지도 고충, 남교사에 대한 사회적 압박으로 드러났으며, 작용/상호작용으로는 여학생 특성을 고려한 상호작용 전략, 결과로는 여전한 어려움 속 개선의지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도출된 본 연구 결과의 핵심 범주는 ‘성별에 대한 불균형적 관찰과 조작적 조건 하에 있는 초등 여학생들의 효과적 지도를 위한 남교사들의 좌절과 고군분투’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Mischel (1968)의 성역할 사회학습이론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서로 다른 성별 차이의 이해를 위한 성 이해 교육 프로그램이 적극 운영되어야 한다. 초등 여학생들은 가정의 영향, 초등학교 내 남교사 부족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성별에 대한 불균형적 관찰과 불균형적 경험의 누적으로 인한 조작적 조건 형성 과정에 놓여 있다. 이를 완화하고 균형잡힌 성 이해를 위해서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외부 기관 위주의 전형적인 성교육보다, 교내 보건 교사 및 담임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단순한 신체적 관점에서의 성교육이 아닌 인지·정의·행동을 포괄하는 관점에서의 성 이해 교육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새 학년 교사 배치 시 각 학년별로 남교사들을 최대한 고르게 배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저학년은 대부분 여교사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균형감 있는 성 역할 사회학습의 기회가 턱없이 부족하다. 담임교사로 배치받지 못하더라도 학년 내 남교사가 최소한 1명 이상 배치되어 있다면, 학년 행사, 학년 생활 지도 등을 통해 남교사와의 관계 형성 및 지도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학령 인구 감소의 흐름 속에서 남교사의 절대적 비율 증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와 같이 학년별 균형감 있는 남녀교사의 배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남교사를 위한 여학생 생활지도 연수가 필요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교사들은 여학생 생활지도 역량 향상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정작 실질적인 교육 연수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대부분 경험의 누적에 기대고 있는 모습이었다. 초등에서의 남교사는 소수자이자 교원 구조 속 업무 쏠림 등의 대상이 되는 약자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사회가 상대적으로 조직 내 여자가 소수일 때와 남자가 소수일 때 배려에 대한 인식과 폭이 다르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초등 현장에서 겪는 남교사의 어려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교사 성별 관점에서 생활지도와 관련된 연수가 개설된다면

남녀교사 모두에게 지도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남교사의 전문직 혹은 관리직으로의 이탈을 최소화 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초등 남교사는 집단 내 소수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장, 교감과 같은 학교관리자와 장학사 및 연구사직에서 차지하는 남교사 출신 비율은 높다. 이는 남교사가 여교사보다 초등학교 자체로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초등 남교사들은 40~50대로 넘어가면서 단위학교 내 근무하며 겪는 승진 실패의 시선, 소외감들을 겪는 경향이 있어 연차가 쌓일수록 교직 생활에 대한 고충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초등 남교사가 교직 자체에 대한 내외적 유인가를 유지하여 단위학교에 남아 있음으로서 초등학교들의 성역할 사회학습 관점에서 교사 성비의 불균형 심화를 저지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그동안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초등 남교사가 여학생 생활지도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대해 다루었다. 교사의 통제적 권위가 떨어지고 학생의 인권과 자율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과거와 달리 남교사의 권위 중심의 효율적인 생활지도는 이제 개성이 넘치는 알파세대의 초등학교들에게 적용되기 어렵다. 아이들이 균형잡힌 성역할 사회학습을 하며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제도적 노력과 후속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세영. (1998). 교직 여성화와 교직의 성별관계. 한국여성학, 14(2), 63-94.
- 강태중, 민무숙, 정해숙. (2005). ‘교직의 여성화’가 아동의 성역할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5(2), 1-21.
- 고현, 황정련. (2013). 교사와 어머니가 인식한 유아의 성역할 사회화 형성변인 분석. 유아교육연구, 33(2), 213-236.
- 구본열. (2009). 초등학교 남교사에게 요구되는 성역할 기대 이미지: ‘마당쇠’, ‘근엄한 아버지’, ‘중성적 인간’.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975-987.
- 구정화. (2009). 초등학교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학년 및 성별 차이 연구. 사회과교육, 48(3), 35-46.
- 김경화. (2003). 교직여성화에 따른 초등학교경영활동의 변화와 과제. 한국여성학, 19(1), 145-180.
- 김남지, 한유경. (2011). 초등학교 담임교사 역할수행의 성차 분석. 교육과학연구, 42(1), 51-76.
- 김선희. (2017). 인과적 과정추적(Causal Process Tracing)을 활용한 정책학 연구 방법 고찰 - 이론적 함의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7(4), 123-147.
- 김영실, 박은주. (2011). 남녀유아교사직에 대한 고 3 학생의 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16(5), 45-64.
- 김영희. (2005). 교사의 성역할정체감 유형과 양성성 증진을 위한 의식향상 교육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예비연구.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IJACE), 8(1), 1-22.
- 김정민. (2006). 사회적 상황의 제시 유무에 따른 아동의 성역할 개념의 유연성. 아동학회지, 27(3), 189-205.
- 김지혜, 신효정. (2022). 초등교사의 고학년 생활지도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5), 197-215.
- 김지희, 이순형. (1994). 아동의 성 향상성과 성 고정관념의 관련성. 한국영유아보육학, 1, 108-126.
- 김혜숙. (2002). 고정관념 및 편견과 인간 관계. 사회과학연구논총, 9, 83-101.

- 박경미. (2004). 교사의 성별에 따른 수학 수업 방식의 비교·분석 연구. 한국여성학, 20(2), 215-243.
- 박종모, 박지원, 박세훈. (2019). 초등학교 남교사의 갈등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종합연구, 17(1), 95-115.
- 박종필. (2010). 교직의 여성화가 교원 정책에 주는 시사점 탐색: 학교 경영의 측면에서. 교육정치학연구, 17(2), 7-33.
- 변기용, 이현주, 이승희, 손다운. (2022). 비판적 실재론의 교육행정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함의와 연구의 실제. 교육행정학연구, 40(1), 691-720.
- 변기용. (2020). 근거이론적 방법: 현장 기반 이론 생성을 위한 질적 연구. 서울: 학지사.
- 손형국. (2015). 초등학교 남교사의 교직생활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21(4), 347-372.
- 심미옥. (1998). 초등학교에서의 학생 역할과 성역할의 비교. 교육연구, 15, 161-181.
- 심미옥. (1999). 교직의 여성화가 초등학생의 성역할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성역할의 긍정적 특성과 부정적 특성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13(1), 185-212.
- 심미옥. (1999). 교직의 여성화가 초등학생의 여성화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9(1), 47-73.
- 안라리. (2002). 유아의 성, 연령, 또래 관계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한국영유아보육학, 28, 105-124.
- 안아라, 김한별. (2013). 초등학교 교직에서 남교사의 정체성 탐색. 교육문제연구, 26(3), 81-108.
- 어윤경. (2008). 성, 성역할 정체감이 직업적 성 고정관념에 미치는 효과-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교육학연구, 14(2), 131-153.
- 유미숙. (1986). 직업에 대한 아동의 성별 고정관념의 인식. 아동학회지, 7(2), 17-32.
- 이재연. (1985). 성역할 사회화이론의 최신 경향. 아시아여성연구, 24, 167-176.
- 이주연, 한세영. (2004). 어머니와 아동의 성역할 태도와 성역할 사회화에 대한 지각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3(2), 251-261.
- 이현주. (2012).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단분석: 초·중학교급에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6(2), 391-412.

- 정순화, 이경희. (1997). 아동의 성역할 태도와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1).
- 최효정, 채민석. (2023.2.13.). 신입 초등학교사 男 비율 한자릿수로 ‘뚝’ ... 남교사 몇종에 교육현장 ‘우려’ .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2/13/5MKQESB3DBHSVMB24AYVU7ESDA/에서 2023년 10월 30일 인출.
- 하문선. (2014). 여자고등학생의 여성성역할, 여성성역할갈등과 부모진로지지, 의사결정의존성 및 진로결정 간 관계. 직업교육연구, 33(2), 59-84.
- 한수명. (2003). 초등학교 남교사의 정체성과 여교사에 대한 시각에 관한 조사연구-부산 동래교육구청의 경우. 부산교육학연구, 16(1), 169-188.
- 함은지, 황매향. (2017). 초등학교사가 생활지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37(1), 199-224.
- Corbin & Strauss. (2019). 근거이론. (김미영 외 역). 서울: 현문사. (원서출판 2015).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Mischel, W. (1968). Personality and assessment. New York: Wiley.
- Mischel, W. (1973). Toward a cognitive social learning reconceptualization of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80,

2023년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
지역, 국가와 고등교육 경쟁력:
전망과 과제

발 행: 2023년 12월 2일

발행인: 이종재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주 소: (0415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902호
(마스터즈타워 빌딩)

E-mail: keas1967@daum.net

홈페이지: <http://www.keas1967.com>

인쇄처 가람문화사(02-873-2362)

<비매품>